

보도자료

2020. 12. 21(총 153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썩고개로 87 반석빌딩 6층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2020년도 국감-사실상 야당도, 애국심도 없고, 법치는 실종

국감의 주역일 “국민의 힘” - 리더 없이 지리멸렬!

야당도 국익을 위해 국정을 제대로 감사하여야 함에도, 부정비리 감싸기에 급급

(1)코로나 사태에, “**독감백신**” 으로 **사망했다-아니다** 논란,

(2)리임, 옵티머스 등 **권력형 금융비리** (3)4·15 총선, **부정선거** 공방

(4)**탈원전-태양광사업** 문제점 (5)**윤석열 검찰총장 - 추미애 법무** 검찰개혁논란

-- 국회(21-1) 국정감사 종합성적은 D학점 --

- ▣ 국정감사(21-1) 피감기관은 지난해 보다 감소(788개⇒705개), **감사일수도 대폭 축소(159일⇒137일)**
- ▣ 지난해 기승전 ‘조국(曹國)국감’ 인 반면, 올해 국정감사는 추미애(법무) 국감
- ▣ **전문성, 투쟁력 없고, 핵심종인과 자료 원천차단된 형식적인 국감에, 기업인 민간인 호출 별세우기 국감은 여전**
- ▣ **민생·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정쟁으로 파행 - 질의에 대해 피감기관장<추 법무>은 “소설 쓴다” 고 조롱조 반발**
- ▣ 지난해 조국 가족 펀드, 올핸 투자사기 옵티머스, 리임 정관계 로비 등 **권력형 금융비리 의혹** 제기
- ▣ **낙하산, 공직비리, 성범죄 등을 보고도 눈감고 감싸는 야당, 부정부패를 바로잡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 / 국정감사현장만 모면하면 된다는 피감기관 / 이를 보고 있는 국민은 허탈·참담**
- ▣ **코로나19** 이유로, 21년 만에 **NGO감시단도 없는 텅빈 국감장**, 타의원 질의에 끼어들기와 막말 등 구태 여전
- ▣ 비행기 타는 시간이 **감사시간보다 많았던 예산낭비·밀실 재외공관 감사는** 코로나로 ‘**화상국감**’ 으로 전화위복됨
- ▣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자기들이 **안지키는 ‘국감기간’** 21대 국회도 여전 / 국감법에 30일을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20일로 줄여서 하는 것도 모자라, **감사준비한다고 휴일(주로 수요일), 공휴일 겹쳐 평균10일도 국감 안해.**

21대 첫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선정

1. **[국감성적]** 지난 제15대 국회 말부터 22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 모니터링 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 외 22인)은 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의 4차년도 국정감사, 1988년 부활한지 33년째 국

정감사인 올해 **국정감사**를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10월 19일 중간평가에서 밝힌 그대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 D학점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제20대 국회 첫째 국정감사는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F' 학점을 받았고, 지난해 국감은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D' 학점이었는데, 이번 코로나(COVID-19)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파행 정도는 감소하였지만, 파행하지 않은 원인이 야당의 전투력 상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선되었다고 보기에 애매하다는 평가입니다. **과반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국정감사 준비부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큰 줄기에 대한 질의보다 곁가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감사다운 국정감사가 아닌 피감기관의 업무보고와 국정파악 정도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평가입니다.

중간평가 이후 과방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위원장과 간사의 말다툼으로 인해 파행이 되었고, 국감 마지막날 국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 증인의 '살인자' 발언과 여야간의 끼워들기 막말로 정쟁국감을 하여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시작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총들**로 끝나면서, 정부 심판론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은 날카롭지 못한 공세로 일관했고, **주요 상임위에서 요청한 증인 채택은 여당의 원천봉쇄에 대거 무산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만 치중하였다는 평가입니다.

2. **[의원평가]** 제21대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부실국감이라는 불신이 컸고, 이번 국감이 'D' 학점 국감이었지만,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된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원 수는 포지티브 운동을 하는 본 모니터단의 성격과 노선에 비추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5선의 변재일 의원과 김기현, 김영주, 안규백, 이명수 의원 등 여야 4선 중진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정원의 25%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1) 기본적으로 **평균질의횟수와 질의응답시간(본질의+보충질의+추가질의 합산횟수 평균)**, **질의내용전체를 종합 수집**하였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자금집행관련 문제점 지적, 부정비리 지적, 정책관련 문제점 지적,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내**

역 점검여부를 6단계(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못함 1점, 해당사항 없음 0점)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질의 횟수 이상 질의, 대안 또는 법과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은 가점하고, 중복질의(발견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 질의한 경우) 질의 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질의시간 안지키기, 상대방 의원 비난) 감사 매너(끼워들기, 잡담, 판짓) 국정감사 방해(파행유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국감방해) 등은 감점하였고, 추천 및 지적의 경우에는 ①적시성 ②충실성 ③논리성 ④정확성 ⑤공정성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2) 국정감사 우수의원의 경우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하였고(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분량과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국감불참 2일이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국감우수의원(국리민복상)은 각 상임위별 상위 25%내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결임 상임위의 경우에는 본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의원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국리민복상 평가 참조>

3)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당 의원들은 국정의 큰 흐름을 관통하는 국감을 하지 못한 채, 겉가지 국정감사에 치중하는 면이 많아 실망스러웠습니다.

4) 이번 평가에서 **모범의원**으로, 여성 최초의 국회부의장으로 여성과학인력에 대한 정책조명을 한 **김상희** 국회부의장(과방위), 조세 및 재정 분야에서 소비자중심의 정책 제안에 탁월했던 **정성호** 기재위 위원(예결특위 위원장), 다선 중진의원이면서도 초선 처럼 열띤 정책 국정감사를 전개한 **정진석** 의원(외교통일위)을 선정하였습니다.

5) 이번 **우수 상임위원장** 평가에서는 위원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비중있게 평가하였고, 여야정쟁 속에서도 편파시비 없이, 파행성 정회 없이 감사를 한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3선의 **윤관석** 정무위원장(민)과 **유기홍** 교육위원장(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민)을 선정하였습니다.

3. **[국감행태]** ①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그동안 정착되었던 '일문일답'이 많이 사라지고, 자기 의견을 길게 발표하는 **정견발표형 국감**으로 퇴보하였으며, 짧은 질의시간에

동영상(뉴스 등)을 보고 질의를 하는 **영상시청형 국감**이 두드러졌습니다. ② 코로나 위 기라면서도 705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과다하게 선정했으며, ③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 을 하지 않고 20일 국감을 고수한 채, 감사일정은 158일에서 137일 로 대폭 축소(위원회별 평균 10일)하였습니다. ④ 국감기간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현장시 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여전하고, ⑤ 태부족한 감사시간에 증인채 택논란과 여야간의 끼어들기 막말 등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하였습니다. <<국회가 국감이 부활한 지 33년간 증인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연구를 하지 않아, 적절한 피감기관선정, 일반인 증인과 기관증인과의 중요성 정도를 알 수 없음>>

4. **[국감개선]** 국회의원(감사위원)이 수년간 지적해도 피감기관은 시정이나 개선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그저 “예, 알겠습니다” 라는 형식적 면피성 답변이 많았습니다. 작년 국 정감사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이 1년이 지나서야 감사장에서 되물어 **시정조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맹탕 국감이 재현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지적한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국감이후** 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질의실명제 실시) 또한 **현장시찰과 일반증인은 국감** 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30일 중 10일간 정기국회 전 실시하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5. **[국감당부]**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한다.(Lord Acton)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모든 국가 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의미는 막중하다. 그러므로 **여당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권력(정부)을 제대로 감사해야(헌법 제46조②, 국회법 제114의2)하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엄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사전준비와 철저한 현장점검을 거쳐 충실국감** 을 해야 할 것임에도, 이번 국감은 끝까지 여당은 감싸기, 야당은 준비부족이 많이 드 러나는 **부실국감**이었다.” 고 강조했습니다.

붙 임 : 국정감사(21-1) 종합평가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1부. 끝.

<<상세한 분석·평가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LAW.ORG 참조바랍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7>>

2020년도 국정감사(21-1) 국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22년 전통의--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 국정감사 국민복상(모범의원상) (국회직, 가나다 순)

김상희 국회부의장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4선)
정진석 의원 (외교통일위, 국민의힘, 5선)	

■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위원장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윤관석 국회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의원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원회	선정수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의원 <<준칭 생략, 가나다순>> 정당표시 :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힘(힘), 시대전환(시)
국회운영	4	김성원(힘) 김정재(힘) 윤건영(민) 이용빈(민)
법제사법	4	김도읍(힘) 박범계(민) 전주혜(힘) 최기상(민)
정무	6	강민국(힘) 박용진(민) 성일종(힘) 유동수(민) 이용우(민) 이영(힘)
기획재정	6	고용진(민) 류성걸(힘) 박홍근(민) 유경준(힘) 이광재(민) 추경호(힘)
교육	4	곽상도(힘) 박찬대(민) 정경희(힘) 정찬민(힘)
과학기술정보통신	5	박대출(힘) 변재일(민) 조명희(힘) 한준호(민) 황보승희(힘)
외교통일	5	김기현(힘) 김영주(민) 이재정(민) 조태용(힘) 태영호(힘)
국방	4	김병주(민) 신원식(힘) 안규백(민) 한기호(힘)
행정안전	6	김영배(민) 박완수(힘) 박완주(민) 서범수(힘) 이명수(힘) 이해식(민)
문화체육관광	4	김승수(힘) 김승원(민) 김예지(힘) 전용기(민)
농림축산식품	5	위성곤(민) 이원택(민) 이만희(힘) 정운천(힘) 정점식(힘)
산업통상자원	7	김경만(민) 신영대(민) 이장섭(민) 이철규(힘) 조정훈(시) 최승재(힘) 한무경(힘)
보건복지	6	강기윤(힘) 권철승(민) 신현영(민) 이종성(힘) 전봉민(힘) 최혜영(민)
환경노동	4	김웅(힘) 윤준병(민) 임이자(힘) 장철민(민)
국토교통	8	김은혜(힘) 김희재(민) 송석준(힘) 송언석(힘) 조응천(민) 조오섭(민) 천준호(민) 하영제(힘)
여성가족	3	김미애(힘) 양금희(힘) 임오경(민)
비고	81	1. 선정비율 : 상임위원회별 25% 범위 내에서 선정 2. 전체 344명(운영 28/ 여가 17) 중 81명으로 전체 23.55% 3. 겸임상임위는 본상임위에서도 우수하였으므로, 상장에 두 개 상임위가 표시됨 4.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당시의 상임위원회임

2020년도 국정감사(21-1)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통계

① 교섭단체별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선정의원(명)	42	44	1
전체의원(명)	173	103	22
선정비율(%)	24.3	42.7%	4.5%
겸임상임위포함(명)	199	119	25
선정비율(%)	21.1%	37.0%	4.0%

※ 국회의장 제외. 더불어민주당(174인)의 경우에는 국무위원 1명을 제외한 수치임 <<운영, 여성가족위원회 포함 의원수>>

② 당선횟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선정의원(명)	46	23	10	6	2
전체의원(명)	151	74	42	19	13
선정비율(%)	30.46%	31.08%	23.81%	31.58%	15.38%

※ 박병석 국회의장(6선) 불포함

③ 여성의원

구분	여성의원(명)	우수의원(명)	선정비율(%)
의원수(명)	57	19	33.3%

※ 감사위원 299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9.03%임

④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선정의원(명)	17	70
전체의원(명)	47	252
선정비율(%)	36.2%	27.8%

※ 지역구 의원 253명 중 국회의장님 제외

⑤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별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9	15	30.61%	강원도	8	3	37.50%
부산광역시	18	4	22.22%	충청북도	8	2	25.00%
대구광역시	12	5	41.67%	충청남도	11	4	36.36%
인천광역시	13	3	23.08%	전라북도	10	3	30.00%
광주광역시	8	2	25.00%	전라남도	10	1	10.00%
대전광역시	6	2	33.33%	경상북도	13	4	30.77%
울산광역시	6	2	33.33%	경상남도	16	6	37.50%
세종시	2	0	0.00%	제주도	3	1	33.33%
경기도	59	13	22.03%	계	252	70	27.8%

※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대전은 7명 중 국회의장 지역구인 대전시 서구갑 1명 제외

2020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면 온라인모니터링으로 변경하였고,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확정함.

1. 기본 자료 조사

- 국정감사에 참가하는 모든 국회의원(감사위원)들의 각 상임위원회 피감기관별 질의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전수 조사함.

- (1) 피감기관별 질의횟수(주질의, 보충,추가질의 합산횟수)
- (2) 피감기관별 질의시간 합산
- (3) 피감기관별 질의내용 정리

*의사진행, 자료제출발언은 포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조사 및 평가

(1) 질의내용 분류 및 평가

- 질의내용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못함 1점, 해당사항 없음 0점’으로 평가함.

- ①부정비리지적(피감기관이나 그 직원이 잘못된 사항 지적)
 - ②대안, 법제도 개선(피감기관의 법제도, 정책미흡 개선방안 제시)
 - ③자금집행(재정)문제점(피감기관이나 그 구성원이 예산을 잘못사용한 사례 지적)
 - ④시정조치점검(과거국감 지적에대해 시정이 되었는지 점검)
 - ⑤정책관련 잘못 지적(피감기관의 정책 문제점조명, 사례제시)
- (2) 중복질의유무(다른 의원의 질의에 발전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질의)

(3) 감점요인 평가

- 질의 중 다음과 같은 언행이 있는 경우 확인하여 감점함.

- ①질의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시간 안 지키기, 상대의원 비난)
- ②감사매너(끼워들기, 잡담, 딴짓)
- ③국감방해 원인제공(파행유발, 의사진행 국감방해)

3. 국정감사모니터 위원 평가 및 우수(못함)의원 추천 기준

- 국정감사 내용 평가의 경우, 아래 다섯 가지 준거(원칙)에 의해 5 단위

(아주 잘함, 잘함, 평범, 못함, 아주 못함) 척도로 평가하여 우수의원과 못한 의원을 추천함.

- ①적시성: 감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기(적시)에 이루어 졌는가?
- ②충실성: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 효과를 낼 수 있는가?
- ③논리성: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가?
- ④정확성: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인가?
- ⑤공정성: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이 없이 공정한가?“

4. 종합평가

(1) 교차평가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 (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함.

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2)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의 평가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분량과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함. 잘한 의원이 많거나, 평가가 비슷한 경우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함.

5. 결과 발표 및 국정감사 평가

전체 국정감사평가대상 국회의원 중 위원회별로 25%를 우수의원으로 평가하여 국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함.

①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의 법적근거와, ②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③법률연맹의 국회의정감시 7종 국익(國益)기능

① 국정감사모니터링은 국민주권원리, 헌법(제50조)국회법(제75조)국감조법(제12조)에 근거한 의사공개원칙에 따른 권리다
 ② 대학생단체 등 270개 NGO연대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2년된 국감모니터 전문단체이며, 그 주관 단체인 ③ 법률소비자연맹은 30년된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NPO로서, **국회사무처가 모니터링을 방해한다 하여도, 이미 지난 10수년 동안 ‘온 라인 만으로’ 시행한 의정종합평가(대한민국 헌정대상)가, 국내 외적으로 정착<미국/일본/영국 등의 NGO/국회의원/교수/변호사들의 롤 모델이 됨>되었듯이, 현장 모니터링 안해도 국감모니터링은 할 수 있지만, 이는 아래와 같은 7종 국익기능을 저해하는 반쪽애국/민주화다.**

1. 국회의원의 민주성 상징 --대한민국 국회엔 21년<주관단체는 30년>동안 “**단 한번의 공정성 시비없이**” <편취/비방보도는 법적/윤리적 근거없는 100% 가짜뉴스로 드러남> **국회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모니터/평가를 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그 활동, 즉 시민의 권력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된다는 자체가, 국회와 국회의원의 건전성/민주성 상징이 된다.**

2. 국회의원의 신뢰성 회복 --국민들은 언론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쌈질하는 것만 보았다가,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국민민복을 위하여 국정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대학생이나 시민(대표)들이 비로소 국회의원의 노고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와 국가에 대한 우호적/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되게 한다.**

3. 법치주의를 지키는 공헌 --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Sir. Acton > **권력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예방/척결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시민단체들이 모니터/평가하는 것은 법치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권리요 책무이다.**

4. 감사위원의 긴장감 조성 --감사현장에 **NGO대표가 불참(22년 만에)한 2020년도 국감(파기)에서, 국정의 비위를 비호하고 감싼다는 의혹속에 엄중한 감사보다는 여/야간 막말과 난장판이 연출되었는 바, 현장참관은 유권자가(감사위원을)지켜본다는 긴장감속에, 피감기관의 부정비리, 예산낭비, 정책지적 등, 충실한 감사를 독려하는 기능이 크다.**

5. 피감기관의 긴장감 조성 --피감기관이 **국감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모르쇠’ 답변이나 ‘불성실하게 버티기’ 답변을 하기도 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 감사현장에서 시민단체(NGO모니터단)가 피감기관을 지켜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감기관을 긴장케 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감하게 만든다.**

6. NGO 정책과 국정 참여 --**시민사회단체가 감사현장에 참여하여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정보를 이해하여, 시민사회공동체의 정책개발과 건전한 비판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는다. UN이 정부(GO)의 주장만이 아닌, 옵서버로 비정부 민간기구(NGO)를 제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공동발전을 위한 진실 추구적 협동원리라고 본다.**

7. 시민 대학생들 정치학습 --청년/대학생 및 시민들이 국감현장을 직접 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학습하게 된다. **정해진 룰(rule)에 따라 국정현안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으며, 나라사랑/나라걱정을 하게 되는 등 민주정치 학습을 하게 된다.**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 국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다. 》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는 숙연한 감사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감사위원(국회의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5~30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람.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등”을 파악·대처하기 위해서도 ‘자리지킴’이 필요하다고 봄.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나마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봄.
3. 피감기관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에 대한 승복을 받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중복·반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반복질의로써 연중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알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국감직후에 있는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본 NGO모니터단의 출석·이석체크는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이상 결석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것이며, 둘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감정평가를 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모니터·평가활동 개관

상명변경의 배경과 취지 :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22년 전부터 사용하면서, 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포지티브 의정감시활동의 ‘상징’으로 되어 왔으나, 근년 유권자들을 혼동/기망하는 똑같은 명칭(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의 짝퉁상이 범람하여 부득불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2018년부터 상명을 국회의정활동, 국정감사의 궁극적 목적인 ‘국리민복(國利民福)’을 365일 상기하자는 의미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변경·시행하는 것임.

- (1) 《**모니터단의 활동근거**》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외 22인)은 헌법(제1·21조)상의 국민주권과 알권리, 국회법(제7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2조) 등의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지난 22년 동안 1천명의 모니터들이 헌신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국회의 공식지원<매년 5억원씩>제안까지 사양하면서 정직하고 충실하게 모니터링을 하여 ‘국회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는 신뢰와 명예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제도를 정착시켰다.
- (2) 《**모니터단의 그간업적**》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다른 시민단체들이 네거티브운동으로 국회를 폄훼할 때 ① 포지티브 운동으로 국회 4대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②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으로 국가5부를 건전케 유도하고, ③ 민주국가의 상징인 국회를 시민·대학생들이 감시함으로써 주권자로서 민주정치를 이해하고 학습하게 하였으며, ④ 국감제도 관행 개선노력을 하였고, ⑤ 국정감사 기간 중 후원회 개최 근절, ⑥ 국정감사 내용의 실시간 인터넷 중개방송으로 국민 알권리 제고, ⑦ 국정감사의 과잉영접 등 수감질서 개선, ⑧ 국감의 제도, 내용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회감시 우수모델로 외국학자들에게까지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 (3) 《**모니터단의 조직구성**》 모니터단은 전국규모의 지부를 가진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통칭으로 270개 NGO연대기구라고 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모니터링이 제한되어 온라인 모니터링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실제 1천명 이상의 모니터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모니터 인원 및 배치와 공문발송은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간사단체인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이 총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국정감사를 한 번이라도 직접 경험해 보았다면 그 같은 오해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국정감사가 16개 상임위원회(17개 상임위 중 정보위 제외)에서 동시에 전국적인 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어떤 한 단체가 나서서 홀로 모니터링을 주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국가기관조차 그러한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적인 지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 간사단체를 위임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가 없어서 수년째 계속 간사단체로서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감모니터단의 간사단체라고 해서 국가예산지원이나 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더욱 더 어려운 형편이다.

(4)《모니터단의 평가기준》 국정감사 평가기준 중 2일 이상(오전 오후로 나누어 4회 이상) 결석한 의원을 국리민복상(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준은 지난 22년 동안 모니터단의 각종 발간자료와 홈페이지 공지사항, 모니터위원 교육을 통하여 안내·공개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회 보좌진 국회출입기자 전문가 등과 수십차례 회의를 거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으며, 그 평가기준에 따라 여야, 친소를 불문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평가과정과 기준》 모니터관찰사항에 나온 대로 충실성, 성실성, 전문성, 참신성 등에 관한 현장·화상모니터위원들의 다양한 추천과 지적이유를 종합하고, 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개별방문과 공식, 비공식의 전문가의견조회 및 평가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 6일(금)까지 제출 요청된 국회의원실의 자평 및 추천 내역과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정량평가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만을 대상으로, 국회공보를 통한 공식 출결사항을 점검하고, 국회 인터넷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질의횟수(단순 자료요청, 의사진행발언은 제외하고 증인신문질의와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만 합산함) 및 질의시간을 정량화 하였으며, 언론보도 내역을 종합검토하였다.

정성평가로 정치적 논란이 심한 경우(예컨대, 추미애장관 자녀문제, 라임 옵티머스 등 대책, 재정준칙 등)에는 역지사지하였으며, 국정감사의 본래적 취지인 제도미비 발견(입법개선사항), 국정난맥상이나 부정부패 질타, 예산낭비 지적 등을 핵심 평가대상으로 하였고, 지난해 시정조치사항 점검도 반영했다. 《그동안 많은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자신이 모신 의원이 우수의원에 선정되지 못하면 모니터단을 방문하여 평가자료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모니터단을 모함하거나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들이 막겠다고 하며 모니터단의 선정을 인정하게 되었음》

(5)《선정 우수의원의 수》 전체 감사위원 중 상임위별로 25% 전후해서 국리민복상 수상위원을 선정·시상하는 것은, 고민 끝에 결정된 합리적인 수치이다. 그리고 지난 22년 동안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처음엔 적은 수를 선발하여 우수의원을 시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소수를 선발하는 일이 훨씬 용이함). 그러나 전체의원 중 소수만을 선정하여 시상할 경우에는 나머지 의원들이 상을 미리 포기하고 의정활동을 등한시하게 될 것이고, 상임위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감사위원들간 경쟁을 높여 결과적으로 좀 더 나은 국정감사활동, 의정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연구하여 25%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2020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체인 22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국감평가 주요목차 ■

■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5
■ 2020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주요통계(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포함)	6
■ 2020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7
■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의 법적근거와 모니터단의 국회의정감시 7종 국익(國益)기능	8
■ 감사위원이 국정감사장에 좌정해야 할 이유	9
■ 2020년도 국정감사 평가를 마치며 :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모니터·평가 개요	10
I.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총괄	13
◎ 2020년도 국정감사 평가개요	13
◎ 2020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14
1.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성적은 D학점	14
2.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23
3.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약평 《상임위 무순》	25
4.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여전	35
5.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만 풍성	37
6. 국회사무처의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은 옳은가	38
7.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돼야	39
(1)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않게 해야	39
(2)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못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40
(3)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41
(4)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41
(5)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 핥기’ 식 국감 종식	42
◎ 2020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평가	43
1.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	43
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53
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59
II. 2020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60
1. 코로나19 국정감사로 감사현장 출입 제한	60
2.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회에서 대부분 진행	61
3. 질의 시간 길어져 소리없는 국감	61
4. 2020년 국정감사의 행태적 특징	64
5.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도 여전함	76
6.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캄캄	77
III. 2020년도 국정감사의 화제성(話題性) 자료	79
1. 이번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소품 일부사례	79
2. 주목을 받은 국정감사장의 증인, 참고인	91

3. 2020년도 국정감사장 앞 시위 (언론보도 중심)	99
4. 2020년도 국정감사장의 ‘웃음소리’ 분석	104
5. 국정감사 기간동안 크게 망신당한 국회의원	110
6. 국감중 망신스러웠던 피감기관장	111
7.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답변방법	115
8. 관심을 끈 국정감사장의 ‘사과’	119
9. 열전 또는 파행을 야기한 ‘한마디’	124
IV. 제21대국회 제1차년도(2020년도)국정감사 이모저모	126
1. 2020년도 국정감사의 실시시기 조정 등	126
2. 2020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127
3.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05개(지난해 788개)	128
4. 57회나 5개 이상 수감기관 동시국감	129
5.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 및 인터넷 생중계	135
6. 2020년도 국정감사 감사진행시간은 1317시간 36분	136
7.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 2개 위원회 7회 실시	137
8. 국정감사 중 감사의원 등의 회자된 말	140
9. 국정감사 도중(직전) 상임위원회 회의 : 40회	150
■ 2020년도 국정감사 및 2019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표	152

I .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총괄

■ 2020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외 22인의 공동단장)은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체인 22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활동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여,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링하였고, 299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22년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공정한 평가기준과 올해 정량화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된 제21대 국

회 제1차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을 공개하며, “2020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를 발표한다.

■ 2020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1.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성적은 D학점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성적을 지난해와 같이 ‘D’ 학점으로 평가한다.

(1)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의 권능으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대표자들인 국회의원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 기본적 질서를 지키고, 영토를 보위하며 국리민생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4년을 총 점검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이고,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비중이 큼에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ABC 국감으로 진행되었다.

① A - 초보자가 전문가를 감사하는 아마추어 국감

먼저, 4·15 총선의 새바람 열풍으로 제20대 국회보다 초선의원이 많아 151명에 달하고 있으며, 선거임박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위성정당이 생기는 바람에 총선에서 전문성보다는 대중 인지도와 감성을 중시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 보충이 힘들었던 측면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초선의원들을 위한 집합 워크숍 등도 개최하지 못하였고, 유례없는 비상시국에서 개최된 위기국감이었음에도, 위원들의 준비부족(?)으로 대정부견제를 하는 데에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감사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 되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의원 질의의 특징》

■ 국정탐색형 국감

피감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여 못하여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는 듯이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를 하다가 피감기관이 반대하거나 부인을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며 질의를 맺음.

* 감사위원 질의예 :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의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 피감기관 답변예 : “지금 답변은 하나하나 드리지 않고 저희가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고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견발표형 국감

감사위원이 뭔가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의견말씀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문일답이 원칙인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진 감사였음.

* 감사위원 질의 :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OO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토론이다 보니까 장관님께 중간중간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쪽 제 설명과 지적을 들어보시고 끝낼 무렵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피감기관 답변예 : 예 동의합니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 영상시청형 국감

국정감사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2분정도 영상을 보고 관련 질의를 하는 국정감사 형태

* 감사장에서 주로 들리는 내용 : “영상 하나 봐 주세요” “영상 틀어 주세요” “뉴스 보도 영상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는데” “영상 하나 보시죠.” “영상 보셨어요” “소감이 어때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한번 보시고. 지난해 2월에 주민 제보로 방송된 내용이거든요.” “동영상 한번 봐주세요”

② B - 집권여당의 정책국감을 표방한 방탄국감

174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국정감사를 정부견제 보다는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것은 국감계획단계부터 자르고,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도 국민을 피로케 하는 ‘맹탕’ 국감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국정감사의 사회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원장이 모두 여당인 관계로 국정감사 진행에 있어 정부견제라는 야성을 찾기 어렵고, 적당히 균형을 맞추어서 넘어가려고 하였다. 10월 23일에는 ‘1분 추가 질의’ 문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성·막말·파행의 추한 모습을 보였다.

《국감시작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각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국감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으로 정했다”며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의 정쟁과 꼼수에는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에는 팩트 체크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일하는 국회의 진일보한 국감이 되도록 출선수범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날 국감 사전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20일은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국정 난맥상과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려 달

③ C - 1급 전염병인 국정감사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 국감

코로나19 여파로 국감 회의장에는 2인 1개로 사용하던 마이크가 1인 1개로 배치됐으며 좌석마다 비말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고, 집합 인원 50명 제한 권고에 따라 국감장 참석 인원을 줄이고 비대면 영상 국감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마스크 착용, 칸막이 설치로 국정감사의 팀워크를 기대하기 어렵고, ‘흩어져야 한다’는 코로나19의 행동지침처럼 의원간 합동으로 집중적인 송곳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10분간 정회가 오후 8시 넘어서야 속개되었는데, 첫 보충질의를 한 윤재갑 의원이 확진자 접촉 인사가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며 ‘모두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기도 했다.
-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 종합감사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덕섭 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라 불출석했다.
- 10월 29일 국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는 외국 출장후 자가격리 중이라 청와대 기관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해 연기되기도 하였다.
- 11월 4일 국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중 안보실 2차장이 확진자가 나온 이건희 회장 빈소에 다녀온 것이 확인되어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가 도중에 자가격리되었다.

(2) 국감실망 ① 국감직전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고,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이 사체를 소각하였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하여 충격을 받았는데, 국정감사 중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지지부진하여 실망했다.

② 법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부터 불거져 나왔던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의 조사발표에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대정부질문 등에서 거짓말을 한

의혹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건 관련 증인을 신청 하였으나, 여당이 반대하였고, 이 문제로 국정감사장마다 증인채택 논란과 여야 간의 감정대립으로 파행을 빚는 등 아쉬움을 자아냈다.

③ 지난해에는 조국 수호 쪽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규탄하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초대형 장외집회(서초동집회)가 열렸고, 조국 파면 쪽에선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과 실정을 규탄하는 초대형 장외집회(광화문집회)를 개최여, 이러한 정반대내용의 집회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이후에도 계속된 바 있었다. 올해에는 10월 3일 개천절 경찰의 광화문 원천봉쇄(소위 ‘재인산성’ 쌓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크게 갈라진 모습을 보였다.

(3) 국감성과 ① 이번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국감장에서 쟁점화 되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두 펀드의 피해금액은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투자자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일인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도피까지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혹시라도 이들의 범행을 도운 뒷배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조리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

<p>참고(정국 뇌관 '라임·옵티머스'②] 예견된 사고...서로 닮은 두 펀드, 데일리안, 2020. 10.15)</p>	
<p>'라임 사태'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부실 운용되다가 지난해 10월 환매중단이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난 사건이다. 청와대 및 집권여당 관계자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p> <p>사태의 중심 인물인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현금 55억 원이 발견돼 압수됐다. 이들은 55억 원을 5만 원권 지폐로 해외여행용 대형 캐리어 세 개에 나눠 담아 보관했다.</p> <p>《의혹/쟁점》</p> <p>'라임사태' 조단위 피해에 靑·與 관계자 연루 현금 55억원 캐리어로 옮기다 허리 다칠 정도 靑전 행정관과 민주당 이상호 위원장 구속돼</p>	<p>'옵티머스 사태'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1조2000억 원대의 시중자금을 끌어 모은 뒤, 부실운용을 하다가 올해 6월 환매중단된 사태다. 라임 사태에 뒤이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라 할 수 있다.</p> <p>김재현 대표는 펀드를 부실 운용하는 한편 자신의 증권 계좌를 통해 수백억 원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돈이 정·관계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임 사태'와 빼다박은 양상이다.</p> <p>《의혹/쟁점》</p> <p>'옵티머스 사태'도 정계 '로비 자금' 조성 의혹 자산운용사 대표, 수백억 원 횡령 정황 포착돼</p>

강기정·기동민·김영춘 등은 의혹 전면적 부인

이낙연, 복합기 대여사용료 대납 의혹에 직면
이재명, 자문단 고문과 회동 사실 '메모' 거명

② 4·15 총선 관련 선거관리 부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유튜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크게 회자되고 장외집회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수들인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을 위반해 무려 27명이 10월 15일 시효만료일까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데, 감독·심판격인 중앙선관위는 밝혀진 업무부실과 해태에도 불과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답변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개표기를 사용한 키르기스스탄 총선 부정으로 인해 대통령이 사임하는 등 주변국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는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거부정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을 하나씩 정밀점검해서 부실을 살피고, 내년 보궐선거 등에서는 개선된 선거룰과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12일 오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질의에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중국 국적의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였고, 간식박스를 투표용지보관함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듯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고 하는가 하면,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로 “CCTV가 없는 사무국장실에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경찰호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 사실로 밝혀짐.

《속기록》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 질의 : 한 번 확인만 해봤으면 좋겠다. 주로 주장하는 것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했다는 말이 됩니까?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 그거는 서울시내 구위원회 한 군데에서 개표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단체가 있었습니다. 단체분들을 여러, 대여섯 명을 모셨는데 그 분 중의 한 분이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 :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빵상자에 보관했다는 것은 됩니까?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 그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비례용지가 길다보니까 해당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보관상자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넣다보니까 부족하다보니까 간식 먹었던 상자를 가지고 활용한 것인데요, 그건 뭐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법규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뒤 적절하지는 않았습니까.

○ 최춘식 의원 질의 : 지금 관외사전투표의 보관장소가 저희들이 집계를 낸 바에 의하면 사무국장이나 과장사무실에 보관한 곳이 한 250군데 되고, 그 다음에 회의실이 2곳, 조사실이 1곳, 문서고가 2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원칙을 세울 수 없습니까?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 각 청사마다, 구시군 청사마다 제각각이어서 그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접수되면 투입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추천위원 참관 하에 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이 대다수가 사무국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 질의 : 사무국장실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CCTV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 예.

최춘식 의원 질의 : 우편물에 대한 문제점이, 우편투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경찰관이 호송을 하는 게 원칙이죠?

최춘식 의원 질의 : 호송요청을 했던 실적을 보면 12.5%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호송이 이루어진 비율은 9.8%밖에 안됩니다.

③ 이번 여름 태풍피해와 관련해 그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태양광사업 등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여 태양광사업 관련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발본색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기된 농지 잠식 및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태양광 사업 열풍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 10월 7일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정애** 의원은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지금 태양광 시설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 다만 언제 설치됐는지 사실 관계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설 허가가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8일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단 2명이었던 징계 직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1월까지 총 91명이 징계를 받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자 퇴직금 정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6명이 해임됐으며 이들에게 모두 35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태양광이 설치됐다”며 “농지를 잠식하면서 태양광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촌(일반)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으

로 구분된다. 농촌 태양광은 농지 자체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바꾸는 것이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구조물을 세워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코퍼레이션 파트티쉽 펀드(코파펀드) 투자현황’에 따르면, 매몰비용을 포함해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과 2013년에 각각 4,000억원씩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발전소 및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고,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이 펀드에 2,367억을 투자하고 있다.

④ 10월 20일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무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까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정부와 감사원의 입장을 조명할 수 있었고, 그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진 바,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원전사업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내었지만, 감정원의 아파트 가격동향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수도권이 올랐다는 사실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양등으로 전세난민 등 피해가 극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가격, 조세문제, 투기문제, 교육환경, 전세보증금, 집합관리의 허점 등 다양한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즉 K-방역의 허점이 없는지를 조명하였고, 독감백신의 안전성 문제, 권력형 성범죄 및 성폭력 근절 대책, 미세플라스틱 문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제도의 개선 등 미흡하지만 국민의 먹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⑦ 올해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활동에 대한 왜곡을 넘어 죽이기 방송을 한 KBS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KBS 수신료 인상문제와 분리징수에 대해 찬반입장을 조명할 수 있었고, 허위보도로 KBS에 피해를 입힌 직원을 위해 KBS 예산 5천만원으로 특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한 문제, 적자운영을 하면서 연봉 1억원 넘는 직원이 전체의 48%에 이르는 문제, 통제 없는 조사연구수당 등 수당문제, 3개 복수 노동조합 간의 갈등문제, KBS 인사의 특정 노조 편향성 문제, 북한 방송에 대한 연간 4천만원 저작권료 지원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종합감사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55호 휴게실을 KBS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황제국감이란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4) 형식적 특징 이번 국정감사는 ①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준비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전체 70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② 예전보다 밤 11시가 넘는 심야 국감은 줄어들고 있어 국정감사에 대한 열의가 없어 보였으며, ③ 더욱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감사위원간의 감정대립, 감사위원간의 끼워들기와 막말은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였다.

④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문제도 심각한 현상 중의 하나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선 영똥하게 의원들끼리 자료제출관련 논란이 벌어져 소중한 국정감사 시간을 허비하였다.

[의원끼리 고성인 오간 사례]

○ 10월 8일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진술을 하였는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송옥주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시라고 말하고, 임종성 의원과 윤준병 의원, 안호영 간사, 임이자 간사간에 무질서한 발언이 이어져서 장내가 소란하기도 하였다.

○ 10월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의 부동산 자산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을논박하였다. 송기헌 의원은 “그동안 자료 제출 의견은 자유롭게 이

뤘졌으나 감사와 관련 없는 내용은 감사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에 되어 있는 대로 해야 한다는 김진에 의원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 여야의 싸움에 더하여 피감기관도 예년과 달리 팔장을 끼고 답변을 하다가 지적을 당하기도 하였고, 피감기관장의 답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가 있어 의원들끼리 논란이 벌어져서 고성도 오가기도 하였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3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기관 국정감사에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반박하는 답변을 하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답변태도를 문제삼았으나, 조정태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을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충돌하기도 하였다.

○ 10월 23일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심야의 파행 외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30% 강제와 관련하여 여야당의 간사가 그간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야당의 입장차가 있어서 소란스러워졌다.

○ 10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회의록 제출 문제로 여야간에 기나긴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 11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재 의원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를 하자, 여당의 문정복 의원이 나서서 질의 중단을 요구하자 여야 의원간, 위원장간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 11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재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의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질의하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반발했고, 고성도 오갔다.

⑤ 외교통일위의 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는 어처구니없게 집권여당 여성 중진의원에게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불법음란물 리트스’가 나와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 국감 자료제출관련 문제가 된 곳

○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대법원에 대해 “피감기관이 입법 기관을 우습게 안다”고 성토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에서 국감 이틀 전 USB(이동식 저장 장치)를 저희 방 입구 책상에 던져주고 갔다”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하였다.

○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부 종합 감사에선 이철규 간사는 “오전에 감사원에 제출한 문서와 그다음 청와대와 주고받은 문서 또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 444개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양해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자꾸만 의혹을 받는 겁니다. 결국 자료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위원에게 정부가 자료를 통제해 버리면 무엇을 근거로 합리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라며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2.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국민의힘’ 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국회의원당 평균 4회, 25분 정도 많아
질의총량은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450시간으로 국민의힘 311시간보다 많아)

(1) 총괄 : 질의횟수 평균 24.3회, 질의응답 2시간 45분 41초

개별 국회의원의 질의응답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감사 진행도중 국회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요구 발언, 그리고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외한 감사위원이 실제 국정감사를 한 질의응답(증인신문시간 포함)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한 감사위원당 평균 질의횟수는 24.3회였으며, 질의응답시간은 약 2시간 45분 41초로 잠정 조사되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청가 및 결석으로 한 번도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상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덕흠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을 제외한 수치이다.

(2) 질의횟수 최고는 환경노동위원회, 저조한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질의횟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로 한 감사위원당 평균 32.2회 질의하였고, 1인당 평균 질의응답시간은 3시간 59분 5초였다.

국정감사 일정이 적었던 보건복지위원회는 1인당 평균 질의횟수가 18.7회였고, 질의응답시간 평균은 2시간 12분 5초였다.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환경노동위원회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이 국민의힘 의원보다 많았다.

(3) 질의횟수 시간 격차 가장 큰 위원회 :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소속의원의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에

가장 많은 격차가 있었던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9회 질의를 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35.6회 질의를 하였다.

(4) 질의시간 총량 :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

숫적으로 우세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응답시간 총량은 14개 상임위원회에서만 살펴 보더라도 대략 449시간 55분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응답시간 311시간 21분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도 때때로 질의를 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질의응답시간 총량은 더 커졌다.

(5)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등 검임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를 살펴 보면, 전체 의원의 질의횟수는 평균 4.3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6분 11초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횟수는 3.93회 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3분 54초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횟수는 4.6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8분 21초였다. 여성가족위원회는 1일 위원당 평균질의횟수는 3.1회, 평균 질의응답시간은 19분 26초였다.

《2020년도 감사위원의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현황》

위원회	전체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위원수	질의횟수 평균	질의시간 평균	위원수	질의횟수 평균	질의시 간평균	위원수	질의 횟수 평균	질의시 간평균
법제사법	17(18)	24.4	2:59:22	10(11)	22.9	2:50:02	6	26.2	3:12:42
정무	23(24)	27.57	3:04:17	13(14)	25.54	2:51:59	8	29.63	3:16:12
기획재정	25(26)	21.8	2:36:46	14(15)	20.9	2:29:15	9	22.8	2:48:50
교육	15(16)	27.1	2:56:50	8(9)	27.0	2:52:09	6	27.3	3:02:10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19(20)	29.2	2:50:54	11(12)	24.9	2:26:36	7	35.6	3:25:37
외교통일	20(21)	21.3	2:30:35	10(11)	18.8	2:14:07	7	25.9	3:01:49
국방	16(17)	21.9	2:40:56	9(10)	19.8	2:23:26	6	26.8	3:19:16
행정안전	21(22)	26.0	2:39:15	12(13)	24.5	2:30:51	8	27.4	2:48:38

위원회	전체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위원수	질의횟수 수평균	질의시간 평균	위원수	질의횟수 수평균	질의시간 평균	위원수	질의횟수 수평균	질의시간 평균
문화체육	14(16)	23.9	2:40:29	7(8)	22.1	2:30:29	6	28.2	3:03:03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18(19)	26.7	3:07:09	10(11)	23.0	2:41:16	8	31.4	3:39:31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28(30)	19.3	2:20:04	16(18)	18.1	2:11:45	10	21.1	2:31:33
보건복지	23(24)	18.7	2:12:05	14(15)	18.2	2:09:24	7	19.9	2:20:55
환경노동	14(16)	32.2	3:59:05	8(9)	32.9	4:07:13	5	30.4	3:35:14
국토교통	29(30)	20.0	2:01:54	17(18)	18.5	1:53:33	10	22.1	2:13:41
계	282 (299)	24.3	2:45:41	159 (174)	22.7	2:35:09	103	26.7	3:01:22
주의	1. 전체의원과 민주당의 숫자는 위원장과 전일정 국감불참의원수를 뺀 위원수로 이번 통계를 한 의원이며, 위원수의 ()안은 정원임 2. 법사위는 10월 23일 오후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제외한 수치임								

3.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약평 《상임위 무순》

지난해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교육위, 법사위,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등에서 크게 다뤄졌다. 올해에는 여러 위원회에서 국감 끝날까지 라임·옵티머스사태가 크게 이슈화되었다. 직접 관련은 없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투자와 관련한 안전성을 조명받기도 하였다.

《라임 및 옵티머스사태가 등장한 국정감사장 일부》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 내용
법 제 사 법	12일 법무부	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
정 무	12일 금융감독위	옵티머스와 라임 특혜 의혹
	13일 금융감독원	은행권 등 압력행사 여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가 옵티머스자산운용관련 펀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투자해 손실점검
행정안전	12일 중앙선관위	옵티머스의 선거후보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혹과 선거법위반 수사 여부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 내용
과학기술방송통신	15일 한국방송공사	2017년 옵티머스 펀드에 670억원의 기금을 투자해 물매를 맞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전임 원장과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
법제사법	15일 감사원	라임, 옵티머스 관련 금융기관 감독 부실 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5일 한전 등	남동발전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6일 농협중앙회	옵티머스 펀드 전체 피해액(5151억원)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절차상 하자과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법제사법	19일 서울고검 등	라임, 옵티머스 수사상황 등
법제사법	22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의 라임 수사 방해여부
기획재정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라임, 옵티머스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여러개 기관에서 투자한 사실 점검
외교통일	26일 외교부 등 종합감사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 교민 피해 구제 대책
법제사법위	26일 법무부등 종합감사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와 관련해서 결국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의 실질적인 수사 또 로비 의혹 라임 사건 관련된 강기정 전 수석 관련, 검사장 출신의 수임의혹 등 라임·옵티머스 국감 방불
국회운영	30일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총장의 라임, 옵티머스 연루 의혹
	11.4. 대통령비서실 등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 구제 및 보호 대책, 청와대 인사 연루 의혹

(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이번 국정감사 전체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모습을 보여 주어 호평을 받았으나, ‘추미애’ ‘윤석열’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증인 신청논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간의 갈등’ 이 벌어졌고, 결국 법무부 국정감사는 일부 파행되기도 하였다. 국감장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헌법재판소 개혁, 감사원 개혁 등 개혁의 목소리는 나왔지만 개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10월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야까지 이어진 발언(법무부장관의 부하 아니다

등), 월성1호기 감사 결과가 이슈화되었다. '라임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관련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됐고 이슈마다 여야간 대립을 보였다. 10월 19일 감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관계자와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21인 10월 21일 국회의원 유상범 징계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음>

(2)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 증인문제로 국감계획서 채택부터 파행을 빚었으나, 국정감사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국방위원회가 결의문채택 등 감사직전 벌어진 서해상 공무원 총격 피살과 관련하여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었으나, 정작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보유출 문제, 월북여부 등이 더 많이 다루어졌고, 이 사건에 대한 지칭도 여야 간의 온도차가 있었다.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BTS 병역관련 화제가 집중되기도 하였으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남영신 총장이 '5·18 사과'를 하여 주목받기도 하였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 중 일정을 할애해 헬리콥터와 고속함정을 타고 최전방 현장점검을 하는 것은 여전하였다.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에 대한 표현》

(9.24. 국방위 전체회의 규탄결의안 제목)

성명	직책	최초언급시	언급시 사건 표현 등
서 욱	국방부장관	인사말	최근 발생한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
한연수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	서해상의 우리 국민 사망사건
이채익	위원(국민의힘)	의사진행발언	공무원 피살 사건
김병기	위원님	주질의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김병주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이번에 일어나서는 안 될 또 너무나 불행한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강대식	의원(국민의 힘)	주질의	피격된 A씨
김진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관련 질의 안함
신원식	위원(국민의 힘)	주질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
박성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윤주경	위원(국민의 힘)	주질의	이번에 해수부 공무원을 피격한 이것

성명	직책	최초언급시	언급시 사건 표현 등
설 훈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언급 없음
하태경	위원(국민의 힘)	주질의	신원식 위원 질의하신 거
홍영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이번에 어업지도원 실종 사건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사망 사건
황 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질의는 했지만 명시적으로 표현안함
김민기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서해 우리 국민 피격사건
홍준표	위원(무소속)	주질의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피격당하고 소각당하는 사태 (두번째는 피격 소각 사건)
한기호	위원(국민의 힘)	주질의	이번 만행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감사종료시 요약정리	공무원 피격사건

통계 자료 출처 : 2020. 10. 7. 수.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국회방송 생중계)

(3)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전선언’ 발언과 강경화 외무부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 입국 사실 공개 논란, 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사건시 외무부 장관 NSC회의 패싱사건 등이 집중 조명되었다.

1995년 재외 공관 국정감사 이후 첫 국내에서 외교공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를 전개하였다. 실시간으로 화상국감의 내용이 전해져 재외공관 국정감사의 내용이 업무보고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10월 14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재외공관이 라임 사기펀드 주요 피의자가 적색 수배자가 되어 있음에도 검거하지 못하고 방치하였다는 질타가 실시간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북한군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살인사건과 한미동맹, 대중·대일관계 등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대내외적 안보지형변화와 역학관계에 대한 논의가 점검되어 정책감사를 하였다. 여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야당은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문제제기와 대책을 주문하였다.

다만, 감사도중 현장 시찰을 하였고, 현장시찰도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여당은 당초계획이었던 DMZ 방문을 하였고, 야당의원들은 인천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피살공무원 수색 현장을 둘러보았다.

(4)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코로나19 추경의 실효성, 소득주도 성장, 정부의 재정준칙 발표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찬반입장이 쟁점이 었다. 10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기획재정부 2일차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주식보유액 3억원 이상을 대주주로 간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제히 비판하기도 했다. 5년간 160조원이 투자되는 뉴딜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법인세 논쟁, 세금 탈루, 짝퉁 유입문제, 통계문제 등 지난해 있었던 질의들은 반복되었다.

(5)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를 집중 추궁했고, 금융위는 이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점, 공매도 제도 방향,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공정거래위, 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30% 통행세 조치 주문, 뉴스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이 되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쇼핑·동영상 부문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꿨다가 적발된 네이버의 행위와 관련해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일정 중 36개 기관에 대해 조명하였으며, 여야간 합심하여 정책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 농림수산물해양수산물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그동안 여야간 정쟁이 많지 않았던 위원회였으나, 국감 첫날부터 文대통령 농지법위반과 관련하여 “투기 아닌데..야멸찬 국감”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의 증인채택, 해양경찰청장의 위증문제,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 등 관련 여야간 뜨거운 논란이 계속 되었다. 둘째날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에서 국감계획을 바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까지 동시에 하였으나, 해양경찰청장의 답변 회피로 인해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월북 여부가 나온 경위 등에 대한 진상과약을 하지 못하였다. 다른 상임위 국정 감사보다 일찍 마무리되었고, 다른 국감의 내용은 지난해와 비슷하였다.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소관 기관의 낙하산 인사, 특혜지원의혹, 모럴 해저드 등이 조명되었다.

(7)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교육의 좌편향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민주화운동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 첫날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고 물은 것이 사상검증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교육위는 15일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원격수업과 돌봄관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감사관 자녀 시민감사관 위촉 논란과 제주도연수원 건립 문제 등이 문제되었다. <<11년 연속 파행을 기록한 문제의 상임위였으나,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파행성 정회가 없었음>>

22일 서울대 등 국립대법인 국정감사에서는 학내 권력형 성범죄 근절, 연구윤리 강화 방안, 인사·재정 운영 개선,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마련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 정책 국정감사를 전개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이 직접 국정감사 시작 전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제3의 장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주지시켜서 감사장 질서를 바로 잡는 모습도 보여 주었다.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0월 14일 국감휴무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관련 네이버 항의방문을 하는 등 ‘네이버 이슈’가 불거져 나왔으며, 탈원전 대책, 미래 먹거리대책,

원자력 안전, 가짜뉴스 근절책, 연구기관의 모럴해저드 등이 조명되었다.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화상국감을 진행하였는데, 피감기관장이 움직이지 않아 화면정지 소동이 벌어지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위원장이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추진하였고, KBS 국정감사에선 KBS의 빗투성이 방만경영이 질타되었고, 화제의 나훈아 콘서트도 등장하였으며, KBS의 검언유착 오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0월 23일 자정이 가까워진 무렵 박성중 의원과 이원욱 위원장간 설전을 파행성 정회가 벌어진 것은 큰 오점이었다.

반면, 과방위에서는 경북대 사고 조명, 금융사기를 벌인 옵티머스 사태가 거론되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누적 1060억 원을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 한수원이 월성1호기 가동에 대한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도 드러났다.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전반전에 현장시찰 1회를 하였고, BTS 병역특례 등이 조명되었다. 다른 상임위보다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코로나19 문화체육계 피해(약 11조원 추정)대책, 고궁 문화재 보호, 문화체육정책, 코로나사태 속 관광위기 극복정책에 대해 조명하였다. 야당의원들은 위원장의 질의시간 배분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종합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화재청장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후조치 내역을 직접 구두로 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서 국정감사의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첫날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조치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차벽 설치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

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 고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조명하였고, 4·15총선거 관련 재검표문제 점검, 수사권 조정관련 경찰개혁, 선거제도관련 문제가 쟁점이었고, 고층 빌딩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문제가 점검되기도 하였다. 최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외부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대폭 수정하여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15 총선 선거관리 부실문제가 집중 제기되었고, 야당에서 선거부정 의혹까지 제기하며 빠른 재검표를 요구하자 선관위측에서도 ‘대법원의 재검표 결정이 빨리 돼, 의혹이 해소되길 학수고대 한다’ 고 밝히기도 하였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관련 서울시 대처 문제가 질의되었고,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방침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도 쟁점이 되었다. 지난해와 같이 여야간 막말소동 등의 파행은 없었다.

(11)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첫날부터 김현미 장관의 조문외교로 인하여 국정감사가 미뤄졌다.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부각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도 크게 조명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앞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해수부 공무원을 추모하는 추모곡을 틀어 화제가 되기도 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 책임인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인지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 요금소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10월 16일에도 나훈아의 ‘테스형’ 이 나왔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힘들다” 고 질타하는 과정에서 김현미 장관도 갑작스런 테스형 상영에 웃음을 터트리기도 하였다. 김현미 장관에게는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앙등에

대한 국민적 피해와 관련하여 흉남기 경제부총리 사례가 질의되기도 하였다.

(12)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이 K방역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정부가 유독 집회에만 방역을 위해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 코로나19 관련 백신개발, 독감백신 유통과정 문제, 국민연금 개혁, 문-케어 등의 정책국감을 5일 동안 실시하였다. 서울대병원장 등 대학병원장들이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관련 사과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었다.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상온노출' 사태에 이어 '백색 입자' 사태까지 더해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품질 관리를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임상시험 등을 심사해 인허가 서류를 검토하는 공모직 직원들이 정보 유출 및 금융 투자 조사 등이익충돌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3)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미세 플라스틱 공포가 만연되어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손선서만 화제가 되어 아쉬웠다. 고용노동부 국감은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사태 책임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요원들의 잘못된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국공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기상 예측이 실패한 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기상청 체육대회 날에 비가 온다는 농담 섞인 발언부터 기상청장은

거취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서 홍수피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순배출 제로를 위한 방안, 연초박으로 인한 집단 발병에 대한 법적 책임, 담배필터의 미세플라스틱 문제, 불법폐기물 적치 대책 및 매립량 감축방안 등과 고용분야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확대 방안, 산업재해 반복발생 문제와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와 관련된 지침 준수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대한 시찰도 병행하였다.

(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에서는 160조원이 투입된 ‘한국판 뉴딜’ 과 함께 태양광·원자력발전(탈원전)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이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 살리기 정책에 대해 조명을 하였고, 여당의 고민정 의원이 야당의 한무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빨간색 안경론’ 을 제기해 파행성 정회를 하기도 하였다.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의혹, 브랜드K 론칭 행사 수익계약 의혹,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벤트 행사와 TV광고 문제, 배달의민족(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앱 서비스 ‘배달통’ 의 시장 점유율 조작의혹, 중형슈퍼마켓인 ‘식자재마트’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코로나 시대 온라인 환경 맞춤형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의 마련, 원전과 산업단지의 안전 관리 강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산업통상자원 관련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예산 증가에 부응하는 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 제고 필요성, 온누리상품권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도 제시되어

심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다만, 10월 22일 20일에 발표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여야간의 입장차로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이 빚어지기도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15)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에서는 10월 29일 국정감사가 청와대 증인들의 대거 불출석으로 11월 4일로 연기되었는데, 11월 4일 노영민 비서실장의 ‘살인자’ 발언으로 국정감사의 대미를 마지막까지 ‘정쟁 국감’이란 흑평을 면치 못하게 했다.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공천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8·15 광복절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 발언 등을 두고 충돌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강기정 비서실장의 발언 때문에 파행성 정회를 하였는데, 정회를 하지 않고 진행이 이루어졌다.

(16)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에서는 10월 27일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고보조금 횡령·사기의혹 관련한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증인·참고인을 채택을 두고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으나, 단 1명도 채택하지 못한 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심화 대책,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아동돌봄 서비스 자기 부담액 축소 및 장애아동 등 맞춤형 아이돌봄을 위한 지원대책, 청소년쉼터 확대 등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고, 2일차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찰하였다.

4.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여전

조선이 151명이나 되는 제21대 국회는 무려 705개(지난해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전문성 있는 질의보다는 나열식 질의가 대중을 이루었다. 상대방 의원에 대한 질의도중 끼어들기 등의 구태가 답습되기도 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끼어들기를 하여 결국 여 야당 고성으로 위원장이 ‘장마당이 아니지 않으나’ 며 정회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다만 지난해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간의 막말로 인해 윤리위 제소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지난해 10월 8일 민주당 의원 20명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위 제출)

조선의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피감기관의 ‘이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의 뻔뻔스런 답변에도 의원들이 재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이에 모니터위원들은 ‘국회가 농락당하고 있는 듯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1년에 한 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질타’, ‘호통’을 듣고, 예산 낭비 및 부실한 정책집행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여 안이하게 답변하였고, 국회의원들도 질의만 하고 후속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반복질의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 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으며, 상임위에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보고가 무책임하게 다음 해에 다시 질의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남용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정조치 내지 예산낭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555.8조원(2020년 본예산 대비 8.5%증가, +43.5조원)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만 풍성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10월 6일 첫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어 여야간 의사진행만 계속 이어지다가 겨우 진정한 후에 본 질의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자괴감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첫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첫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첫날 증인채택 회의 관계로 국정감사가 조금 지연된 후 시작되기도 하였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원욱)에서도 네이버 관련 증인채택이 논란이 되었다.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에서도 국고보조금 관련 증인채택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어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 증인 채택 불발 사례

- 국방위 :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아들 관련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채택에 실패하였다.
- 법사위 : 추미에 장관 아들 등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다.
- 외교통일위원회 :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국감 증인을 자청했으나, 민주당은 이씨가 국방위나 농해수위에서 증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거부되었다.

○ 과방위 :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불발되었다.

▣ **증인과 참고인 인사들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사례**

○ 보건복지위 :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

○ 과기정통위 : 구글코리아의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 펑수 측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관의 일관성과 신비감이 지켜져야 한다'며 불출석통보

○ 환경노동위 : 증인으로 채택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 정무위 :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은 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불출석 통보

6. **국회사무처의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은 옳은가**

국회사무처에서 이번 국정감사 관련 방역 지침으로 50·50·50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내려 보냈다.

10월 7일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위원장은 국회사무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국정감사의 기관증인들을 다른 장소에 분리 대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0월 8일 첫 국정감사를 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진선미 위원장은 “국감장 내에는 기관장 4명과 증인 이외 출입을 금한다”며 “또한 10명 내외의 의원들만 순서대로 질의에 참석하고, 그 외 인원은 국감장 근처 행정실로 이석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감기관은 책임자가 답변을 하면 되지만, 감사위원들이 감사장을 이탈하여 자리를 뜨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시·도와 경찰청 국정감사를 지역 현지가 아닌 국회에서 한꺼번에 하기로 해 국감의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국감장 마련과 의전, 방역 등 국감 준비 시름을 크게 덜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라는 인터넷 기사가 뜨기도 하였다.

국정감사에 임박해 코로나 방역지침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방역지침으로 코로나 19가 예방될 수 있는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위기나 재난시 국정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거기에는 합리적으로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아 지금처럼 잡화점식 감사보다는 선택과 집종의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7.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돼야

(1)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않게 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질의한 의원이 그 내용이 시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하고, 복합적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시정조치팀’ 가동, 국회내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정조치 사항 이행을 ‘실효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구성’ 등 국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국감지적사항을 목살해온 국정감사의 적폐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위원이나 감사반장(위원장)이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감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번 2020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원이 요구한 내용과 시정을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두로 보고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도종환 위원장 : 오늘은 먼저 그동안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 또는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화재청장의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이명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매년 국정감사가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다면서 동료 의원인 박재호 의원이 발간한 ‘국정감사 사후 조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피감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이명수 위원은 저도 몇 차례 국정감사를 해 봅니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국정감사가 혹여 연례적인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국회로서 또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기능이고 또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무 전반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끝나고 마무리되면 모두 함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사후조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런 보고서까지 냈습니다만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는 정말 이런 때 고칠 것 고치도록 보완할 것 보완하자 이런 계기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요구처리 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중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에 대해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고, 상임위에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보고가 무책임하게 다음해에 다시 질의 되는 현상이 없어지질 않고 있어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남용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2)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못 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라고 하고 있는바, ‘정기 집회일 이전에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번도 지키지 않고,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칙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부터 원칙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지키

지 못할 조항이면 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코로나19 국정감사로 화상 국정감사로 진행되었는데, 아주 효율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잘 보장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에도 이렇게 해외현지 국정감사가 아닌 화상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껏 문제가 되고 있는 비용 낭비, 국감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4)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10월 16일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이종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부에 국감 자료를 요청하면 자기들에게 좀 불리한 자료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려고 버티기를 하고 마지막까지 수차례 요구를 하고 별 수단을 다 강구할 때 마지못해서 제출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다.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는데 조속히 요구하는 자료들은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 며, “다른 의원실에서도 그런 불평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 강조하고, “국감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행사” 인데 “이런 국감을 무력화시키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또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 10월 7일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지금 국감을 준비하면서 장관님, 환경부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국정감사도 보면 환경부하고 별도로 소속기관들 국정감사를 따로 치르는데요, 소속기관에 기본 자료를 요청하면 대부분 ‘환경부에서 일괄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뭐 하러 국정감사를 별도로 치르겠습니까? 심지어 한 산하기관에서는 ‘왜 자료 제출이 이렇게 부실하느냐’ 라고 여쭙보니까 저희 방 비서관에게 ‘환경부에 말 좀 잘 해 달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역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부탁할 정도입니다.

○ 10월 7일 교육부의 교육부 국정감사

곽상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길어서 안 된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교육부더러 내라고 하든지 경희대 쪽에서 내라고 하든지 자료” 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월 7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은 “뉴딜 관련해서 160조 투입해서 190만 개 일자리 그 산출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전 중에 달라 했는데 전혀 오지를 않는다” 면서 계속 자료 주문을 하였으나, 종합국정감사때까지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

조명희 의원은 “해마다 6700억 원 수신료를 국민에게 거둬들이고 759억이라는 적자를 낸 KBS가 매년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민 돈 빼내서 북한 호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영업상 비밀이라고 제출을 못 한다고 합니다.” 며 조치를 요구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

황보승희 의원은 “10월 9일 KBS가 방심위에 제출한 검언유착 오보 관련 의견 진술서를 요청했는데 ‘KBS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였다” 며 조치를 요구했다.

(5)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 핥기’ 식 국감 종식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705개(지난해 역대 최다인 788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지만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정감사의 위세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과도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 겉 핥기식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서는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

망식 피감기관 선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020년도 국정감사위원 활동평가

1.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

(1) 선정근거와 연혁

지난 제15대 국회 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병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 재정통제기능 등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대부분 불참(不參)하거나 매우 소홀하였으나,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구체적인 의정감시와 강직·엄정한 의정평가의 신인도가 높아져 영향력(총선 후보의 공천기준 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행이 점차 감소하였다. 제17대 국회의 후보는 국감을 등한시하는 관행이 불식되도록, 매년 국회직, 주요당직, 다선의원 등을 대상으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하고, 매년 선정·시상한 바, 교섭단체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었다.

제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당직자, 다선의원들의 국감참여도가 여타 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서, 특히 국감 NGO모니터단에서는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국감우수의원과 다름없는 예우로써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다만, 2016년 제20대 국회 1차년도에는 국감 보이콧 등 F학점 국정감사로 선정을 하지 않았으나 2, 3, 4차년도에는 선정하였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국회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실한 정책국감을 전개한 **김상희** 국회부의장(과방위).

친족상 중에도 성실하게 민생을 위한 정책질의를 한 기재위의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5선 중진이면서도 초선과 같은 열정으로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된 **정진석**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을 선정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의 표본으로 삼고자 하였다.

(2) 선정결과와 선정사유를 요약함 (국회직, 다선, 가나다 순)

(가)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김상희(金相姬) 의원(경기 부천시병, 4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은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부의장으로서 막중한 집권여당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결석함이 없이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초선보다 더한 열정과 준비로 과학기술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방송통신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정책국감을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다.

10월 7일 과학기술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과학의 인적자원 개발 문제와 여성과학인력 지원문제를 심도 있게 질의하였으며, 국가 R&D 사업의 난맥상을 세밀히 점검하였으며,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부족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 핵심기술 유출 사건 등 기술의 해외유출 문제를 점검했다.

10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개선대책과 신고포상제도(폰파라치 문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청소년유해매체 문제와 관련 규정의 미비,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집중점검했다.

10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원안위의 전문성 문제와 위상의 문제 그리고 위원회로서의 기능 재정비 문제를 점검하고, 국내 가동 원전 24기 격납건물의 공극문제 등 안전문제를 집중 조명하였다. 국민이 직접 원자력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국민참여단에 대해 점검하였다.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 방사선 관련 정보의 제공이나 기술지원 등 분

야에서 원안위의 역할을 주문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문제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고, 합리적 토론과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 그리고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 부과에 대한 입법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와이파이 관련해 국민 10명 중에서 3명이 원활한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 비싼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며, 지하철에 정부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했다.

10월 15일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KBS비즈니스 청소 노동자들의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안정적 노동권 보장을 주문했다. KBS 아침마당에서의 특정 의료 기술 홍보에 대해서 질타하였다. EBS에 대해서는 장년 및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이용자 전 국민의 93% 이상의 상황에서 지금 EBS 2TV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10월 19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MBC의 공익광고 편성과 시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MBC의 공영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문진의 노력을 주문했다.

KOBACO의 공익광고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직구성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여성, 연령대 등의 확대를 주문했다.

10월 20일 한국연구재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 차관 등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지적하고, R&D예산의 증가와 관련해 의사결정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산하 연구소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연구원으로 하면서 호칭을 구별하여 차별 낙인을 찍고 있는 실태와 개선책을 점검했다.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과 과학기술인재 육성문제를 집중 조명하였고, 이번 국정감사의 이슈였던 구글 등의 독점구조와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통해 점검했다.

10월 23일 방송통신위와 원안위 종합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횡포와 갑질, 무책임에 대해 점검하면서, 국내대리인 제도의 난맥상을 점검했다.

증인신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정책점검을 하였고, 원안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

정성호(鄭成湖)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4선 중진의원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19시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세계의 상황에 대응하는 기재부의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면서, 중립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썩어빠진 판자’ 등 정책 제시 및 문제점 지적에 탁월했다는 평가이며, 친족상 중에도 성실한 국정감사가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10월 7일 기획재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점검하면서 영혼과 철학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가지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조직, 책임과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의 종합청렴도가 3년간 4등급으로 약간 미흡한 편이라며, 인사의 공정성과 내부 사기 문제를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의 필요하다며, 기재부의 법정위원회가 한 25개인데, 10개 정도가 형식상의 존재에 불과하고, 지난해만 봐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가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운용함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건전성이 잘 유지되면 좋겠지만, 위기 극복 역시 중요한 과제라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정부 발표의 재정준칙의 필요성 유무를 점검했다.

아울러 4차 산업 전환과정에서의 노동 3법 등의 개정 문제를 조명했고, 지난 5년간 미수납·불납결손액이 367조원이라며, 국세청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핵심사업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10월 8일 기획재정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는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과세 기반 확충, 주식거래의 세율세분화 등에 대해 종합점검을 하였다.

중소기업의 간주배당 관련해서는 정책질의를 하였다. 아울러 납부지연가산세 관련해서 9.125%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페널티가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일종의 지연이자 같은 성격으로 현재 9%가 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했다.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요건들을 많이 완화했는데 더 완화해야 할 사안은 없는지 점검했고, 현재와 같은 가업상속 세제로는 이용자도 많지 않고 혜택도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서 세금 납부를 좀 유예해 주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는지 주문했다.

10월 12일 국세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후 검증문제와 질의회신제도의 난맥상을 점검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미납 가산세 폭탄 사례를 적시하면서, 신속한 사후 검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검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납세자의 개별 상황에 따른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점들을 과세 당국에서

해석해서 알려 주는 질의회신제도와 관련해서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질의 건수가 늘고 있지만, 질의 회신이 반년을 넘긴 건수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1년을 넘기는 경우도 20%나 된다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질의 회신 기다리다가 자칫하게 되면 결국 가산세 더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질의회신이 결국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며, 회신 중에는 가장 최신의 유효한 회신을 해서 납세자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법령 조항별로 관련된 질의회신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산세 관련해서도 고의적인 태만이 없으면 가산세 감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 납세자중심의 세정을 권고했다.

조세소송 또는 국세심판 관련해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으며, 조직 인적구성과 인센티브 등의 제도개선을 해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지방청의 BSC, 균형성과표와 관련해서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의 중요도를 낮게 보고 있다면서 일선 세무서, 개인별 평가에서도 역시 납세자 보호 항목의 배점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4일 조달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나라장터 쇼핑몰 물품과 관련해서 가격문제, 민수와 관수 모델의 불일치 문제, 이중시장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나라장터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에서 경쟁 체제 강화를 해 가지고 입점업체를 대폭 확대하고 상품별 경쟁도 강화하고 또 민간 쇼핑몰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조달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 등도 고민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나 안전 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고 관세당국이 인증하는 AEO인증제도와 관련해서 AEO인증기업이 비인증기업보다도 검사율이 1/5 수준이고 통관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혜택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EO제도 활성화가 중소기업에

더 필요하다면서, 이 지원 제도의 강화를 주문했다.

AEO인증을 받은 다음에 법규 위반한 업체가 지금 지난 4년간 87건이나 되고 위반 금액이 4조가 넘는다면, 국가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AEO 제도의 공적인 신용도를 추락을 가져오므로 엄중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관세소송 패소로 반환한 금액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소송 패소율이 2017년도에 7%에서 2019년에 41%로 급증했다면서 관세소송에 대한 소송 대응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조달청과 관련해서는 수요기관의 원산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요기관의 원산지 입력을 독려하고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22일 종합감사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국세청과 민원 관련된 사항의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특히 2019년 국세청에서 연간 납세 고지 및 안내 등으로 우편 발송한 건수가 6,000만 건이 넘는데, 해당 비용이 500억 이상 들고 있다며, 그중에서 16% 정도가 반송되어 많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고지제도가 있지만 전체 고지의 6% 수준밖에 신청을 안 하고 있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약간의 세액 공제를 할 수 있게 했고, 이게 세제실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금제도와 관련해 적극적인 운영을 주문하고, 역외탈세, 재산 은닉 또는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한 제보 포상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 조세 감면과 관련해 조특법상의 조세 감면은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개별세법상의 조세 감면이 통계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전체 조세 감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국가 세입·세출 확정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제도와 관련해서 벤처기업이나 4차 산업 관련은 저조하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면제해 주는 것보다는 컨설팅해주는 게 좋다면서 이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다) 정진석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5선)은 원내대표, 대표권한대행 등 정당요직을 두루 거친 다선 중진이면서도 열성적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정책질의를 하였고,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 사살 사건에 대한 증인채택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중량감 있게 외교부와 통일부 내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정책 국감을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10월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우리 국민, 공무원의 유가족이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 스스로 출석해서 진술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는 슬픔과 고통에 젖어 있는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된다고 하면서 증인채택이 되지 않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질의 시간에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정착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조성길 대사대리의 국내 송환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점검하고, 입국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경위를 날카롭게 추궁하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 외교부 장관 패싱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외교부의 존재 의미 및 위상에 대해 점검했다.

강경화 장관 남편의 미국행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무기력증, 존재감이 미흡한 이런 것들이 노정되는 문제가 자주 지적돼 왔던 것을 지적하면서 책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총리께 사의표명을 한 적이 있는지 점검했다.

외무부차관 기용과 관련해 비외교관 출신으로 역대 최연소 1차관에 대하여 실무외교 경험의 일천함을 문제삼았고, 외교부 SNS 해명문제를 지적했다.

10월 8일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또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면서, 중소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 점퍼를 들고 나와서 국내 유통과 정부지원금 지원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플러스 속에서 남북 간 물품 등을 반입하거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의 거리두기는 2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정부의 북한인권 거리두기는 이미 3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사기로 해외 도피 중인 이혁진 씨의 아내가 샌프란시스코 19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된 경위와 해촉 의사에 대해 추궁하였다.

조성길 대사대리 망명 및 송환 관련 정보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과 관련 보안 사고관련해서 조사를 지시해서 빨리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월 19일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1990년대 초부터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총무, 홍보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면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때 정대협 활동을 위해 생존자 복지비를 개인명의 계좌로 모집을 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써 달라는

국민 기부금과 공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한 의견을 따끔하게 물었다.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 정책점검을 하였고, 가수 스티브 유 입국과 관련해 질의하였고 재외동포 청년들에게도 병역의무의 중요성 강조를 주문했다.

코이카의 코디네이터 채용과 관련해서 블라인드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외사무소 추천서 제도의 폐지를 제안해 폐지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10월 23일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예측과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에 우리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라인은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에 대해 점검을 하였다.

종전선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6·25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 논의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선불리 논의할 주제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입장이나 유럽의 입장이나 국제사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데 우리 정부의 고집스러운 종전선언 주장이 전혀 먹히지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김정은을 지칭해서 써그(thug), 김정은은 폭력배, 깡패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소개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소가 폭파당했는데 재발 방지나 피해 보상 요구는, 이것을 해도 모자랄 판에 침묵하면서 갑자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한미간의 끈끈한 혈맹 관계에 대비해서 우리도 스테이투스 쿠오(status quo)를 유지해야 된다면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는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10월 26일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서는 남관표 주일대사의 이른바 3불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가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약속한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다는 게 진실이면 이 중국 정부 대변인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그리고 시진핑의 항미원조 6·25 기념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반박

을 하지 않고 해명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면서 외교부의 두 가지 침묵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한미 간의 정책 공조 네트워크를 충실하게 구축해 나가야 된다면 중국발 한미동맹 위기를 예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4월 1일 날 청와대발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 잠정 타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외교의 A, B, C도 모르는 마이너스 외교를 한 것이라며, 1차관이 당시 안보실 비서관이었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5월에 주미대사관 외교관이 당시 강효상 국회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알려줘서 그 외교관 형사고발되고 파면됐다면서, 굉장한 외교적 에러에 대해 자체조사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날카롭게 질타했다.

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1) 평가기준 및 방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1)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① 우리 모니터단이 지난 22년 동안 사용해 온 국민의 의혹사항에 대하여 규명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사례가 잘 지적되었는지 여부, ④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 조치요구가 많았는지 여부, ⑤ 잘못된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 ⑥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 ⑦ 국정을 감사함에 있어서 국가적·사회적 이슈를 탁월하게 발굴·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 절차적 측면으로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 ② 전략적 투쟁의 장

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파행을 예방·조기 수습한 점) ③ 의원 전원이 출석하였는지 여부(국무위원 등 제외), ④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⑤ 무리 없이 국정감사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⑥ 불필요한 정회 등이 많았는지 여부(감점) ⑦ 국정감사 일수가 적정했는지와 시찰 등이 적었는지 여부와,

3)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리더십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2020년도 국정감사 상임위 평가 우선기준 ▣

○ 여야간 협의하여 일부라도 증인채택이 이루어지고, 파행성 정회 등이 없었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함.

(2) 선정결과 및 사유(抄)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가)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3선)

윤관석(尹官石)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구을)은 3선의 집권 여당 중진 위원장으로서 강한 리더십으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정책감사가 되도록 이끌었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관련 증인채택 문제 등 여야 간의 날카로운 대립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진행으로 감사다운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정무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총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의 허실(虛實)을 점검하고, 금융 및 공정거래 등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 제도개선에 노력하였다.

정무위원회는 의원들이 100% 출석하여 감사를 진행했으며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 차이로 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이 순탄하게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좋게 평가되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감사에

서는 국회에서 진행하면서 피감기관 증인을 세종시 영상회의실에 모여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등 배려도 아까지 않아 호평을 받았다.

10월 7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 위원회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성과 있는 활동을 주문했고, 세월호 관련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10월 8일 공정거래위 등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옥죄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계의 의견도 상당 부분 법안 성안 과정에서 수렴을 했는지 질의했으며, 법안의 취지가 그렇다는데 아직도 일부의 기업이나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한 정책 홍보나 설명을 재점검하였다.

10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뉴딜펀드와 관련하여 시장에서는 관치, 관제,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 말 바꾸기 의혹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점검을 하면서 투자 사업 설명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고, 내년 예산편성에도 10대 시그니처 사업에 들어가 있다며,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10월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위원장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피해자 구제 대책과 아울러서 국민들의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총체적인 점검을 주문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금융 지원 대책과 포용금융 등의 집행정도 등을 점검했다.

10월 22일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과 관련하여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 행위 중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76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면서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개선 대책을 주문하였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에 대한 정책점검을 하였다.

(나)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유기홍(柳基洪)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은 국회 입성 후 교육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에서 활동한 교육분야 전문가답게 리더십으로 국정감사활동을 주도하면서 국정감사 일정동안 파행 없이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 방안’ 등 무려 7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정책 국정감사를 선도하였다.

유기홍 위원장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꼼꼼하게 국정감사 전 과정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사실을 수시로 고지하여 품격있는 교육위의 국정감사 주문과 수감질서를 바로 잡고, 영상회의록, 속기록 등의 신속한 공개와 당일 국정감사에 대한 정밀한 요약 정리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박찬대 간사와 곽상도 간사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으며, 소속 위원들이 다양한 교육문제와 정책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성과 있는 국정감사를 했다는 평가이다.

2020년도 교육위원회는 10월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성비위 교직원의 엄중한 심사와 학제 개편 방안의 중장기적인 검토, 대학 비리 의혹에 교육부의 감사 필요성, 중국의 역사 왜곡에 정부 차원의 대응 등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적을 하였다.

10월 13일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대학의 자율감사 기능 제도화, 한국 역사·문화의 새로운 홍보 방안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성, 공공기관 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차별 해소 그리고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방안, 교육재정의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과 정책대안이 제시되었고, 위원장은 대학 사회의 신뢰회복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감사 기능의 개혁을 주문했다.

10월 15일 서울시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 성비

위 교사 문제, 사학 운영의 투명성 문제, 기초학력 강화 방안, 긴급돌봄 운영 내실화,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두 개 반으로 나뉘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여 현장감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는데, 10월 19일 충남대 등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상생 대학모델 정립,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문제 또 투명한 인사 운영 필요,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또 고등교육재정 건전화 방안 등 정책점검이 이루어졌고, 대전시 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긴급돌봄 강화,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 교권 침해 문제의 적극 대응과 성비위 교사에 대한 엄중 대처 촉구 그리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10월 20일 전남대 등 국정감사에서는 대학내 성폭력,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방안 마련과 대학병원 전공의 부족 문제, 국립대 네트워크의 필요성가 대학 조교 등 약자들이 차별받고 불이익을 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었고, 광주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재정 문제와 교사 수급 문제가 심도 있게 조명되었으며, 사학운영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청소년들의 도박행위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학생선수 인권침해 재발 방지와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10월 22일 서울대 등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는 학내 권력형 성범죄 근절 노력, 연구윤리 강화 방안, 인사·재정 운영 개선,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마련 또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에 대한 정책점검이 있었다.

10월 23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사립학교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도서·소외 지역 교육의 개선방안, 성비위 교사 엄중 대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또 차질 없는 대입수능 방역대책 마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아이돌봄시스템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안되고 촉구되었다.

(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 민주당, 3선)

서영교(徐瑛敎)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3선의 의정경험과 민주적 리더십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이끌면서 소위 재인산성 등 여야간의 정쟁적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진행으로 모범이 되었으며, 국정감사 중 현안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과행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평가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 동안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총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였고,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활한 감사가 되어 코로나 19로 인해 제한상황에서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의 법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동안 전원이 100% 출석하여 국정감사 기간 중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의 난맥상, 부정선거 의혹 등 선거관리 부실 문제, 재인산성으로 칭해지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집회 제한 문제, 검·경개혁 문제, 화재 등 재난대책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태 점검과 정책대안 제시 국감을 전개했다.

10월 7일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는 행안부나 행안부 소속에 약 15개 기관에 대해서 이런 해킹으로부터 사이버보안관제센터가 있는데 방어체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약 2000만 건의 사이버 공격건수가 있다면서 웹 취약 서비스 거부, 정보 수집 악성코드, 해킹 메일, 유해 소프트웨어 사용 그리고 기타 등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고, 특히 보완취약시간인 22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무방비 상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선순환대책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10월 8일 경찰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경찰개혁, 정보경찰 개혁법안과 관련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제대로 된 경찰개혁, 제대로 된 경찰 조직

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순경부터 시작해 치안감까지 오르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조두순 출감 후의 문제도 점검했다.

10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전투표 개선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성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또한, 해외 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편의 제공 및 선거관련 고소 고발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유권해석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10월 12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관 강한얼씨 유족연금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문을 하면서 공무원 연금법, 재해보상법 등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10월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층건물 화재와 관련해서 고사다리차량 구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촉구했다.

10월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방역 의료서비스 인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코로나19 로봇 예산 등에 대한 정책 점검을 하였다. 서울시경에서는 주취자 등에 의한 공권력 피습에 대한 보호대책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10월 26일 종합감사에서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성인인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하였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 음란물 대책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1365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서 조주빈의 공범이었던 강훈이 여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했다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명단 별첨함)

(1) 개요와 평가의 기본원칙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에 반영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본원칙은 1) 국정감사 기간 및 그 직전직후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2) 국정감사기간 중 2일 이상 결석한 의원과 형식상 출석했으나, 사실상의 질의가 없었던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인해 화상모니터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정량 정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였다.**

<앞의 2020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II. 2020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2020년도 중간평가 내용을 보완하였음)

1. 코로나 19 국정감사로 감사 현장 출입 제한

이번 국정감사 위원장 발언의 특징으로 처음 국정감사를 안내할 때, “코로나 관련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장 내 참석 인원은 50인 이내로 유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관증인의 경우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행정실에 말씀 주시면 질의 순서에 맞춰서 기관증인을 입장시켰다가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현지에서 한 국방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장 외부에 별도의 화상 대기실을 만들어서 피감기관 기관증인들이 모니터로 보면

서 답변대기를 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에서는 이러한 화상 대기를 해제하려다가 한 의원의 반대로 없던 것으로 하기도 하였다.

2.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국회에서 대부분 진행

분반 감사를 포함한 전 상임위의 131개 국정감사 일정(정보위와 현장시찰 제외) 중에서 107개 감사일정(정보위 포함하면 109개)이 국회에서 실시되었다.

매번 현지 국정감사를 주로 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감사 일정을 국회에서 실시하였다. 해외 국정감사를 하던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국회에서 하였다.

이외에도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찰을 제외한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전체 일정을 국회에서 진행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처음에는 지방 국정감사를 계획하였으나, 변경하여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방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였다.

3. 질의 시간 길어져 소리 없는 국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위원장은 어김없이 질의시간 전에 질의시간을 정하고 질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고 고지하였고, 화상 화면에서는 의원의 질의 중에 “발언시간이 종료되어 위원석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정무위원회의 첫날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23명 의원 중에서 20명의 의원이 주질의시간을 안 지켜 마이크 중단 후에도 질의를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주질의를 5분으로 해서 오전 중에 질의를 마치려고 한 윤관석 정무위원장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오후에 이어서 주질의를 하였다.

10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위원장을 제외한 23명의 의원이 주질의(5분)를 하였는데, 이 중 7명의 의원만 발언시간을 지켰다.

기획재정위원회의 10월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주질의 시간(7분)을 살펴 보면, 위원장을 제외한 25명의 감사위원중 21명이 질의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마이크가 중단된 상태에서 질의를 계속하였으며, 질의시간을 초과하였지만 마이크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중앙부처 등 주요 피감기관 국감 중 의원질의시간 초과 마이크 중단현황>

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일	감사 시간	출석 위원 수	마이크 미작동 횟수	의원당 질의시간 미준수 평균횟수
법제사법	대법원(법원행정처)	10. 7.(수)	12:04:00	18	23	1.4
정무	국무조정실	10. 7.(수)	12:18:00	24	57	2.5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10. 7.(수)	12:45:00	26	52	2.1
교육	교육부	10. 7.(수)	11:21:00	16	35	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7.(수)	12:39:00	20	37	1.9
외교통일	외교부	10. 7.(수)	13:21:00	21	58	2.9
국방	국방부	10. 7.(수)	11:14:00	17	36	2.3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10. 7.(수)	11:43:00	22	32	1.5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10. 7.(수)	9:41:00	15	32	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10. 7.(수)	12:09:00	19	14	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10. 7.(수)	13:46:00	29	45	1.6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10. 7.(수)	11:47:00	24	37	1.6
환경노동	환경부	10. 7.(수)	11:52:00	15	39	2.8
법제사법	헌법재판소(사무처)	10.8.(목)	9:22:00	18	4	0.2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10.8.(목)	10:33:00	24	50	2.2
기획재정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0.8.(목)	13:05:00	26	55	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10.8.(목)	12:13:00	20	49	2.6
외교통일	통일부	10.8.(목)	8:47:00	21	52	2.6
국방	합동참모본부	10.8.(목)	9:47:00	17	18	1.1

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일	감사 시간	출석 위원 수	마이크 미작동 횟수	의원당 질의시간 미준수 평균횟수
행정안전	경찰청	10.8.(목)	9:12:00	22	27	1.3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10.8.(목)	10:52:00	19	14	0.8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10.8.(목)	13:36:00	29	43	1.5
보건복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0.8.(목)	9:06:00	24	14	0.6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10.8.(목)	11:52:00	15	37	2.6
국토교통	한국토지주택공사	10.8.(목)	12:08:00	30	41	1.4
법제사법	법무부	10.12.(월)	12:00:00	18	21	1.2
정무	금융위원회	10.12.(월)	12:04:00	24	52	2.3
기획재정	국세청	10.12.(월)	9:35:00	26	40	1.6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	10.12.(월)	12:13:00	20	53	2.8
문화체육관광	문화재청	10.12.(월)	9:08:00	15	43	3.1
환경노동	기상청	10.12.(월)	7:16:00	15	16	1.1
정무	금융감독원	10.13.(화)	12:34:00	24	54	2.3
교육	평생교육진흥원	10.13.(화)	8:05:00	16	29	1.9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10.13.(화)	11:33:00	24	23	1.0
법제사법	감사원	10.15.(목)	11:28:00	18	15	0.9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0.15.(목)	10:57:00	16	45	3.0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10.16.(금)	11:59:00	30	30	1.0
법제사법	서울고검	10.19.(월)	11:41:00	18	34	2.0
법제사법	대검찰청	10.22.(목)	15:00:00	18	48	2.8
정무	<종합감사>국무조정 실회	10.22.(목)	10:05:00	24	49	2.1
기획재정	<종합감사>기획재정 부	10.22.(목)	12:28:00	26	59	2.4
교육	서울대학교	10.22.(목)	9:32:00	16	48	3.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종합감사>과기정통 부	10.22.(목)	13:20:00	20	37	1.9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종합감사>산자부	10.22.(목)	14:32:00	29	50	1.8
보건복지	<종합감사>보건복지 부	10.22.(목)	8:57:00	24	33	1.4
기획재정	<종합감사>기획재정 부	10.23.(금)	10:19:00	26	45	1.8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종합감사>원안위/방 통	10.23.(금)	13:43:00	20	44	2.3
외교통일	<종합감사>통일부	10.23.(금)	9:11:00	20	52	2.7

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일	감사 시간	출석 위원 수	마이크 미작동 횟수	의원당 질의시간 미준수 평균횟수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종합감사>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축산식품	10.23.(금)	12:52:00	19	20	1.1
환경노동	<종합감사>환경부/기 상청	10.23.(금)	11:05:00	15	27	1.9
국토교통	<종합감사>국토교통 부	10.23.(금)	12:28:00	30	38	1.3
법제사법	<종합감사>법무부	10.26(월)	12:37:00	18	38	2.2
교육	<종합감사>교육부	10.26(월)	9:56:00	16	47	3.1
외교통일	<종합감사>외교부	10.26(월)	9:12:00	20	28	1.5
국방	<종합감사>국방부	10.26(월)	10:00:00	17	25	1.6
행정안전	<종합감사>행정안전 부	10.26(월)	8:33:00	22	23	1.1
문화체육관광	<종합감사>문화체육 관광	10.26(월)	9:50:00	15	34	2.4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종합감사>해양수산 부	10.26(월)	9:38:00	19	16	0.9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종합감사>중소벤처 기업	10.26(월)	10:32:00	29	48	1.7
환경노동	<종합감사>고용노동 부	10.26(월)	11:44:00	15	40	2.9
여성가족	여성가족부	10.27.(화)	8:44:00	17	36	2.3
국회운영	국회사무처	10.30.(금)	8:06:00	28	13	0.5
국회운영	대통령비서실	11.4.(목)	11:43:00	27	18	0.7
비고	의원당 질의시간미준수 평균횟수 = 마이크 미작동 횟수/(출석의원수- 위 원장)					

4. 2020년 국정감사의 행태적 특징

(1)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 부실국감

2020년도 감사에서는 위원회별 하루에 감사하는 피감기관수가 평균 5.5개였다.

하루 평균 피감기관 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하루 평균 9.1개였으며, 지난해 가장 많았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하루 평균 8개 기관을 감사하였다. 다음으로 **국방위원회**는 7.9개 기관, 국회로 장소를 옮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보다 많은 6.9개(2019년도 6.2개) 기관이었다.

하루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감사가 이루어진 일수는 무려 21회(2019년

도 30회)나 되어, ‘흠어져야 산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무색케 하였다.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감사 일수를 살펴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국방위원회**가 3일 순이었다.

10월 13일 교육위원회의 평생교육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5시간 56분 동안 진행되어 기관당 평균 30분정도 밖에 감사를 할 수 없었다. 10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 국감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는데, 감사시간은 2시간 57분으로 기관당 평균 23분 정도 감사한 꼴이었다.

《2020년도 피감기관수 현황과 10개 이상 동시 수감한 피감기관 현황》

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일수	시찰제외	1일평균 감사대상수	10개이상대상 기관감사일수
윤영	9	2	2	4.5	0
법제사법	76	11	11	6.9	4
정무	46	10	10	4.6	1
기획재정	29	9	9	3.2	0
교육	64	7	7	9.1	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82	9	9	9.1	2
외교통일	30	9	8	3.8	0
국방	63	10	8	7.9	3
행정안전	35	10	10	3.5	0
문화체육관광	56	8	7	8.0	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37	10	10	3.7	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44	8	8	5.5	2
보건복지	22	8	8	2.8	0
환경노동	70	10	9	7.8	5
국토교통	31	10	9	3.4	0
정보	5	4	3	1.7	0
여성가족	6	2	1	6.0	0
계	705	137	129	5.5	21

〈참고 : 2019년도 10개 이상 동시 수감한 피감기관 현황〉

위원회	전체 감사일수 (시찰포함)	시찰제외수 (시찰일동시 국감일수는 포함)	전체 감사대상기관	1일 평균 감사대상기관 수	10개이상기관 동시수감일수
국회운영	2	2	9	4.5	0
법제사법	11	11	76	6.9	4
정무	11	10	45	4.5	0
기획재정	10	10	29	2.9	1
교육	8	7	91	13	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12	10	82	8.2	3
국방	11	9	64	7.1	3
행정안전	11	11	32	2.9	1
문화체육관광	10	7	75	10.7	4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0	10	34	3.4	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11	10	61	6.1	3
보건복지	10	9	45	5	3
환경노동	12	10	71	7.1	4
국토교통	10	10	32	3.2	0
여성가족	2	1	6	6	0
계	141	127	752	6.10	30

*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수치임

(2) ‘한마디’ 말 못하는 들러리 기관

이번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5개 이상 피감기관이 있는 곳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 장관의 질의 답변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참석한 피감기관장 중에서 감사위원의 질의를 못 받은 경우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위기에도 감사기관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관뿐만 아니라 부서장 등 기관 증인은 기관수보다 훨씬 많은데 정무위원회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기관중 일부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감사 중반이후에는 위원장이 질문을 받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질의 겸 의사표현의 기회를 주기도 하였으며, 과방위의 10월 20일 연구기관 국정감사는 53개 피감기관이라 답변여부를 확인이 어려웠고, 10월 22일 이후 종합감사에서는 피감기관 증인 수가 너무 많아 위원회 회의실 입장이 제한되어 별도의 대기장소에서 기타 피감기관의 경우에는 수감을 하였다.

10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서 최연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감 기간 중에 구두질의는 한 건도 없어서 서운했다’ 며 마무리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 2020년도 동시수감기관중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피감기관수 현황 >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을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법 제 사 법	10. 7. 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3
법 제 사 법	10. 12.월	법무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민정책연구원	3
법 제 사 법	10.13.화	대전고법 등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4
과학기술정보 방 송 통 신	10. 7.수	과 학 기 술 정 보통신부 등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9
국 방	10. 7.수	국방부 등	국방정보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군무지원단 계룡대군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인쇄창,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방정신전력원,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24
문화체육관광	10. 7. 수	문체부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2
문화체육관광	10.12. 월	문화제청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
농림축산식품 해 양 수 산	10.12.월	농 어 촌 공 사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10.8.목	중 소 벤 처 기 업부 등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
환 경 노 동	10. 12.월	기상청 등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9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항공기상청	

《참고 : 2019년도 동시수감기관중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피감기관수 현황》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법 제 사 법	10월 2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9
국 방	10월 2일	국방부 등	국방정보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장신전력원, 국군인쇄창,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재정관리단,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대학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22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 등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
교 육	10월 4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1
보 건 복 지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회기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6
환 경 노 동	10월 7일	기상청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APEC 기후센터	11
국 방	10월 8일	합동참모본부	합동군사대학교	1
정 무	10월10일	국민권익위원회	88관광개발(주)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10월10일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뇌연구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7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	10월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환 경 노 동	10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5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10월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녹색기술센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7
환 경 노 동	10월1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3
법 제 사 법	10월15일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민정책연구원	2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월15일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월16일	<중소기업 등>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3
보건복지	10월1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1
문화체육관광	10월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1
행정안전	10월17일	공무원연금공단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

(3) 열의를 가진 심야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도 줄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밤 11시를 넘어서까지 열의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지난해에는 12개 국정감사장이 밤 11시를 넘겼으나, 올해에는 9개로 줄어들었다. 9개 중 3개는 주중 파행의 영향도 미쳤다.

10월 22일에 3개 위원회로 가장 많았고, 첫날인 10월 7일에는 두 개 위원회가 밤 11시를 넘겼으며, 10월 8일에는 2개 위원회, 10월 15일에 1개 위원회, 마지막날인 10월 26일에 1개 위원회였다.

자정을 넘긴 경우에는 9개 중 4개로 법사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익일 1시 8분까지 하여 가장 길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1회였다.

지난해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파행성 정회를 하여 2일 모두 밤 11시를 넘겼으나, 올해에는 국정감사일의 연기(10월 29일→11월 4일)만 있었다.

《밤 11시 넘은 2020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수감기관	감사일	감사장소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출석위원
외교통일	외교부	1	10. 7. (수)	국회	10:04	23:25	13:21:00	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1	10. 7. (수)	국회	10:14	24:00:00	13:46:00	29
기획재정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	10.8.(목)	국회	10:06	23:11	13:05:00	26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수감 기관	감사일	감사 장소	감사시 작	감사 종료	감사 시간	출석 위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특허 청	6	10.8.(목)	국회	10:05	23:41	13:36:00	29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한국전력공사	13	10. 15. (목)	국회	10:05	23:40	13:35:00	29
법제사법	대검찰청	1	10. 22. (목)	국회	10:08	25:08: 00	15:00:00	18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종합감사>과기정통 부	-	10. 22. (목)	국회	10:02	23:22	13:20:00	2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종합감사>산자부	1	10. 22. (목)	국회	10:06	24:38: 00	14:32:00	29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종합감사>원안위/방 통	2	10. 23. (금)	국회	10:19	24:02: 00	13:43:00	20

《참고 : 밤 11시 넘은 2019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시작	끝
10월 2일 (수)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정부세종청사 10:00	10:02	23:30
	교육	교육부	국회	10:07	23:25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10:07	23:19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I (산업·통상) 특허청 등	국회	10:07	23:19
10월 4일 (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회	10:05	23:48
	국토교통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회	10:02	23:34
10월 7일 (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II (에너지)	국회	10:10	23:16
10월 10일 (목)	국토교통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회	10:17	23:39
10월 14일 (월)	국토교통	한국감정원등	국회	10:05	23:03
10월 17일 (목)	국토교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서울)	10:03	23:39
10월 21일 (월)	교육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	국회	10:06	23:57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	시작	끝
10월 21일 (월)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국회	10:00	23:23
10월 25일 (금)	국회운영	국가인권위/ 국회사무처 등	국회	10:4	23:50
11월 1일 (금)	국회운영	대통령 비서실 등	국회	10:04	24:21

(4) 저녁 6시 이전에 일찍 마무리되는 국감도 여전

6시 이전 국감 종료 횟수는 총 16회(지난해 총 28회)로 지난해 보다 12회 줄어들었으나 피감기관 수에 비해 감사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교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 분반 국정감사는 6시 이전에 종료하였다.

국방위원회의 경우에는 4회로 가장 많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하루에 53개 기관에 대해 화상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감사시간은 겨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5시 54분에 불과했다. 기상오보로 질타를 받았던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 국정감사도 17시 17분에 종료하였다.

농림수산물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조기 종료하는 위원회 중에 한 곳이었는 데 오후 6시 이전에 끝난 경우가 3번이나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번,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반이후 2번이 있었다.

《2020년도 오후 6시 이전에 국정감사가 끝난 현황》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수감 기관	감사일	감사 장소	감사 시작	감사종 료	감사 시간	출석 위원
환경노동	기상청	16	10.12.(월)	국회	10:01	17:17	7:16:00	15
국방	병무청	1	10.13.(화)	국회	10:02	17:19	7:17:00	17
국토교통	부산광역시	1	10.13.(화)	부산광 역시청	11:01	17:30	6:29:00	30
외교통일	아중동반	2	10.14.(수)	국회	12:02	17:32	5:30:00	10
국방	육군본부	10	10.16.(금)	육군본 부	10:00	15:36	5:36:00	17
교육	<1반>충남대학 교/대전교육청	8	10.19.(월)	충남대	10:00	16:26	6:26:00	8
교육	<2반>경북대/대 구교육청	9	10.19.(월)	경북대	10:01	17:44	7:43:00	8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수감 기관	감사일	감사 장소	감사 시작	감사종 료	감사 시간	출석 위원
기획재정	<1반>광주지방 국세청	7	10.20.(화)	광주국 세청	10:32	18:00	7:28:00	12
기획재정	<2반>대구지방 국세청	8	10.20.(화)	대구경 북본부	10:00	17:33	7:33:00	13
교육	<1반>전남대/광 주교육청	10	10.20.(화)	교육청	10:00	17:46	7:46:00	8
교육	<2반>부산대/부 산교육청	8	10.20.(화)	교육청	10:00	16:12	6:12:00	8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한국연구재단	53	10.20.(화)	대전	10:05	15:59	5:54:00	20
국방	방위사업청	3	10.20.(화)	국회	10:01	17:50	7:49:00	17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부산항만공사	6	10.20.(화)	국회	10:08	17:56	7:48:00	18
국방	육군지상작전사 령부	1	10.22.(목)	지작사	10:02	15:40	5:38:00	16
행정안전	강원지방경찰청	7	10.23.(금)	국회	10:05	17:46	7:41:00	22

《참고 : 2019년도 오후 6시 이전에 국정감사가 끝난 현황》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시작	끝
10월 2일 (수)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회	10:07	17:21
10월 4일(금)	문화체육관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국회	10:04	17:19
10월 7일(월)	국방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경기 과천)	10:11	17:58
10월 8일(화)	국토교통	<지방1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	10:05	16:08
		<지방2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청 (대전)	10:00	13:37
10월 10일(목)	행정안전	<지방1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대구)	10:03	14:46
		<지방2반> 전라남도	전남지방경찰청 (무안)	10:00	12:01
		전남지방경찰청	전남도청 (무안)	14:01	16:15
	문화체육관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국회	10:04	17:45
10월 11일(금)	행정안전	<지방1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부산)	10:01	15:09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	시작	끝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	15:32	17:14
		<지방2반> 전라북도	전북도청 (전주)	13:9	15:43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주)	10:01	12:40
10월 11일(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해양경찰청 등	국회	10:04	17:45
10월 14일(월)	문화체육관광	대한체육회 등	국회	10:15	17:44
10월 14일(월)	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공단 (원주)	10:05	17:54
10월 15일(화)	교육	<감사1반> 전남대학교, 병원등	전남대학교 (광주)	10:04	13:02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전남대학교 (광주)	14:10	17:06
	교육	<감사2반> 경상대 등	경상대학교 (진주)	10:01	12:49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대학교 (진주)	14:30	17:31
10월 15일(화)	국방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발안)	10:09	13:06
10월 15일(화)	행정안전	<지방1반> 충청남도	충남도청 (홍성)	10:05	15:12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예산)	15:39	17:01
	행정안전	<지방2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인천)	10:05	12:40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	14:01	16:00
10월 15일(화)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	10:02	16:25
10월 15일(목)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회	10:00	17:55
10월 15일(목)	국토교통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 (군산)	10:07	13:15
10월 17일(목)	기획재정	<지방1반> 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주)	10:02	12:23
10월 17일(목)	기획재정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10:02	12:13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15:29	17:51

일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	시작	끝
		등	(부산)		
10월 17일(목)	국방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 2작전사령부 (대구)	10:02	12:20
10월 17일(목)	행정안전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회	10:05	17:47
10월 17일(목)	문화체육관광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회	10:03	17:20
10월 17일(목)	보건복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회	10:01	17:41
10월 18일(금)	법제사법	군사법원	국방부	10:05	17:13
10월 18일(금)	국토교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10:05	15:00
10월 21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국회	10:06	17:28

(5)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코로나가 막아

이번 외교통일위원회에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2일간에 걸쳐 화상 국감으로 진행되었다. 10월 12일에는 주미대사관(종래 미주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고, 10월 14일에는 아침 9시부터 2시간을 나눠 반별로 나눠서 3개~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화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참석하여 질의했다.

지난해 2019년도 국정감사를 살펴보면(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반 반장 박정 의원의 블로그를 보면),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 피곤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고 나온다. 미주반 첫 피감기관은 주UN대표부로 국회공보에 의하면 15:02에 시작하여 18시 57분에 끝나 3시 55분에 국정감사를 하였다. 이날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불참했었다.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구주반은 첫 국정감사를 주 벨기에 대사관 겸 주 EU 대표부였는데,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2시 1분 정도 국정감사를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파행성 정회는 줄어 들 — 싸우면서 그냥 진행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10월 7일)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공무원 형의 증인채택논란으로 일시 파행하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네이버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하며 공방이 벌어져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양당 간사에게 동영상 VOD를 통해 박 의원 발언 확인을 지시하면서 과방위가 잠시 멈추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빨간 안경 논쟁으로 파행으로 하였으며, 법사위의 10월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후보추천위원 최후통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6일까지 추천해달라며 야당에 최후통첩을 보냄)으로 일시 파행이 있었고,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 중 끼어들기로 인해 논쟁을 하다가 중식시간과 맞물려 정회를 정하였다.

10월 22일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여야당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결과를 놓고 충돌하여 일시 파행을 하기도 하였다.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안병길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질의 중 ‘한양대 동문 사기극’ 이란 말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다가 일시 정회하였다.

가장 유명한 파행은 10월 23일 심야에 있었던 ‘의사봉 내리치기’ 파행으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간사간의 충돌로 인해 잠시 파행을 하였다.

국정감사 중 크고 작은 언쟁이 있었지만 파행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지난해에 이어 정착된 듯하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논란이 빚어졌으나 계속 진행하였다.

(7) 국정감사 불출석 의원은 대폭 줄어

국회공보를 통해 확인한 바, 이번 국정감사 전반전에서 감사위원 중 국정감사 전반전 전과정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의원은 박덕흠 의원(환경노동위)와 윤상현 의원(문화체육관광위), 그리고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었다.

농림출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의원도 건강상의 이유로 6일 결석 및 청가를 하였고,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태호 의원¹⁾이 2일 결석을 하였다.

외교통일위의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이 결석(청가)은 있었지만 예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은 행태는 없었으며, 보건복지위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모두 주질의를 하였다.

지난 2019년도에는 현역의원 장관이 많아서 국정감사 결석자 수가 많았고, 여야지도부나 지역구 의원이 총선을 겨냥해 지역구 행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경우로만 분석되었다.

5.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은 여전함

(1) 지역구 관련 질의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구 현안이나 민원을 국정감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에 많이 하는데 올해에도 여전하였다. 지역민원을 외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는 국정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민원의 경우에는 서면질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감기관 제출자료로 시간 때우기 (노력한 결과물이 없음)

1) 중간평가에서 김홍걸 의원이 결석을 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통계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김홍걸 의원은 국정감사 중 결석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힘.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편이라는 말이 많고, 그 통계에 의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은 감사원 등이 지적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3)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버티기

올해에도 국감 시작을 하면 자료요구를 하는 데, 자료 안주기, 버티기가 더 심해진 듯하다. 감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무성의를 지적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4) 자리 안 지키기 여전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정감사 질의 중에만 자리를 지키거나 여야간의 언쟁이 있는 경우에만 자리를 지키는 등 영상을 통해 텅빈 국정감사장의 간혹 비쳐지기도 하고 있다.

위원장의 멘트 중에 질의순서에 질의한 의원이 없어서 다른 의원부터 질의를 한다는 말이 간혹 나오기도 하였다.

6.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캄캄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는 국회의원 현황에 국회의원의 프로필 연락처 보좌진 이메일 주소 등을 소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공란이거나, 소개 되어 있어도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홈페이지(SNS 포함)를 볼 수 없는 경우가 감사위원 대비 35%(지난해 21%)나 되었다.

10명중에 3.5명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국회의원 현황에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주소를 소개하고 있지 않았다.

홈페이지 소개율이 가장 저조한 상임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로 소속위원 16명 중 7명밖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 홈페이지 소개율이 50%

에도 못 미치는 43.75%였다.

가장 양호한 상임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소속위원 24명 중 21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소개되어 87.50%의 홈페이지 소개율을 보여 주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이 NAVER 등 포털 인물소개에서는 검색이 되는 데도 국회 홈페이지에는 안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로 초선이나 다선이라도 이번 4·15 총선에 입성한 의원들의 홈페이지 소개가 없었다. 의원들 대부분은 Naver의 블로그를 의정활동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2020년도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 홈페이지 주소 소개 현황》

조사일 10월 12일(월)~13일(화) 일과시간
 조사대상 : 국회홈페이지 의원활동(국회의원 현황)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홈페이지(SNS포함) 소개 의원수	홈페이지소개율
법제사법	18	12	66.67%
정무	24	15	62.50%
기획재정	26	19	73.08%
교육	16	7	43.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4	70.00%
외교통일	21	13	61.90%
국방	17	10	58.82%
행정안전	22	13	59.09%
문화체육관광	16	11	68.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10	52.6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0	20	66.67%
보건복지	24	21	87.50%
환경노동	16	10	62.50%
국토교통	30	19	63.33%
계	299	194	64.88%

국회의원의 2020년도 국정감사 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지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299명 중 136명이 국정감사자료를 게시하고 있어 국정감사자료 게시율이 45.48%였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의원이 감사시간에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동영상도 많았다. 통계에서는 단순 기사나

사진을 제외하고 피감기관 별로 보도자료나 질의 영상 또는 질의 요약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해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만 통계에 포함하였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2020년도 국감활동 게시율》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법제사법	18	8	44.44%
정무	24	12	50.00%
기획재정	26	10	38.46%
교육	16	7	43.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0	50.00%
외교통일	21	8	38.10%
국방	17	6	35.29%
행정안전	22	11	50.00%
문화체육관광	16	7	43.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4	21.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0	13	43.33%
보건복지	24	16	66.67%
환경노동	16	8	50.00%
국토교통	30	16	53.33%
계	299	136	45.48%

Ⅲ. 2020년도 국정감사의 화제성(話題性) 자료*

1. 이번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소품 일부사례

언론에서는 **송석준 의원의 나훈아 '테스형'** (10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윤재갑 의원의 중국산 민어**(10월 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이개호 위원장이 국물이 똑똑

* 현장감과 팩트확인율 위해 신문·방송의 보도내용을 일부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힘 (이하 같음)

이라고 해서 회자됨), **문진석 의원의 판스프링**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김형동 의원의 소방헬기**(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류호정 의원의 배선 노동자 복장 착용**(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 등이 조명되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국감소품이 등장하였다.

(1) 박대출 의원의 항원진단키트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은 화학연구원에서 개발한 항체진단키트라고 하면서 기존의 항체 진단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항원 진단 방식으로 개발해 발표했다면서, 질병청이 이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데, 과기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점검했다.

(2) 정운천 의원의 인형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이 강아지 대신 가져왔다면서,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이동식 장례서비스의 문제를 질문했다.

(3) 고민정 의원의 LED 마스크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이 미용기기인 LED마스크를 들어 보이면서, 피해사례와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4) 류호정 의원과 쓰레기통과 공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이 사용후 핵연료임시정시설인 맥스터(MACSTOR)를 질의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하면서 쓰레기통과 공을 들어서 설명하였다.

(5) 최종윤 의원의 껌과 패치, 아로마 파이프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이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을 점검하면서 효용이 없다고 판정이 난 껌과 패치를 나눠준다고 지적했고, 모방심리가 큰 청소년에게 아로마 파이프를 준다고 지적했다.

(6) 양이원영 의원의 양빈모래

10월 7일 환경노동부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모래를 들어보이면서, 명사십리에 냄새가 지독한 양빈모래를 쏟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7) 박용진 의원의 엔진오일 측정게이지

10월 8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엔진오일 측정게이지를 들고 나와서 서보신 증인(현대자동차 사장)에게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엔진오일 게이지를 바꿔 주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다.

(8) 배현진 의원의 USB 꾸러미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이 USB 꾸러미를 보이며 ‘이게 국정감사 자료라고 문체부에서 이틀 전에 주신 거’라며, 한 꾸러미로 저희 방 입구 책상에 소중히 던져 주고 가셨더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제출 무성의를 지적했다.

(9) 이맹우 동원산업 사장의 생수통

10월 8일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맹우 동원산업 사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플라스틱 문제가 나와 생수통이 문제가 되자 말통으로 교체 하였다고

답변했다.

(10) 구자근 의원의 초코파이 상자, 냉면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의원은 오리온과 롯데의 분쟁과 냉면업계 분쟁 등 상표권 분쟁에 대해 조명하였다.

(11) 류호정 의원의 부착장치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은 삼성전자의 특허권 탈취문제를 조명하면서 이종민 증인(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에게 부착장치 공급업체가 부착장치를 중단한 경위를 질의했다.

(12) 조명희 의원의 우라늄이 든(?) 병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한전원자력연료에서 6년간에 걸쳐 가지고 42억을 들여서 만든 우라늄 정제 공정 기술이라면서, 원안위 반대로 이 경제성 높은 기술이 허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3) 박성민 의원의 순두부찌개 육수 베이스

10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의원이 순두부찌개 육수 베이스를 들고서, 순두부찌개 육수 베이스 이게 2kg짜리인데, 이백여 개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거의 맛을 일원화하고 있고, 대기업이 이것을 독점 납품하고 있다며, 소고기국밥 혹은 뭐 여기는 순두부 또 돈가스 소스 이런 것을 독점적으로 넣고 있다면서 소비자취향을 무시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14) 박성중 의원의 메모워치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계와 비슷한 심장질환자 심전도 데이터를 수시로 측정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휴이노에서 만든 메모워치를 들고 나와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점검했다.

(15) 박성중 의원의 소형 전자파 측정기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파에 대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소형 전자파 측정기를 이렇게 한 1억 5000 들여서 개발했는데, 400개나 만들었는데 활용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16) 김형동 의원의 수리온 헬기모형

10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은 수리온 헬기모형을 가지고 나와서, 유효적절하게 제때 진화 내지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헬기밖에 없다라는 본다며, 헬기를 구입하고 편대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 허종식 위원의 마스크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은 마스크를 들어보이면서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마스크의 용도를 점검했다.

(18) 김성주 의원의 식욕억제제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

원은 직접 당근 마켓(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입했다면서, 인터넷 상에서 불법 의약품 매매 실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19) 서정숙 의원의 에페드린 의약품 상자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에페드린이라며, 이 에페드린은 함부로 투약했을 경우에 부정맥으로 급사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약물인데도 인터넷 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바코드도 제거되어 있는데 관심을 촉구했다.

(20) 김성주 의원의 효모정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 약 300여 개나 달한다며, 앞으로 이런 식품들의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파악하고 일반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고시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21) 이상직 의원의 전자호구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은 전자호구를 들고 나와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살짝 터치만 해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자호구를 과학적이고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전자호구 장비로 경기 규칙을 고안했다며, 국제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22) 심상정 의원의 시험체

10월 16일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서 불 잘타는 자재를 준불연재로 승인해주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시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

협체의 한 면을 알루미늄 또는 콘크리트 또는 난연액을 도포해 가지고 이 한 면에다가 직접 불도 아니고 복사열 700도를 쬐여서 10분을 버티면 준불연재로 인정을 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23) 박찬대 의원의 마스크

10월 19일 교육위원회의 대구 광역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보이며 납품 마스크의 스트랩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부에 특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24) 조경태 의원의 마스크

10월 19일 교육위원회의 대구 광역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보이며, 디메틸포름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전수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 박주민 의원의 검찰연감

10월 22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에서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서 검찰연감을 보이면서, 검찰총장이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먼저 나오고 있다고 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예들려 말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책자를 들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주로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이었고,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소개할 때에도 책자를 들고 소개하였음)

(26) 윤영덕 의원의 상조물품

10월 22일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은 상조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서울대의 법인직원과 자체 직원의 경조사비와 경조물품까지 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 박성중 의원의 AR 플레이어

10월 22일 과방위의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은 AR 플레이어를 들고 나와서 시연을 하면서 VR·AR 콘텐츠사업을 조명하면서 관련 국내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28) 이종성 의원의 10월 22일자 서울신문

10월 22일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10월 20일자 서울신문(발달장애인 집콕 즐긴다던 2018년 청와대 간담회는 쇼였다)을 들어 보이면서 발달장애인 대책을 주문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외국 신문 등이 등장하였음)

(29) 허은아 의원의 TLD(피폭량 측정 장치)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피폭량측정 장치를 가지고 나와서, 원안위 위원장에게 현행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여 방사능 노출 종사자에 대한 피폭량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30) 윤미향 의원의 곰인형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반달가슴곰을 상징화해서 지리산에는 이렇게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반달가슴곰의 복원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31) 이수진 의원(비례)의 도시락 빈공기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도시락 빈공기를 가지고 나와서, 도시락 하나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열두 개나 나온다면,

코로나 19 시대에 폭증하고 있는 일회용품 대책을 촉구했다.

(32) 김웅 의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들어 보이면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구분할 수 있는 지 질문하면서, PLA(Poly Lactic Acid)의 처리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였다.

(33) 김웅 의원의 ‘새를 구해요’ 배지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김웅 의원이 ‘새를 구해요’ 배지와 함께 조류충돌방지테이브 더미 등을 보이면서 버드 스트라이킹을 막는 방법으로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34) 임이자 의원의 자동차방향제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은 자동차 방향제를 보이면서 1군 발암물질이 초과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35) 정청래 의원의 증인 ‘자필 편지’

10월 26일 교육위의 종합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은 단국대 장충식 이사장의 자필편지를 들어 보이면서, 단국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가 필요해 보이고, 충북대 같은 경우는 특별승진 건에 대해서는 사안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6) 정경희 의원의 교과서

10월 26일 교육의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은 12개 시도교육감이 채택한 인정교과서라면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들어 보이면서, 학

교 현장에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7) 김민철 의원의 토양오염물질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김민철 의원은 미국 기지(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서 퍼온 토양오염물질을 제시하면서, 국가에 산 낭비를 하였던지, 부실관리를 하였다고 질타하였다.

(38) 전용기 의원의 태극기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이 태극기를 흔들며 보이면서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이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로 확인되었다며, 정초석이 있는 이등박문의 망령이 살아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선조 6000여 명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리고 일제 헌병의 군화발에 짓밟혀서 2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3·1 운동 기념터(불과 5미터 되지 않는 곳)라고 강조했다.

(39) 강은미 의원의 청바지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은 청바지를 들고 나와서 칠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입사후 입었던 청바지라면서, 과로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40) 임이자 의원의 방염마스크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은 이천의 38명 사망자 중에서 22명이 유독가스로 질식사했다면서, 가벼운 포켓용 방염마스크를 소지하도록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는가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책제안을 하였다.

(41) 정진석 의원의 항공 점퍼

10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 점퍼라며, 평양에서 만들어졌는데, 정부공공자금이 지원되었다고 지적했다.

(42) 고민정 의원의 자율주행 로봇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이 미래산업과 관련된 질의하면서 자율주행로봇을 시연하였다.

<참고: 2019년도 국정감사 소품사례>

(1) 김진태 의원의 국대 떡볶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면서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였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 떡볶이” 라면서 차액가맹금(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 가격과 동일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뺀 값) 공개 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2) 송희경 의원의 와이파이 배낭식 이동기지국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 커다란 와이파이 문양이 그려진 배낭식 이동기지국을 멘 남성을 등장시켰다. 송 의원은 “(배낭식 이동기지국이 있으면) 산불이 났거나 재난 현장에 가면 주변에 와이파이기가 바로 연결된다” 며 “그런데 다 개발이 됐는데 규제 문제로 해외로만 수출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임시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가 일부 기능만 한정해서 허가를 해줬다”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정부가 우리 세금을 써서 (지원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3) 송희경 의원의 라돈 속옷

송희경 의원은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제품 가운데 여성 속옷도 있는데 여전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며 해당 속옷을 직접 들고 나왔다. 송 의원은 “제품을 뜯어보더라도 소비자들은 안전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교환을 받으려 해도 연락이 두절됐다” 며 “방문 측정 서비스는 완료가 됐고 자가 측정해보려고 했는데 홈페이지 설명대로 해보니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고 지적했다.

(4) 송희경 의원의 드론 재미

송희경 의원이 무선통신을 방해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드론 재미’를 꺼냈다. 송 의원은 이 장비를 사용하여 드론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과정을 시연한 영상을 보였다. 송 의원은 “원전 주변에 불법 드론이 나타난 것이 지난달에만 4건이 있었다” 며 “안티드론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

하며, 이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³⁾.

(5) 박경미 의원의 왕따 체험앱

박경미 의원은 10월 2일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왕따 체험 애플리케이션’ 으로 알려진 ‘사이버폭력 백신’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며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앱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자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졌고 가상의 가해자들이 험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고작 40초에 불과한 체험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고통이 몇 년씩 이어지기도 한다” 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다수 학생이 관련돼 있지만 학교급과 지역을 넘나드는 사안이 많아서 조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다” 고 지적했다.

(6) 송희경 의원의 김박사 넷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박사넷’이 등장했다. 김박사넷은 스타트업 ‘팔루썸니’가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연구실 정보 공유 사이트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박사넷 화면을 보여주며 “우리 학생들은 대학원을 가려는데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 면서 “과학기술원 4곳이라도 연구실 정보를 오픈할 생각이 없나” 라고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신 총장은 “(교수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에 이 문제를 전달하겠다” 고 답했다.

(7) 김한정 의원의 내란선동 고발장 봉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4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 도중 전날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내란선동 등을 피했다고 주장하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전했다. 국정감사에서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RO’가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법질서를 노골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는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형법상 국헌문란, 내란죄, 내란선동죄를 기초로 불순한 사회혼란 획책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해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 고 말했다.

(8) 김영호 의원의 폭발 자동소화장치

2019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시한폭탄 소화기’ 로 칭하며 소방청의 리콜 명령을 요구했다. 폭발 자동소화장치를 직접 들고나온 김 의원은 “며칠 전 영등포에서 터진 것을 수거해 왔다” 며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땐 단순한 사고로만 생각했지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았다” 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오늘 증인으로 부른 제조업체 대표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간의 안 보이는 커넥션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다” 며 “문제는 소방청이 (폭발 소화장치가 설치된) 아파트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확보도 못 하고 의원실에 요청해 가져다줬다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9) 이용주 의원의 ‘성인용 리얼돌’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등장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 리얼돌을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리얼돌을 자신의 옆에 두고선 리얼돌의 수입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10) 유기준 의원의 ‘통일부 사전제작’ 대북지원용 쌀 포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 ‘대한

민국'이 겉면에 표기된 쌀 포대를 보여주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 쌀 지원과 관련 사전 제작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대북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1) 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근조 KBS' 피켓

10월 17일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은 '근조 KBS', '양승동 나가레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채 감사를 하였다. KBS 보도의 편향성 문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의 KBS 인터뷰 내용 검찰 유출' 의혹 제기 등을 문제 삼았다.

(12) 박성중 의원의 AR(증강현실) 고글

10월 15일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AR(증강현실) 고글을 착용하고 질의를 하였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보인다" 고 하였다.

(13) 정세균 의원의 '증도가자'(證道歌字)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가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통해 공개되었다. 증도가자는 다보성고미술 소장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보물로 지정된 책 '증도가'는 1239년 제작된 목판으로 찍은 번각본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증도가'가 진품으로 공인되면 1377년 간행된 서적인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금속활자 관련 유물이 꽤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2. 주목을 받은 국정감사장의 증인, 참고인

2020년도 국정감사에도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위원회 관련 교수나, 대기업 사장 등 임원, 기관장 등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 외에도 감사장에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였다.

(1) 김경을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을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2020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멤버로서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활동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김 회계사는 참고인 목적과는 상관없지만,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해

3) 이외에도 손희경 의원의 질의시에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도 소품으로 등장했다.

고자분들의 복직과 체불임금 해결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2)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박사과정)

카이스트 등 전국 15개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의 조재완 학생연대 대표가 2020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석하여, 환경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원전 정책 철폐를 주장했다.

(3)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에서 2018수제186호 산업부 수사 의뢰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제12부 조상원 부장검사가 2020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수사지연에 대한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고 “제가 향후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4) 김재병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재병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0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오랫동안 새만금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 답변을 하였고, 생태계 복원, 수산업·수산자원의 회복, 해양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수 유통량을 얼마큼 더 확대해 나가야 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한 안호영 의원의 질의후에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여 오래 기다렸는데, 윤준병 의원이 짧게 질의하자 ‘그것을 끝인가요?’ 반문하기도 하였다.

(5) 김태완 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 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은 10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택배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대해 답변을 하였고, 특히 택배 분류 문제를 강조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6) Correia Cabral Apolinario 동티모르 이주노동자

동티모르에서 E-9-4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인 아폴리(Correia Cabral Apolinario)씨가 10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군산 개야도의 이주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근로실태 등에 대해 증언하였다.

(7) 김기영 지부장과 김두영 부지부장(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두영, 김기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임원들은 10월 26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양이원영 의원, 이수진(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드라마 방송스태프들의 근로환경 실태, 처우 등과 방송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답변하였다. 같은 날 이미영 전국요양 서비스 노동조합 인천지부장, 김희경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박창준 손해사정사, 송경훈 보험설계사, 김영미 캐디마스터 등도 각 지역의 근로환경실태를 증언하였다.

(8)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위원장)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는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와 함께, 한진중공업 상황과 노사문제, 노노갈등 실상에 답변을 하였다.

(9)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 관련 여러 가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강신봉 딜리버리히어(요기오)로 대표도 동시에 답변을 하였다.

(10)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대변인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대변인은 10월 8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전국에 있는 3000개의 매장 또 수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다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11)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10월 7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정부의 중소기업인 경영자금 융자관련 현장의 실상을 전달하였다.

(12) 박민상 부대장 (육군 제1717부대 부대장, 육군대령)

교육위원회에 군복을 입은 군인이 등장하여 관심을 받았다. 박민상 대령은 10월 15일 교육위원회의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군복으로 입고 참고인으로 등장하였는데, 항공부대 근처 학교의 소음 문제에 대해 학교와 부대의 협력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13) 김서정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회장

김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회장은 10월 22일 교육위

원회의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성비위 문제에 대한 권인숙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14) 류조은 부산국제고등학교 학생

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기구에 가서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알렸던 류조은 부산국제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0월 26일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왔다.

류 학생은 근로기준법에 주당 최장 근로가능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동이 하루에 막 10시간, 15시간씩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절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서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15) 이재환 (주)원스토어 대표이사

2021년 연말까지 거래액 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 50%의 수수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이사는 10월 8일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 대표이사는 국내 앱마켓 입장을 밝혔다.

(16) 이영희 미래대안행동여성위원장

작가 출신의 이영희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장은 10월 8일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권영세 의원의 청소년사행성도박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한 실업계 고등학생이 한판에 500만 원을 거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17) 강화현 새마을금고 은행원

화염에 휩싸인 분들을 구하는 데 항상 앞장섰던 여성 소방관 강한열의 언니인 강화현 은행원은 10월 12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연금공단 국정감

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참고인으로 나와서 순직공무원의 재해보상 그리고 공무원 유족연금 관련한 수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답변을 하여 언론에 크게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18) 김영국 인천강화소방서 소방장

강철 소방관으로 언론에 알려진 김영국 소방장이 10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현장에서 말 못 할 고충을 겪고 있는 소방관들의 현장이야기와 공상추정법 등 대책에 대해 답변하였다.

(19) 윤태균 이장(전 아산시 이통장 연합회장)

윤태균 이장은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통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상위법인 법률에 의해서 처우에 관한 것을 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 금호연 유도 국가대표 감독

금호연 유도 국가대표 감독은 10월 15일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일명 ‘팔걸이 원칙’ 이라고 하는 최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21) 송종만 농업인

송종만 농업인은 10월 7일 농림위의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만희 의원의 농업재해보험 관련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이 ‘우리 대한민국 먹거리를 (위한) 우리 농

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고 밝히기도 하였다.

(22) 백은기 어민

위도에서 10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백은기 어민은 10월 8일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영광 원전관련 위도 앞바다와 부안 앞바다의 피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몰라도 장관하고 한수원 사장은 와서 고개 숙여 우리 위도 면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고 울분을 토했다.

<참고 : 2019년 국정감사 주요 증인/ 참고인 사례>

(1) 양 모씨(‘멕시코서 누명 옥살이’ 참고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지난 2일 외교부 국감에는 누명을 쓰고 멕시코에서 1154일 동안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양모 씨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지난 2016년 1월 멕시코시티에서 여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인신매매를 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체포돼 3년 2개월 간 수감생활을 했다. 양씨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2) 임 모씨 대학생원생(청년 일자리 대책)

환경노동위원회의 11월 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고려대 대학원생 임모 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임씨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의 참고인’이었다.

하지만 임씨는 조국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신 의원의 질의에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보며 무기력에 빠졌다” 고 토로했고,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3) 임은정 부장검사(검찰개혁 관련)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0월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가 아는 것을 국민이 모두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난장판인 상황”이라며 “국민이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 하고 방어하는데 쓰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국민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며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하는데, 상급자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노력하면서 ‘검찰 공화국’이 됐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로서 아프지만 수사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아야 한다” 며 “다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수사권을) 주겠다고 하면 기꺼이 받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취소했다.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월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돌연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무기로 지인에게 3억원을 주라고 롯데그룹을 압박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국감 증인은 신동빈 회장에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로 교체됐다.

(5) 명재권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조국 동생의 영장심사를 기각한 명재권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가 이번 국감의 화제가 되었다. 야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이 전날 있었던 민주당의 법원개혁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이자 법원의 오점이라고 질타했다. 14일 서울고법 국정감사 때 출석요구관련 파행을 초래했다.

(6) 윤운상 넥스지오대표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정감사에 윤운상 넥스지오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밝혀진 지열발전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던 회사이다.

증인신문에 나선 김정재 의원은 “3차 물주입 후 3.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조치 취했나?” 라 하자 윤 증인은 “특별한 조치나 지시가 없었다” 고 말했다. 정부의 지열발전 관리감독 책임이 부실했음을 증명해준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주관기관인 넥스지오라도 사업 중단과 조사 의뢰를 제안했어야 했다” 며 정부와 주관기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윤 증인은 “포항 시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 고 답했다.

(7)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기재위의 10. 2.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한 참고인 발언에 민주당이 정치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회 모욕죄’ 라는 엄포까지 나왔다.

한국당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 자리에서 “소주성은 철저히 실패했다” 며 “경제부총리가 국제기구가 재정확장을 쓰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 소주성·포용성장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자 “경제학 전공인줄 알았더니 아니다” 며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 고 쏘아붙였다. 또 이 교수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며 ‘국회의원 갑질’ 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국회 권위를 심각하게 모욕한 언사” 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8)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3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감예선 조 전 장관 자녀의 ‘인턴 특혜’ 의혹 등 논란에 연루된 인물이자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에게 질의가 집중됐다. 한 원장은 조 장관 자녀에 대한 의혹 관련 질의에는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고 말을 아꼈으며, 장관 후보 거론에 대해선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 고 답했다.

(9)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관

국회 정무위원회의 18일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피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한 끝에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국감장에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직전 손을 들어 “선서 전 드릴 말씀이 있다” 며 발언대에 섰다. 피 전 처장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 고 말했다.

(10)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10월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간호 인력 67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22억원을 지원했는데 절반 정도인 36명만 채용됐다”면서 “나머지 재정 지원은 기존 간호인력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히면서, 이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지원금 돌려막기 이외 닥터헬기에 대해서도 사업 반납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부 문제도 공개했다.

(11) 명 샤오원 화웨이지사장

명 샤오원 한국화웨이지사장이 10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섰다. 명 샤오원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국내에 구축한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에 결코 백도어 같은 위협을 두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원한다면 ‘노백도어’ 협약도 맺을 의향이 있으며, 정부가 요구한다면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자유한국당)은 외신 블룸버그가 화웨이 장비에서 ‘백도어’를 발견했다고 지적하자 명 샤오원 지사장은 “백도어는 자살행위이며 화웨이는 그간 전세계 주요 국가와 통신사에 납품한 장비에 결단코 백도어를 심은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 백도어란 장비에 비밀프로그램이나 초소형 칩셋 등 부품을 숨겨 해당 장비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는 통로를 말한다.

(12)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월 21일 국방부 종합감사에 지난해 ‘촛불 계엄령 문건’이라며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보고받은 적 없다. 오늘 인지했다”며 국감이 끝난 후 문건 공개 등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야당은 ‘흠집내기’이자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발해 국방위 종감은 비공개 전환 후 일시 파행했다.

3. 2020년도 국정감사장 앞 시위 (언론보도 중심)

코로나 19로 대규모 집회시위가 어려워진 가운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도 국정감사장 앞에서의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형식의 시위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1) 교육위 1반 충남대 국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반대 삭발 시위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조합원들이 10월 1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

였다.

(2) 교육위 2반 경북대 국정감사에서의 전국 대학원생 노조와 비정규 교수 노조의 시위

10월 19일 경북대와 경북대 병원, 대구시·경북도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 앞에서 잇따라 시위를 벌였다.

국감장인 경북대 글로벌 플라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말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경북대가 미지급 치료비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까지 확정했다고 하지만, 관련 규정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다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지급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대학 실험실에 대한 특단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 학생이 안심하고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학생 연구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3) 교육위 2반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영남대 교수회의 시위

영남대 교수회는 최근 벌어진 영남대 총장 선출 규정안 부결과 관련해 이사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교수회는 박근혜 재단 퇴진과 비선 실세 개입 의혹, 영남대 새마을 박정희 사업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구하는 피켓 등을 건물 주변에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4) 교육위 2반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참여연대 등의 시위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센터, 김동식 대구시의원 등이 10월 19일 국감장 앞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유해 물질이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 폐기

합의를 거부하고 몇 달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부모들과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5)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의 한국노총 공무원 차별해소 촉구 1인 시위

10월 7일 오전, 한국노총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무원 차별해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병관)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은 오전 8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무원 차별해소와 공무원 문제 국정감사 의제 반영을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1인 시위는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의 사무처 간부와 회원조합 간부가 참여했다. 한국노총이 준비한 피켓에는 공무원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 및 공무원에게 보편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6)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교육공공성 사수' 촉구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조합원들이 10월 1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다.

(7) 국방부 앞 평통사의 전시작전권 환수 피켓 시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일인 7일 오전 국방위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회원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하였다.

(8) 정부 자치경찰 법안 철회" 경기남부경찰 직장협 1인 시위

하재구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가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직협회장단)은 19일 경기남

부경찰청 국정감사에 맞춰 도내 경찰관서 직협 대표들이 정부의 자치경찰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취지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직협회장단 하재구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법안은 국민과 경찰 모두가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준비하고 있던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폐기하고 만들어진 졸속 법안“이라며 1인 시위에 참여한 배경을 밝혔다.

(9) 'EBS 보니하니' 최영수, 1인 시위 100일째 억울 시위

개그맨 최영수가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5월 25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EBS 사옥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했던 최영수는 EBS 국정 감사가 열리는 국회를 찾았다. 이날은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최영수는 지난해 EBS 프로그램 '생방송 특! 특! 보니하니' 라이브 방송 도중 MC인 버스터즈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10) 부산시 국정감사장 밖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펼쳐진 시위

가덕신공항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이지후 동남권관문공항추진부울경범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민의를 반영해야 할 국회의원이 25년 지역 숙원의 가덕신공항을 자발적으로 외친 것에 대해 조롱으로 치부한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 대표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했다면 그것이 지역 현안인지 인식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라며 “이 부분을 질의하고 물어보는 게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가 조롱을 당했다” 고 감사위원의 발언을 매도하기도 하였다.

(11) 광주시립극단 갑질 피해 배우들 광주·서울 동시 ‘릴레이 시위’

광주 시립극단 내에서 발생한 갑질 사태를 두고 예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가 10월 15일 광주와 서울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책위는 시립극단 갑질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논커녕 대책 마련도 이루어지지 않자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시청과 서울 국회의사당,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릴레이 시위를 동시 진행했다. 이날 시위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됐다.

(1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의 운영위제도 개선 촉구 시위

10월 23일 노조는 오전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집회에서 노조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불거진 박덕흠(무소속 국회의원) 전 전문건설협회장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임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고 : 2019년도 국정감사장 시위》

(1)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시위

10월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서울대 시설관리직(청소·경비·기계·정비) 노조 시위 탓에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기계·전기분회 조합원 140여 명과 청소·경비분회 조합원 290여 명은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서울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2) 제2 제주공항 저지시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8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의 격한 항의농성이 벌어졌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학계,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제주도청 천막촌사람들’ 등은 이날 아침부터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오전 9시30분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청 앞에 도착하자 농성을 하던 시민들은 버스를 둘러싸고 제2공항 계획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3)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 100여 명이 10월 10일 시공사인 금호산업 본사와 국

회 앞에서 육상풍력단지 허가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가졌다. 상경한 주민들은 이날 오전 11시 청송 면 봉산 풍력단지 조성 시공사인 금호산업(서울 종로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동의 없는 면 봉산 풍력단지 조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정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청송 면 봉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으로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은 곳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며 “청정 청송의 막대한 산림과 생태계 훼손, 그리고 소음과 저주파 등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4. 2020년도 국정감사장의 ‘웃음소리’ 분석

국정감사장은 엄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좀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엄숙해야 할 국정감사장에서 웃음 소리가 간혹 들리는 데, 주로 위원장이 진행에 있어서 말실수를 할 경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경우,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한 공감, 감사위원이 잘못을 할 경우 등에서 유발되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성일종 간사가 위원장 대리를 할 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성일종 위원장의 이름을 성완종 위원장으로 불러서 동료의원들이 정정해 주자 웃음이 터지기도 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질의시간 때문에 유독 웃음이 많이 터졌는데, 추가 질의시간 1분,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생긴 웃음이었다. <<과방위에선 1분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중 파행을 했다는 비난과 수모를 겪기도 함>>

또, 화상 국정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웃음이 터진 경우도 있었는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영상이 멈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웃음이 나왔다.

<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웃음이 터진 상황 >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10. 7.	문화체육관광위의	임오경 의원이 성경환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대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한민국 최고의 유명 아나운서 출신인 만큼 다시 한번 직접 앵커로 나서시면 시청률이 급 오를 것 같다고 하여	
10. 7.	행정안전위의 행안부 국정감사	서영교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안받겠다고 하면서 ‘내일 추가질의’ 를 하라고 하자	
10. 7.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전재수 의원이 추가질의를 안하는 조건으로 30초를 요구하자, 김병욱 위원장대리가 추가질의를 안한다고 확인하면서 1분을 주자	
10.7.	외교통일위의 외교통일부 국정감사	이태규 의원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교수의 미국 출국에 대해 말리지 않았느냐고 하자, 강경화 장관이 “이건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뉘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하자	
10.7.	과방위의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이 질의의원은 마스크를 벗고 하자고 하여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자, 입이 트셨냐고 반문하자	
10.7.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송옥주 위원장이 임이자 간사 질의 순서에 이낙연 이라고 잘못 호명하자.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김재병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오래 기다렸는데 윤준병 의원이 한 개 질의를 하고 말자 ‘그게 끝이나;고 하자.	
10.7.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장혜영 의원이 연구용역을 해달라고 하자 부총리가 국민적 공감대라면서 머뭇거리자 연구용역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나며 ‘그렇게 하겠다고 해주세요’ 하자	
10.7.	법사위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	장제원 의원의 질의시 PPT작동이 안되자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하자	
	법사위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	박범계 의원이 질의시간 추가로 1년을 더 달라고 하자, 이어 해야 할 박주민 의원이 1년 뒤에 질의를 할 뻔 했다고 하자 연거푸 웃음이 터짐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에게 김도읍 의원에게 질의시간을 후하게 주면서 자신에게 박하게 준다고 하자	
10. 7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김민석 의원이 서정숙 의원이 마이크가 커진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잘 알아 들어서 계속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자.	
10.7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	김철민 의원이 위원장이 석식 정회를 위해 질의 끝 순서를 정하자 오전과 같이 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해경 국정감사	어기구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여야간의 해경공무원 수색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면 2분을 빼달라고 하자	
10.8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김종민 의원이 특정 모임(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결사의 자유라며, 차별이라고 말하자.	
10.8	기획재정부의 기재부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이 다른 곳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화상 증인들을 사무실에 가도록 이석조치해달라고 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김태흠 의원이 증인이기 때문에 있는 것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이 맞다고 하자, 기동민 의원이 기관증인 국장들이 서류를 챙겼다가 맥이 빠졌을 것 같다고 말하자.	
10.8	정무위의 공정거래 위 국정감사	홍성국 의원이 질의 순서가 늦어서 앞에서 다 해서 라고 푸념하자	
	정무위의 공정거래 위 국정감사	윤관석 위원장이 증인신문을 한 이정문 위원을 이정문 증인이라고 호칭하자	
10.8	보건복지위의 보건 복지부 국정감사	강기윤 의원이 영상국감이라 떨어져 있으니 장관이 보고 싶다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보건 복지부 국정감사	김성주 의원질의시에 정면을 바라봐 달라고 하자 박능 후 의원이 스크린을 보면서 답변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자	
10.8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권영세 의원이 1분 더 쓰자고 하니 서영교 위원장이 마저 당겨서 쓰라고 하자 사채 쓰는 것 같다고 푸념을 하자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이은주 의원이 1분을 더 달라고 하니, 서영교 위원장이 소수정당 배려 차원에서 그러라고 하자	
10.8.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박완수 의원이 경찰차벽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마지막에 10.9. 차벽을 설치할 것인지 재차 확인하자	
10.8	산업위의 중소벤처 기업부 국정감사	황운하 의원이 대전에서 세종청사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자, 박영선 장관이 40분이라고 반박하자	
10.8.	과방위의 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	박성중 간사가 1분 추가질의를 요청하는데, 위원장이 하지마요라고 하자 의원들끼리 연이어 논란이 벌어져 사과촉구까지 나오자 연거푸 웃음바다가 됨	
	과방위의 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	박대출 의원이 방통위 직원들 추석에 고향가지 말라고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강경화 장관 남편 사례를 말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분 외국 가도 된다고 말한 한적이 없다고 하자	
	과방위의 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	정희용 의원의 추가질의 시에 이원욱 위원장이 야당의원에 한해 1분사용한 것은 없던 걸로 한다고 1분을 폐지 하자	
10.8	국토교통위의 도로 공사 국정감사	김은혜 의원이 질의시간이 다 되어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자 진선미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해 김 의원이 복 받을 거라고 하자	
10.12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김종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박범계 의원이 아까 했다고 지적하니 한번 했나 실토하자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윤호중 위원장이 여야 간사가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했다가 신청했다고 하자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장제원 의원이 재재보증질의를 하지않았다며,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자	
10.12	과방위의 원자력 위원회 국정감사	전혜숙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자료제출에 대해 성의없이 답변을 했다고 문책을 요구하니, 이원욱 위원장이 여야당 간사간에 문책에 대해 논의하라고 하자.	
	과방위의 원자력 위원회 국정감사	조명희 의원이 위원장의 답변을 막으면서 초선이니까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하자	
10.12	정무위의 금융위원	배진교 의원이 은성수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에 대해 문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회 국정감사	제제기를 하자 위원장이 정회때마다 의원을 쫓아다녔다고 하자 왜 저만 쫓아다니냐고 하고, 위원장 대리인 성일종 의원을 성완중 위원장이라고 하여, 성일종 의원이 다 이해한다고 하자	
10.12	행정안전위의 인사 혁신처 국정감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구두질의 대신 서면 질의를 하였다고 공개적으로 감사인사를 하니, 한정애 의원이 다음부터 서면질의를 하겠다고 하자	
10.12	국토교통의 부산시 국정감사	송석준 의원이 1분더 요구를 하자, 이현승 위원장 대리가 거부하자, 지역구(이현승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임)에 오셨는데, 후하게 더 달라고 읍소하자	
10.12	보건복지위의 식품 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강기윤 의원이 답변을 나중에 하라고 하고, 인정하느냐고 묻자 김성주 의원이 답변하게 해주라고 끼워들자	
10.13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홍성국 의원의 질의시간 초과후 금융감독원장이 길게 답변을 하니, 성일종 위원장 대리가 ‘답변하시는 것이 느셨어요’ 라고 하자	
10.13	산업위의 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김정호 의원이 산업단지공사이사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다가 ‘너무 흥분해 버렸네’ 라고 자책을 하자	
10.13	과방위의 정보통신 산업진흥공단 등 국정감사	허은아 의원이 과기부 차관이 안 움직여서, 영상이 계속 멈추어 있다고 지적하자	
10.13	과방위의 정보통신 산업진흥공단 등 국정감사	이원욱 위원장이 더 이상 추가 질의를 할 위원이 없는지 물으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자	
10.15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	윤호중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공부를 많이하신 것 같다고 평하자, 장제원 의원이 ‘주로 공부만 하고 살았다’ 고 말하자	
10.15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 등 국정감사	정철래 의원이 (초등학교 숫자) 무자르듯 하지 말라고 하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저에겐 칼도 없다’ 고 하자	
10.15	국토교통위의 철도공사 국정감사	송석준 의원이 김선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이석해 있자 위원장에게 ‘단디 혼내주이소’ 라고 말하자	
10.16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박영순 의원이 대천IC까지 갈 때 거리와 소요시간을 말하자	
10.16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세종시 출신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관련 질의를 하다가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존경합니다.’ 라고 하자	
10.19	외교통일위의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정감사	김태호 의원이 재외동포청 설립의지를 높여 달라고 질의하였는데,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이 임기가 3일 남았다고 하자	
10.22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격려 방문을 하였는데, 의원들이 출석체크를 해달라고 하자	
10.22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윤후덕 위원장이 김태흠 의원의 질의후 ‘김태흠 의원이 질의하니 국정감사답네’ 라고 평가하자	
10.22	기획재정위의 기획	홍남기 부총리가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재정부 종합감사	지 않으면서 ‘답변을 들으시면 제 입장이 더 강해진다’ 고 하자	
10.22	과방위의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박성중 의원이 매일 가장 늦게 질의를 하였는데, AR기기 시연을 위해서 순서를 바꿨다면 양해를 구하고, BTS나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 안보인다고 하자 연거푸 웃음이 터짐 (이원욱 위원장이 박성중 의원이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에게 줄지 모른다고 기대감을 표하자 또 웃음이터짐)	
	과방위의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윤영찬 의원이 질의시간을 써서 ‘아까 썼나?’ 푸념하자 웃음이 터지면서 1분 30초를 더 줌	
10.22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김민석 위원장이 독감백신문제로 2차관의 자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자리를 바꾸도록 하면서 ‘자리를 바꾼다고 질문을 안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서영석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문제가 유출될지 몰라 추후 제공하겠다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화상국감으로 원격 기관장들에게 김성주 위원장 대리가 지루하냐고 문자, 기관장들이 예라고 답변을 하자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이민석 위원장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의 이석을 허가하면서 ‘안 가시고 여기 앉아 계실 것 아니면 가십시오’ 라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종합감사	김성주 의원이 k-방역을 칭찬하는 질의를 하니, 강기운 위원장대리가 ‘대단히 정치적 발언을 하셨다’ 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종합감사	최종운 의원이 질의중 감사 덕담을 하다가, 마지막이 아닌 줄 알고, ‘제가 마지막이 아니예요’ 하자	
10.23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증인신문 때 2분 사용했다고 이헌승 위원장대리가 3분을 주니, 박성민 의원이 ‘우리 당 간사님이 증인신문을 하라고 해서 2분을 사용했다’ 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자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천준호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조용천 위원장 대리가 다른 의원에게 질의를 하라고 하다가 천 의원이 답변을 들을 시간을 달라고 하자 놀라면서 ‘아 답변이오?’ 하자	
10.23	과방위의 종합감사	변재일 의원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 하자	
	과방위의 종합감사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 답변을 하자	
	과방위의 종합감사	박성중 간사가 질의를 마치자 이원욱 위원장이 이를 잘못 불러 박대출 간사님 수고했다고 하니, 박대출 의원이 ‘내가 수고했다고 하니까’ 라고 하자	
10.23	농림위의 농림축산	위원장이 다른 증인 신문을 해서 10분 사용했기 때문에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부 종합감사	다른 증인에게는 신문을 못하다고 하자 윤재갑 의원이 ‘분야가 다른데’ 라며 꾸념을 하자	
	농림위의 농림축산부 종합감사	정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예” 라고 답변을 하자 정운천 의원이 편찬을 주고 이개호 위원장이 ‘예를 쉽게 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하자	
10.23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	위원들이 비둘기, 매, 부엉이 논쟁을 벌인 가운데, 김영호 의원이 비둘기 이야기를 하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자꾸 비둘기로 만들지 말라’ 고 하자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	송영길 위원장이 질문을 오래 받지 못했던 배석했던 피감기관 장에게 시간관계상 한 말씀만 하라고 하자	
10.23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윤후덕 위원장이 길게 질의를 하자, 고용진 의원이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라고 위원장 멘트를 하자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김경협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1분을 더 달라고 하자 윤후덕 위원장이 ‘예’ 라고 반문하니, 김경협 의원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자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 팔로우업 하겠다고 하겠다고 부총리가 말하니, 윤후덕 위원장이 ‘여당 위원과 위원장 말도 좀 들어 주세요’ 라고 하자	
10.23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노웅래 의원이 불교관람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오해라고 말하자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윤제용 증인이 다른 답을 하자, 임이자 의원이 ‘그 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답이’ 라고 하자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기상청장과 환경청장이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멘트를 하자 송옥주 위원장이 계속해야 한다고 하고, 윤미향 의원이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	
10. 26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경마 장외발매소와 관련하여 용산 출신이었던 진영 장관이 수익과 관련하여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박완수 의원이 질의중에 시간이 부족하여 박수영 의원에게 30초 빌려달라고 하여	
10.26	농림위의 해양수산부 등 종합감사	강릉출신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동해에 있는 해양경찰서) 강릉으로 못간 격이 후회스럽다고 하여	
10.26	문화체육관광위의 종합감사	이병훈 의원이 더 질의를 안할 것이니 30초만 달라고 하자 도종환 위원장이 다른 의원들도 더 안할 것이라고 하자.	
	문화체육관광위의 종합감사	임오경 의원이 마무리 발언으로 자세히 말을 하니, 도종환 위원장이 위원장이 할 말을 다하셨다고 하자	
10.26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진중공업 해직자인 김진숙 참고인이 사장에게 머리에 뿔이 안달렸다고 하여	
10.26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40초 발언을 하라고 하자, 송경훈 보험설계사 참고인이 두시 30분 기다렸다고 하자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를 하는 임이자 의원이 마지막 하는데 인센티브로 질의시간 추가요청을 하자.	
10.27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	전주혜 의원이 질의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자 정춘숙 위원장이 1분 준다고 하니 박하다고 하자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사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 사	신동근 의원이 1분 더 주시면 정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위원장이 그냥 하라고 해서	
10.30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 정감사	위원장이 중식시간 없이 계속 질의를 하자고 하자 김성 원 간사가 ‘정부가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냐’ 라 고 하자, 김성원 간사 질의 후에 김태년 위원장이 사진 이 잘 나왔다고 하여	
11.4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김태년 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 질의에 대해 수준높 은 질의라고 칭찬하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준 높다 하니깐 수준 안 높은 질문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이소영 의원이 길게 질의를 하고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 니, 김태년 위원장이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깐 라며 피감기관의 입장을 설명하자	

5. 국정감사 기간 동안 크게 망신당한 국회의원

(1) 강훈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였다. 보도 직후에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두말할 여지 없이 제가 잘못된 일”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때도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 이원욱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한 번을 더 참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의사봉을 던지면서 정회를 하여 비난을 자초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과방위의 종이없는 국감, 화상 국감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막말 파행 국감장으로 변화했다.

위원장은 11월 5일 이에 대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행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

(3) 박덕흠 무소속 의원(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직전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박덕흠 의원 개인사와 관련하여서 국감 첫날부터 11월 4일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까지 관련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법사위, 운영위에서 성명이 거론되는 등 크게 망신스러웠다.

또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여 박덕흠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호상 금강홍수 통제소장)은 질문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되돌아야 가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등 56인은 10월 14일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이상직 무소속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이스타항공과 관련하여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실명거론되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진공 이사장 역임시절의 일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5) 유상범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은 2020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 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며 ‘김영호, 김경협, 김수현, 박수현, 이호철, 진영’ 등이 나오는 명단을 국정감사장 대형 화면에 자료로 공개하였다.

쇼킹한 자료여서 언론에 많이 퍼졌는데,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수사 중인

문서 속의 김진표는 1970년생, 박수현은 여성, 김영호 70대 노인, 이호철은 동명이인으로 민주당·청와대 관계자가 아님이 밝혀져 사실확인없이 질의를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고,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의원들로부터 징계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6. 국감 중 망신스러웠던 피감기관장

(1)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2020년 10월 19일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윤미향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20년전 정대협 임원이었다는 것과 광복회장 발언과 관련해 선친 문제가 대두되어 곤혹스런 국정감사를 받았다.

(2) 장하성 주중국 대사

장하성 주중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장소가 '룸살롱'이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룸살롱'을 '음식점'이라고 해명한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당시에 해당 업소는 '부적절한 장소'였다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사가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을 갔다고 지적했다. 장 대사는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를 쪼개기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자 “학교 부설 연구소장을 맡았던 기간(2016~2017년)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여 회식했다”며 “총 6차례 279만원을 사용했고, 여러명이 식사와 반주를 하다보니(한번에) 40여만원이 나와 연구소 운영카드와 연구소 지원 비용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적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 의원의 지적에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당시에 해당 업소가

유혹업소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추후 보충 질의에서 “당시에도 부적절했던 장소였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이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올해 3월에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할 때 개학을 한 차례 더 늦추느냐 마느냐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SNS에 정규직 교직원을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표현)에 대해 공개된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명하거나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조희연 교육감은 사실은 제가 ‘일 안 해도’를 SNS상에 올릴 때 출근이라는 말을 조금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사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는 점에서 사과를 했었고, 두 번이나 했지만 다시 사과한다고 하였다.

(4)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영주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 중에 “민주평통 직원의 음란물 다운·전송 관련 질의”를 하자, 이승환 사무처장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하였고, 공직 기강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들에게도 사과를 하라고 하자 다시 사과를 하였는데, 김영호 의원으로부터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하였다.

(5)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10월 19일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올랐다. 10월 26일에는 5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느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의 지적에 “제 이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밝혀 돈을 잃고 명예도 실추되었다.

십니까?

(6)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장관의 전셋집 논란은 2020년도 국정감사 중 회자된 말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전 국민이 장관님 전셋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000이 올랐다는데 잘되지길 바란다.” 고 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은혜 의원이 사례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참고 :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곤혹을 당했던 피감기관 장》

(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국당 의원들의 손팻말 때문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가짜위원장 한상혁 즉시 사퇴하라” 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자신의 노트북에 부착했다. 즉,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우리 당 의원들은 한상혁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 대한 반성 등이 취임 후 행보에서 나타나지도 않았고, 지극히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정치 편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했다. “당연히 (한 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받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 국감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볼 낯이 없을 것” 이라는 김경진 무소속 의원(광주 북구갑)의 지적 이후 한 위원장의 증인선서가 진행됐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한 위원장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사실상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그를 국감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퍼포먼스’였다.

(2)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자유한국당 강석호·김태흠·이만희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여권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흠 의원은 공사의 황호선 사장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황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중·고교를 같이 나온 학연이 있고,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부산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특수 관계’” 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동생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등이 채용된 SM 그룹에 공사가 중소기업자 지원액의 21%에 달하는 1천360억원을 지원한 점도 문제 삼았다.

(3)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10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도마에 올랐다. 이강래 사장은 지난 2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 태풍 미탁이 상륙하면서 이강래 사장은 상황 대비를 위해 국감장을 떠났다. 이석을 해도 좋은 것은 태풍 피해 대책을 위한 것이었는데,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봤다고 답변

을 하였다.

(4) 정경두 국방부 장관 “북한 대변인”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10월 2일 국방위 국정감사는 함박도가 북한 영토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북한 대변인’이라는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책상을 내리치고 샷대질까지 오가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국방위 공방은 박명우 한국당 의원이 정 장관에게 “함박도는 북한 땅이라고 북한이랑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 게 발단이 됐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자신의 질문에 답변하려고 하자 “뒤에 설명시간을 드리겠다”고 말을 끊거나 “들어 보세요”라고 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일제감치 함박도는 NLL(서해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으로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같은 압박은 사실상 한국당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부각하려는 성격이 짙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동료 의원이지만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는 말은 삼가 달라”며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건 좀 자제해달라”고 항의했다. 홍 의원이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자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동료 의원 간 토론을 못 하게 돼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5) 조국 법무부장관

2019년 최대의 화제 피감기관장으로 국정감사 하루전 사퇴를 하여 결국 **조국 없는 조국국감**이 되었다.

(6) 박원순 서울시장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10월 17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우리 시장님은 민생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엉뚱한데 신경 쓰고 있다. 금년에만 서울시가 대북교류사업에 약 150억원을 투입했다”며 “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세금 8억을 들여서 만든 보고서가 북한에 평양시 발전계획”이라고 박원순 시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지금 북한은 금년 들어와서만 11차례 미사일 도발하고 방사포를 쏘고 있었다. 미사일 연습하는 게 서울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서울에서는 평양시 발전계획을 시민 세금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주민이 서울에서 아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자유대한민국에 오기 위해 목숨 걸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인지는 아나”라며 “옥탑방 체험이 소중했다고 강조하는데 북한 이탈주민이 어떻게 사는지 체험해 볼 생각은 없냐”고 말했다.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통일되면 수도를 평양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박원순 시장의 ‘천만시민을 모독하는 질의’라고 맞받아쳤지만, 서울시민보다 평양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7) 이낙연 국무총리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사퇴의 파편을 맞았다. 10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이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리의 사퇴 여부와 시점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국무조정실장은 “사퇴 시점이 언제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적어도 12월까지 일정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이 총리가) 연말까지는 사퇴 안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 의원이 “12월 이후에는 사퇴하지 않겠느냐로 읽힌다”며 재차 묻자, 실장은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8) ‘꿀떡은 언어장애인’ 된 국책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이 10월 18일 국책연구원장들을 향해 “꿀 먹은 병어리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렇게 비판이 쏟아져도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말 한마디 없다”며 “잘못됐으면 수정하도록 노력하라. 직을 걸고 하라. 잘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며 주문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을 불러세워선 “일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으니 폐기하라고 주장하는데,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디펜스(방어)를 하라”고 밝혔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향해선 국토연구원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학자로서 자신하느냐”며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국책연구원은 30년을 가야 한다. 그런 시각에서 정부를 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답변방법

(1)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개인사정”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조성길 북한대사 대리 입국 사실 공개와 관련하여 심각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국민의 당 조태용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조성길 대사대리 입국과 관련해 공개가 의도적인 유출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고 우리 이 장관님이 의도적인 유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그렇다고 하면 보안 사고니까 당연히 중요한 보안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였고요.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 장관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안 조사를,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 보안 조사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이라며 심각하게 질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다가, 조 의원은 “왜 그러냐 하면 의도적인 유출이 아닌 경우에는 보안 사고고 이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큰 보안 사고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표정이 오늘 좀 편안하시기 때문에 심각함을 제가 못 느꼈습니다.”고 하면서 장관의 표정을 문제 삼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위원장님, 오늘 제 표정의 문제는 조금 저 개인적인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다르게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도 유출과 관련된 내용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2)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보없다"

10월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문제가 이어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에 총살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한 게 맞냐” 고 물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는 것밖에는 정보가 없다” 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정은이 계몽군주냐” 고 묻자 유 부총리는 “아니다” 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사진이 실린 고교 교과서를 꺼내보이며 교과서가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며 “(현재 교과서가)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고 본다” 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6.25가 북침이나, 남침이나” 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남침이다” 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무위원에게 사상검증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며 “남침, 북침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를 물어본 것은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라며 “위원장이 유치하게 '사상검증'이란 말을 쓴 것은 유감스럽다” 고 반박했다.

(3)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토교통위원회의 10월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들어보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 달라” 고 노래를 틀었다.

김 장관은 갑자기 울린 노래에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보였다. 송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담았으며 “전세 매물이 실질적으

로 제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없다” (경남 창원시) 등의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안 오른 게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 이라며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고통을 해결해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 고 질타했다.

송 의원 “국민의 불만과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 이라며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 장관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 답했다

(4)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불가피한 선택"

10월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 시위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 경찰이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찬성한다.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고민을 했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드라이브 스루 검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라면서 “또 같은 날 같은 시간 과천 서울공원에는 인파들로 꽉 찼다고 한다.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광화문 광장은 차안에만 있어도 감염이 되고 판데는 그렇지 않다? 이게 논리가 맞느냐” 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염 방지의 중요성은 알지만 동일한 잣대로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이 집회를 금지했으니 막긴 해야 하는데 차벽설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 고 밝혔다.

(5)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판넬답변"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착한 선결제 방송 광고를 중기부 홍보예산에서 썼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 고 하자 직접 준비한 그래프 판넬을 꺼내 대답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질의하는 의원 배려 차원의 대답을 하며 정책 질의에 해법도 제시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예산을 초과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에게 혼란을 가져왔다’ 고 하자 박 장관은 “예산보다 많은 확인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안 돼있기 때문” 이라며 “국세청만이 소상공인 매출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기에 국세청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 고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선결 과제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표정은 굳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충실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질의 요지를 미리 공유해줬던 ‘선의’가 본의 아니게 같은 당 의원 ‘망신 주기’처럼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6) 추미애 법무부장관 "27번 욕박"

10월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의 “거짓말 횟수가 27번이다” 라는 지적에 “27번이나 욕박질렀겠죠” 라고 맞받았다.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군 휴가 문제를 언급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수사가 잘못됐으면 근거를 가지고 하시라” “거짓말하지 않았다” “안 아픈 아들도 아니고 군대를 안 마친 아들도 아닌데 뭘 잘못했는지부터 의원님이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장관의 거짓말은 국회 영상 속기록에 다 남아있다. 그 거짓말까지 장관님이 임명했던 말 잘 듣는 검사들이 참말로 바꿔줄 순 없다”

며 “국회 속기록이나 이런 걸 직접 다 보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니 국회 와서 한 거짓말 횟수가 27번” 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27번 억박질렀겠죠” 라고 답변한 이후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전 파행 이후 또다시 고성의 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감사위원께서 호통만 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느냐” “감사위원들이 호통치는 것을 도와주라는 것이냐” 며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게 발언권을 줬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부터 ‘추미애 방탄국감’ 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며 “ ‘소셜 쓰시네’ 부터 해서 의원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동문서답하고 추미애 장관만 나타나면 시끄럽다. 그래놓고 윤한홍 의원 질문에 27번을 억박질렀다고 하는 추 장관의 태도에 야당 간사가 지적을 못 하느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8. 관심을 끈 국정감사장의 '사과'

(1) 강경화 외무부장관의 '남편사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7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행과 관련, “국민들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배우자의 해외여행이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면, 상황을 고려해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개인사이기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해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는 이 의원이 '고위공직자는 불법 이전에 도덕적 측면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 때로는 일반 국민보다 더 불편 느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백신사과'

'K-방역'으로 높게 평가받으며 코로나19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사과를 했다.

정은경 청장은 7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뒤 초대 청장으로서 첫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청장은 최근 문제가 된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 쏟아지는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 질타에 거듭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을 누가 맞아야 하나,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 청장부터 접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질병청에서 상온 노출 의심 사례가 없다고 했다가 3천 건 넘는 접종 사례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신뢰하는 게 가능하겠나”고 말했다.

정 청장은 모두 발언부터 “최근 발생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공급 관련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로 시작했다.

정 청장은 이어 “다양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조달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이상 반응은 12건 보고됐지만 모두 경증에서 회복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예방접종 계약 조달방식, 콜드체인(냉장유통) 체계, 의료기관 접종 관리 전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범부처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5·18 사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등에 대해 현직 육군 참모총장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사죄'라는 표현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개입한 데 대해 현직 육군 참모총장이 사죄한 것이다. 남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계군의 존재 목적이라며, 민주화 운동에 군이 개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사과 발언은 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육군에선 미리 준비한 답변은 아니라고 전했다.

(4)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건배사 사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했던 건배사 논란에 대해 “발언 실수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공식적으로 사과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사과한다.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실수를 인정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5)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옵티머스 사과"

10월 1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은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펀드를 팔아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화를 건 관계자는, 금융업계의 '큰 손'인 군인공제회 출신의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으로 정 사장은 김 고문의 전화를 받은 뒤 실무자에게 옵티머스 쪽을 만나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업무상 자주 받는 유형의 전화인데다 단순히 판매 여부를 검토해보라는 의미였지만, 책임은 부정할 수 없다며 사과했다.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의적 책임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무리 그래도 옵티머스 상품 판매가 실사 하루 만에 결정된 건 외부로부터의 관여가 의심된다고 추궁했다.

(6) 김종석 기상청장의 “기상오보 사과”

김종석 기상청장이 외국의 날씨 예보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기상 망명족’을 언급하면서 올해 여름 장마철 예보 적중에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올해 8월까지의 강수유무정확도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여름철 장기 예보와 일부 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은 국민의 기대에 비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들은 기상청의 예보를 홈페이지나 방송을 통해 확인하지만, 기상 상황 변화에 따른 수정 예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기상 예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기상 망명족이 대두했다”고 자인했다.

(7)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의 “어이 사과”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의 대선캠프 홍보고문으로 일하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공영홈쇼핑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적을 쏟아내는 류호정 의원을 향해 돌연 “어이”라고 했다는 추궁을 받고, 류 의원의 추가 질의에서 “문맥으로는 ‘허위’라고 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류 의원이 “아까 ‘어이’라고 하신 황당 실언에 저도 ‘어이?’라고 되물었다. ‘제가 사장님 친구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자 사

과하였다.

9. 열전 또는 파행을 야기한 '한마디'

(1) 고민정 의원의 '빨간 안경'

10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색깔론' 공세가 나오면서 오후 한 때 여야간 유감 표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 앞서 한무경 국민의힘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2) 윤건영 의원의 '고장난 레코드'

외교통일위의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놓고 여야간 고성이가 오갔다. 야당이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 여당에서 “고장난 레코드냐”는 반말이 나왔다.

(3) 장제원 의원의 '김남국 위원 심한 거 아닙니까?'

장제원 의원은 특히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향해 “말끝마다 (야당 의원의 질의에) 개입해서 장관의 답변을 왜 본인이 하느냐”며 “이렇게 그냥 두면 야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할 때 방해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도 ‘겨들기’와 ‘반말’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언쟁은 계속됐다.

(4) 안병길 의원의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공방장으로

변했다. 경남 양산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라고 방어에 나섰다.

(5) 박대출 의원의 '네이버 국회농단'

10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관련한 국회의원 연구 단체를 놓고 고성인 오가는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올해 7월 출범한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 대해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에까지 손을 뻗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6) 김정재 의원의 "예의 없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장관에게 감사원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뻔뻔하게 대답한다", "거짓말을 한다", "작정하고 나왔네"라고 몰아붙였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근거도 없이, 여기 나와있는 장관과 차관, 산업부 간부가 대단한 범죠타인 것처럼 하는 식의 질의는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하자, 김 의원은 "동료의원 발의에 따지지 않고 예의없다"고 언성을 높였고,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야 의원들이 한 데 섞여 "어디서 샅대질이나", "반말하지 마라"며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7) 박성중 의원의 "1분 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3일 과방위의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추가 질의시간이 지나 마이크 중단이 되자 '1분 더 주세요'라고 하였고, 이원욱 위원장은 추추가질의에서 하라고 하면서 다음 조승래 간사가 질의를 이어갔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 후 조명희 의원의 질의가 있는 후 박성중 의원이 ‘1분’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고, 이원욱 위원장과의 언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막말과 고성이가 오가면서 물리적 폭력까지 이어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원욱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내팽겨 치기도 하였다.

IV.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2020년도)국정감사 이모저모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아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우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윤관석 정무위원장의 2020. 10. 7. 국무조정실 등 국감 개시발언에서

1. 2020년도 국정감사의 실시시기 조정 등

2020년 9월 24일 제382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⁴⁾”이 72번째 의안으로 의결되었고,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2019. 10. 7.(수)부터 10. 26.(월)까지 실시하고,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실시하기로 하여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과 10. 30일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7일 감사와 28일 현장시찰을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20년 10월 6일 제6차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려다가 여야 합의가 안되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에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0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려는 것임.

2. 2020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감사위원은 최다선인 6선 박병석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5선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99명**이었으나, 국무위원을 겸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지난해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 4명)은 국정감사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의원의 불출석한 경우를 살펴보면, 통일부 장관을 겸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영 위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상현 무소속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불출석하였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의원(6일)이 청가로 일부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외교통일위원회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2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1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용혜인 의원이 1일(지방국감), 국회운영위원회의 박상혁 의원이 1일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별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각각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가 16명**으로 가장 적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15명이 국정감사를 하였음)

교섭단체별로 더불어민주당 174명(지난해 128명)으로 58.2%, 국민의힘 103명(지난해 자유한국당 110명)으로 34.4%였고, 정의당(6명), 국민의당(3명), 열린민주당(3명), 기본소득당(1명), 시대전환(1명), 무소속(8명) 등 비교섭단체는 22명(지난해 31명)으로 7.36%였다.

《2020년도 국정감사시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현황》

2020년 10월7일 기준

교섭단체 \ 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율(%)
더불어민주당	161	13	174	58
국민의힘	84	19	103	34.33
비교섭단체	8	15	23	7.67
계	253	47	300	100

(무소속 국회의장 포함)

3.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05개(지난해 788개)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2020년 9월 24일 제382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4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이 이루어져 확정되었다. 다만 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본회의 승인기관은 채택하지 못하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승인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12개가 승인되어 총 17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88개 기관이었음»

가장 많은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한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2개였다(지난해 과방위는 80개였음. 지난해 1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81개였는데 올해는 56개로 줄어듦). 가장 적은 위원회는 22개 기관을 선정한 보건복지위원회였고 두 번째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지난해와 같이 29개였다.(겸임위 제외).

<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 >

구분 \ 위원회	위원회 선정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계 (기관 수)
	국감조법 제7조제1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국회운영	8	-	-	1	9
법제사법	72	-	3	1	76
정무	8	-	37	1	46
기획재정	23	-	6	-	29
교육	19	17	23	5	64

구분 위원회	위원회 선정 기관			본회의 인기관	계 (기관 수)
	국감조법 제7조제1 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9	-	64	9	82
외 교 통 일	25	-	5	-	30
국 방	58	-	5	-	63
행 정 안 전	5	10	7	13	35
문 화 체 육 관 광	23	-	27	6	56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5	-	23	9	37
사 업 통 상 자 원 중 소 벤 처 기 업	3	-	41	-	44
보 건 복 지	4	-	17	1	22
환 경 노 동	46	-	24	-	70
국 토 교 통	3	3	25	-	31
정 보	5	-	-	-	5
여 성 가 족	1	-	5	-	6
계 (기관 수)	317	30	312	46	총계 705

자료 : 국회사무처 의사국, 2020년도국정감사수첩(2020. 10. 8), 4쪽

4. 57회나 5개 이상 수감기관 동시국감

국정감사의 병폐 중 하나가 과도하게 하루에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일정 중 무려 55회(2019년도 69회, 2018년도 58회, 2017년도 44회)나 한번에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하루에 53개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국방위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같이 28개(2018년도에는 32개) 피감기관을 하루에 감사하였다. 전체 일정 중 15개 이상 감사를 한 경우도 10일이나 되어 중요 피감기관이 아닌 개별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특히 초선의원이 151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하루에 그 많은 피감기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다.

《2020년도 국정감사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경우(종합감사 제외)》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수감 기관	감사일	감사 장소	감사 시작	감사 종료	감사 시간
법제사법	대법원(법원 행정처)	6	10.7.(수)	국회	10:20	22:24	12:04:00
정무	국무조정실	5	10.7.(수)	국회	10:00	22:18	12:18:00
교육	교육부	7	10.7.(수)	국회	10:02	21:23	11:21:00
과기정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11	10.7.(수)	국회	10:03	22:42	12:39:00
국방	국방부	28	10.7.(수)	국방부	10:04	21:18	11:14:00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부	9	10.7.(수)	국회	10:08	19:49	9:41:00
국방	합동참모본부	8	10.8.(목)	합동참모 본부	10:05	19:52	9:47: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중소벤처기업 부,특허청	6	10.8.(목)	국회	10:05	23:41	13:36:00
법제사법	법무부	5	10.12.(월)	국회	10:08	22:08	12:00:00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 원회	5	10.12.(월)	국회	10:01	22:14	12:13:00
문화체육관광	문화재청	8	10.12.(월)	국회	10:09	19:17	9:08:00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한국농어촌공 사	5	10.12.(월)	국회	10:06	18:32	8:26:00
환경노동	기상청	16	10.12.(월)	국회	10:01	17:17	7:16:00
법제사법	대전고법/고 검	17	10.13.(화)	국회	10:21	18:55	8:34:00
교육	평생교육진흥 원	12	10.13.(화)	국회	10:03	18:08	8:05:00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원	5	10.13.(화)	국회	10:03	18:16	8:13:00
행정안전	소방청	9	10.13.(화)	국회	10:03	19:30	9:27: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8	10.13.(화)	국회	10:03	19:51	9:48:00
환경노동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19	10.14.(수)	국회	10:00	20:43	10:43:00
정무	국민권익위원 회	5	10.15.(목)	국회	10:03	19:24	9:21:00
국방	공군본부/ 해군	11	10.15.(목)	본부	10:03	19:57	9:54: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한국전력공사	13	10.15.(목)	국회	10:05	23:40	13:35:00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8	10.15.(목)	국회	10:02	18:46	8:44:00
환경노동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22	10.15.(목)	국회	10:02	21:23	11:21:00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수감 기관	감사일	감사 장소	감사 시작	감사 종료	감사 시간
국토교통	한국철도공사	8	10.15.(목)	국회	10:03	21:52	11:49:00
법제사법	대구고법/고 검	15	10.16.(금)	국회	10:12	19:13	9:01:00
국방	육군본부	10	10.16.(금)	육군본부	10:00	15:36	5:36:00
문화체육관 광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7	10.16.(금)	국회	10:09	19:29	9:20:00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7	10.16.(금)	국회	10:14	20:43	10:29:00
법제사법	서울고검	11	10.19.(월)	국회	10:22	22:03	11:41:00
정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24	10.19.(월)	국회	10:02	19:15	9:13:00
기획재정	한국수출입은 행	5	10.19.(월)	국회	10:03	19:50	9:47:00
교육	충남대학교/ 대전교육청	8	10.19.(월)	충남대	10:00	16:26	6:26:00
교육	<2반>경북대/ 대구교육청	9	10.19.(월)	경북대	10:01	17:44	7:43:00
문화체육관 광	국립중앙박물 관	12	10. 19.(월)	국회	10:09	18:19	8:10: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8	10.19.(월)	국회	10:10	20:29	10:19:00
환경노동	한국수자원공 사	11	10.19.(월)	국회	10:00	21:25	11:25:00
국토교통	한국감정원	8	10.19.(월)	국회	10:04	19:49	9:45:00
법제사법	서울고법	16	10.20.(화):	국회	10:16	18:15	7:59:00
기획재정	<1반>광주지 방국세청	7	10.20.(화):	광주지방 국세청	10:32	18:00	7:28:00
기획재정	<2반>대구지 방국세청	8	10.20.(화):	대구경북 본부	10:00	17:33	7:33:00
교육	<1반>전남대/ 광주교육청	10	10.20.(화):	시교육청	10:00	17:46	7:46:00
교육	<2반>부산대/ 부산교육청	8	10.20.(화):	시교육청	10:00	16:12	6:12:00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한국연구재단	53	10.20.(화):	대전	10:05	15:59	5:54:00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부산항만공사	6	10.20.(화):	국회	10:08	17:56	7:48: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한국석유공사	11	10.20.(화):	국회	10:02	20:00	9:58:00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수감 기관	감사일	감사 장소	감사 시작	감사 종료	감사 시간
기업							
환경노동	근로복지공단	11	10.20.(화):	국회	10:01	21:00	10:59:00
보건복지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7	10.21.(수)	국회	10:02	19:16	9:14:00
교육	서울대학교	7	10.22.(목)	국회	10:02	19:34	9:32:00
문화체육관광	한국콘텐츠진흥원	16	10.22.(목)	국회	10:07	21:29	11:22:00
농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10.22.(목)	국회	10:07	18:28	8:21:00
행정안전	강원지방경찰청	7	10.23.(금)	국회	10:05	17:46	7:41:00
여성가족	여성가족부	6	10.27.(화)	국회	10:04	18:48	8:44:00
국회운영	국가인권위원회	6	10.30.(금)	국회	10:04	18:10	8:06:00

《2019년 국정감사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경우(종합감사 제외)》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수 감기관 수	감사일	감사장소	감사시 작	감사종 료	감사시 간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6	19.10. 2.(수)	대법원	10:05	20:09	10:04
교육위원회	교육부	7	19.10. 2.(수)	국회	10:07	23:25	13:18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19.10. 2.(수)	국회	10:07	23:19	13:12
국방위원회	국방부	28	19.10. 2.(수)	국방부(서울)	10:07	21:18	11: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4	19.10. 2.(수)	국회	10:07	17:21	7: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7	19.10. 2.(수)	국회	10:07	23:19	13:12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7	19.10. 2.(수)	환경부(세종)	10:05	20:33	10:28
교육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	12	19.10. 4.(금)	국회	10:06	19:26	9: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22	19.10. 4.(금)	국회	10:04	17:19	7:15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11	19.10. 7.(월)	서울고등검찰청	10:06	22:28	12:2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	19.10. 7.(월)	국회	10:03	22:20	12: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13	19.10. 7.(월)	국회	10:03	18:12	8:09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7	19.10. 7.(월)	국회	10:00	19:51	9:51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17	19.10. 7.(월)	국회	10:03	18:53	8:50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감기관 수	감사일	감사장소	감사시 작	감사종 료	감사시 간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8	19.10. 7.(월)	철도공동 사육	10:04	19:44	9:40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10	19.10. 8.(화)	대전고등 법원	10:18	12:51	2:33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7	19.10. 8.(화)	대전고등 검찰청	14:31	18:09	3:38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8	19.10. 8.(화)	합동참모 본부	10:14	20:48	10:34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암센터	6	19.10. 8.(화)	국회	10:00	18:28	8:28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7	19.10. 8.(화)	국회	10:00	18:43	8:43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 회	5	19.10.10.(목)	정부세종 청사	10:00	18:25	8:25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1	19.10.10.(목)	서울대학 교	10:04	20:31	10:27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27	19.10.10.(목)	국회	10:03	22:12	12:09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5	19.10.10.(목)	해군본부	10:02	13:15	3:13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5	19.10.10.(목)	공군본부	15:13	18:28	3: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9	19.10.10.(목)	국회	10:04	17:45	7:4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 합중앙회	6	19.10.10.(목)	국회	10:03	18:33	8: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11	19.10.10.(목)	국회	10:10	20:21	10:11
환경노동위원회	한강유역환경 청	12	19.10.10.(목)	국회	10:02	19:57	9:55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법원	9	19.10.11.(금)	대구고등 법원	10:17	12:58	2:41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검찰청	6	19.10.11.(금)	대구고등 검찰청	15:02	18:22	3:2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26	19.10.11.(금)	국회	10:06	21:57	11:51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10	19.10.11.(금)	육군본부	10:05	15:47	5:4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5	19.10.11.(금)	국회	10:04	17:45	7:4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8	19.10.11.(금)	국회	10:30	20:21	9:51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6	19.10.11.(금)	국회	10:00	19:28	9:28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16	19.10.14.(월)	서울고등 법원	10:02	19:04	9:02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 행	5	19.10.14.(월)	국회	10:03	19:08	9:05
교육위원회	충남대학교	10	19.10.14.(월)	대전교육 청	10:11	12:45	2:34
교육위원회	강원대학교	11	19.10.14.(월)	경북교육 청	10:14	12:45	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5	19.10.14.(월)	국회	10:15	17:44	7:29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감기관 수	감사일	감사장소	감사시 작	감사종 료	감사시 간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 력	9	19.10.14.(월)	국회	10:06	20:15	10:09
환경노동위 원회	한국수자원공 사	11	19.10.14.(월)	국회	10:03	18:55	8:52
국토교통위 원회	한국감정원	7	19.10.14.(월)	국회	10:07	23:03	12:56
법제사법위 원회	법무부	5	19.10.15.(화)	국회	10:35	19:31	8:56
교육위원회	전남대학교	12	19.10.15.(화)	전남대학 교	10:04	13:02	2:58
교육위원회	경상대학교	11	19.10.15.(화)	경상대학 교	10:01	12:49	2:48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5	19.10.15.(화)	국회	10:03	21:46	11:43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한국가스공사	13	19.10.15.(화)	국회	10:08	20:34	10:26
보건복지위 원회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0	19.10.15.(화)	국회	10:00	17:55	7:55
환경노동위 원회	근로복지공단	7	19.10.15.(화)	국회	10:00	18:29	8:29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2	19.10.16.(수)	국회	10:36	20:19	9:43
기획재정위 원회	대전지방국세 청	7	19.10.17.(목)	대전지방 국세청	10:02	12:23	2:21
기획재정위 원회	부산지방국세 청	5	19.10.17.(목)	부산본부 세관	15:29	17:51	2:22
행정안전위 원회	공무원연금공 단	10	19.10.17.(목)	국회	10:05	17:47	7:42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 흥원	12	19.10.17.(목)	국회	10:03	17:20	7:17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위원회	한국마사회	6	19.10.17.(목)	국회	10:03	19:03	9:00
보건복지위 원회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10	19.10.17.(목)	국회	10:01	17:41	7:40
정부위원회	국무조정실	6	19.10.18.(금)	국회	10:01	21:00	10:59
외교통일위 원회	한국국제협력 단	6	19.10.18.(금)	국회	10:04	18:48	8:44
법제사법위 원회	법무부	5	19.10.21.(월)	국회	10:15	20:24	10:09
정부위원회	금융위원회	8	19.10.21.(월)	국회	10:02	20:10	10:08
외교통일위 원회	외교부	9	19.10.21.(월)	국회	10:15	22:43	12:28
국방위원회	국방부	7	19.10.21.(월)	국회	10:10	21:06	10:56
기획재정위 원회	기획재정부	5	19.10.23.(수)	국회	10:03	22:52	12:49
여성가족위 원회	여성가족부	6	19.10.23.(수)	국회	10:05	19:06	9:01
기획재정위 원회	기획재정부	7	19.10.24.(목)	국회	10:04	21:27	11:23
행정안전위 원회	행정안전부	5	19.10.24.(목)	국회	10:03	19:37	9:34
국회운영위	국가인권위원	6	19.10.25.(금)	국회	10:04	23:50	13:46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감기관 수	감사일	감사장소	감사시 작	감사종 료	감사시 간
원회	회						

5.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 및 인터넷 생중계

감사시간 중 국회방송은 10월 7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 28개 기관 국정감사, 10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10월 22일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과 10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 그리고 10월 26일 교육위원회의 교육부등 국정감사를 비롯해 15회(2019년도는 총 13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하였다. 10월 7일 외교통일위의 외교통일부 국정감사 녹화중계, 10월 9일 한글날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녹화중계 등을 시작으로 법정공휴일, 토요일과 일요일 등을 비롯해 평일 새벽 시간대에 중계방송을 하였다.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록으로 모든 국정감사내용이 제공되고 있다. 제18대 국회 2010년도 농림수산물위원회에서 외부 국정감사를 녹화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이번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부국감과 국회방송 생중계 국감을 영상회의록에 올려놓아 총 120개(겸임위 2개위원회 3개 포함)의 영상회의록(2017. 12. 1.기준)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67개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대부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9년도에는 1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152개의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거의 모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2020년도에는 11월 8일 기준으로 149개의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현장시찰을 제외한 모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상회의록과 달리 속기록인 회의록이 너무 늦게 올라와 2019. 11. 20.기준으로 77개 회의록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 전체 국정감사(시찰 제외) 50%에도 못 미쳐 개선이 요구되었다.

6. 2020년도 국정감사 감사진행시간은 1317시간 36분

2020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⁵⁾)은 1317시간 36분으로 2019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인 1297시간 08분보다 20시간 18분 정도 많았다. 2018년도 1447시간 44분보다 많이 저조하였다. 2017년도 국정감사는 1307시간 35분이었고, 2016년도 1216시간 43분이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되었다. 2019년도 국정감사는 기승전 조국감사로, 조국 일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많았다.

《2020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총 진행시간(중식, 이동, 휴식시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국회운영	19:49:00	문화체육관광	66:37:00
법제사법	114:29: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97:21:00
정무	106:40:00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96:06:00
기획재정	102:30:00	보건복지	77:51:00
교육	77:58:00	환경노동	98:17: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99:16:00	국토교통	105:03:00
외교통일	83:14:00	여성가족	8:44
국방	67:15:00		
행정안전	96:26:00	계	1317:36:00

《2019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총 진행시간(휴식기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국회운영	24:04	문화체육관광	55:18
법제사법	97: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84:1
정무	84:3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111:4
기획재정	92:36	보건복지	85:57
교육	59:12	환경노동	10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19:5	국토교통	110:33
외교통일	92:24	여성가족	9:01
국방	57:45		
행정안전	112:42	계	1297:08

5)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오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회공보상의 오전 국정감사시작시간은 수정하였으나, 대부분 국회공보 표시를 기준으로 하였음.

7.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 2개 위원회 7회 실시

이슈 : 서울시 - 박원순, 경기도 - 이재명, 부산시 - 가덕도

이번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2번 이상 국정감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곳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였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4개 광역도와 4개 광역시가 함께 수감을 하였다.

예년과 같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정감사 반대 시위가 여기 저기 있었고,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축소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관행처럼 이어온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경기도는 10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통합반 국정감사와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제2반 국정감사를 받았다. 매년 지방교부금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통제가 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보다는 지자체장 관련 질의가 많았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도마 위에 올라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원래 현지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획을 수정하여 국회에서 통합 국정감사를 하였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위원수)	지방자치 단체	단체장	일시	장소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감사 시간	주요이슈
국토교통 (30)	부산광역시	변성완 시장권한 대행	10.13.(화)	시청	11:01	17:30	6:29:00	가덕도 신공항 관련 (신공항 검증)
행정안전 (22)	서울특별시	서정협 시장권한 대행	10.15.(목)	시청	10:09	16:53	6:44:00	박원순 시장 사망사 건 반값 재산세

행정안전 (22)	경기도	이재명 지사	10.19.(월)	도청	10:04	16:43	6:39:00	이재명 대선주자 검증
행정안전 (22)	강원도	최문순 지사	10.20.(화)	국회	10:03	18:25	8:22:00	레고랜드 의혹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대구·경 북 행정 통합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						청주특례시 관련입장
	제주특별 자치도	원희룡 지사						후쿠시마 원전수 방 류 대책, 청년일자리
국토교통 (14)	<1반>서울특별시	서정협 시장권한 대행	10.20.(화)	시청	10:02	19:49	9:47:00	아파트가격 전세대책
국토교통 (16)	<2반>경 기도	이재명 지사	10.20.(화)	도청	10:02	21:52	11:50:00	‘국민의집’ 논란 기본주택론
행정안전 (22)	세종특별 자치시	이춘희 시장	10.22.(목)	국회	10:10	18:17	8:07:00	대전 세종통합론
	대전 광역 시	허태정 시장						대전 세종통합론 유성복합터미널
	광주 광역 시	이용섭 시장						전남 광주 통합론
	울산 광역 시	송철호 시장						직무수행평가저조, 선거개입논란

《2019년도 지자체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반	일자	지자체명	지자체장	주요내용	특이사항
행정안전 위원회	지방 1반	2019.10. 10	대구광역 시	권영진	1.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 2.공공기관낙하산인사 3.대구취수원이전해결 4.대구시신청사건립 5.일자리안전및질문제 6.청년층의탈대구	더불어민주당 김 영호 의원이 대 구시민들을 수구 로 지칭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감.
행정안전 위원회	지방 2반	2019.10. 10	전라남도	김영록	1.블루이코노미사업과균형발 전특별회계지원 2.농어민수당지급대상 3.한전 공대 설립 4.진도해양쓰레기행사 5.각종지표와기환경고문제제 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 한 지정 건의
행정안전 위원회	지방 1반	2019.10. .11	부산광역 시	오거돈	1.동남권관문공항(김해신공항 문제) 2.부산시장에대한특혜의혹이 가짜뉴스임 3.노환중부산의료원장조국딸 특혜장학금문제,임명과정의 혹	

					4. 유재수경 제부시장비리감찰 무마의혹	
행정안전 위원회	지방 2반	2019-10 -11	전라북도	송하진	1. 새만금태양광에너지사업취 소공방 2. 전주특례시지정문제 3. 전국최악의미세먼지수준과 부실한저감대책	
행정안전 위원회		2019-10 -14	서울특별 시	박원순	1. 박원순시장아들병역비리문 제제기 2. 제로페이혈세공방 3. 서울시교통공사친인척채용 의혹 4. 대기질문제 5. 조국편드의혹 6. 공공자전거따릉이의적자운 영 7. 서울시와이파이사업	
행정안전 위원회	지방 1반	2019-10 -15	충청남도	양승조	1. 강력범죄특정대상및지역편 중,치안유지 2. 미세먼지문제에따른충청권 노후화력발전소존폐문제 3. 계룡군문화엑스포북한군참 여 4. 도산하기관부정채용 5. 4대강보해체에따른갈등 6. 공공기관종합청렴도전국최 하위 7. 충청지역지하수방사능오염 문제 8. 혁신도시지정문제	
행정안전 위원회	지방 2반	2019-10 -15	인천광역 시	박남춘	1. 붉은수돗물사태(책임소재,재 발방지대책,수사상황,초동 대처부족질타) 2. 인천e음카드부익부빈익빈문 제 3. 주민참여예산제 4. 인천지하상가조례개정상위 법논란 5. 아프리카돼지열병(ASF)사태	
행정안전 위원회	통합	2019-10 -18	경기도청	이재명	1. 경기소방개인신상정보유출 2. 닥터헬기문제 3.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대책 4. 체납관리단운영 5. 청년기본소득	이재명정책검증 보다현실적인어 려움이더부각됨. 이재명경기지사 제소현황자료제 출문제로본질의 전공방 조국비호,구명운 동등개인적질의 이어짐 이재명자격논란 으로과행
농림축산	통합	2019-10	제주특별	원희룡	1. 농산물해상운송비국비지원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15	자치도		2.농가부채급증 3.풍수해피해농민에대한특별 재난지역선포기준개선의필 요성 4.지하수보전 5.가축분뇨처리실태 6.1차산업지원 7.아프리카돼지열병 8.신항만개발사업에대한도의 관심요청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 1반	2019-10 -08	제주특별 자치도	원희룡	1. 제주제2공항건설사업,공론 화요구(공항민영화,군사공 항활용가능성우려,입지선정 과정의주민소통부재) 2.난개발,쓰레기문제	1.제주제2공항건 설에대한찬반집 회가있었음. 2.제18호태풍차 바로인한피해복 구현장방문위해 국정감사를일찍 마무리하고피해 상황을청취함.
국토교통 위원회	지방 2반	2019-10 -08	대전광역 시, 세종 특별자치 시	허태정 대 전시장, 이춘희 세 종시장	1.대전시트램(서대전육교지하 화) 2.대전혁신도시지정 3.세종시인구분산실패문제제 기 4.세종보철거	
국토교통 위원회	통합	2019-10 -17	서울특별 시	박원순	1.서울교통공사채용비리의혹 에대한감사원감사결과 2.역세권청년주택실효성의문 제기	1.채용비리의혹 에대해윤호중더 불어민주당의원 과자유한국당의 원들간고성이오 감. 2.김석기자유한 국당의원의평양 수도발언에여야 간공방으로현안 질의지연

8. 국정감사 중 감사의원 등의 회자된 말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장의 말이 회자되어 경각심을 주거나 이슈화되기도 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보다는 피감기관 장의 발언이 많이 회자 되었는데 11월 4일 노영민 위원장의 ‘살인자’ 발언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7번 억박’ 등은 논란이 되면서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019년도에는 김종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내가 조

국이나!’ 는 언론에 크게 부각되어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2020년도 국정감사장의 한마디 말》

(언론보도내용 등 종합)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1월 4일	노영민 비서실장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이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장	박대출의원이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 아니었는지 질의하자
10월 16일	김은혜 의원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의 사례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이사 간다던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은 A씨의 사례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해법을 구하며
10월 16일	양경숙 의원	‘너나 잘하세요’ 라는 영화대사가 떠오른다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성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10월 13일	강기운 의원	밥이 상해도 그 안의 탄수화물 절대량은 똑같다고 해서 국민들이 ‘상한 밥’을 먹을 수 있겠나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단백질 함량에 문제가 없어 백색입자 발견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의 답변에
10월 8일	서범수 의원	조금 많은 게 아니죠. 537대입니다. 그렇죠? 537대. 그러면 동원된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광화문 경찰차 차벽 설치와 관련하여 동원 차량이 언론의 300대 보다 조금 더 많다는 청장의 대답에 대해
10월 7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제가 만류... 뭐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구요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정감사	남편 이일병씨의 보트 구입 외유에 대해 이태규 의원이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에 대해 답하면서
10월 15일	김용판 의원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서울 시도 거의 스톡커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평양시 지원에
10월 15일	허종식 의원	전교 1등들이 몰랐겠느냐	보건복지위의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과 의대생들의 의사고시 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10월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보십시오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관 사퇴 여론이 점점 증가한다는 취지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0월 19일	김진애 의원	존경하는 빼고 얘기하셔도 돼요	법사위의 서울 고검 등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 기소 관련 결재라인을 확인하며
10월 8일	윤희숙 의원	장관님, 전셋집 구하셨어요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전셋집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월 8일	김주영 의원	영끌, 줍줍' 아시죠?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	요즘 회자되고 있는 단어들이라면서 “처음엔 젊은 층에서 재미로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슬픈 단어였다” 라며
10월 23일	김영호 의원	눈 큰 비둘기형 장관이 됐음 좋겠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종합감사	여야 의원들이 비둘기, 부엉이를 언급하며 선전을 벌이자
10월 23일	박진 의원	비둘기 보고 매가 되라곤 하지 않겠다. 대신 눈 크게 뜨고, 볼건 보는 부엉이는 되라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종합감사	여당 의원들이 비둘기를 거론하며 이인영 장관에게 덕담을 건네자
10월 16일	양경숙 의원	너나 잘하세요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혼수를 두는 것'이라며
10월 16일	안병길 의원	전화번호는 전달했지만 지시는 없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메모는 부장에게 전달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10월 16일	주철현 의원	솔직히 외압을 받은 거 아니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여당 의원조차 펀드 상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NH투자증권을 질타하며
10월 12일	윤호중 법사위 원장	여기는 장마당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법무부 국정감사, 여야 의원 간 거친 공방이 계속되자
10월 12일	전주혜 의원	장관님, 여기는 진실의 자리이지 해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좌관과 주고 받은 카톡과 관련해 질의를 하며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0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말 이것은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법사위의 법무 부 국정감사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법 절차에서 허용된 범위 내 정당한 휴가, 병가라 위법과 불법이 없는 간단한 사건'이라 규정하며
10월 13일	김희국 의원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위의 부산시 국정감 사	2200억원이 소요되는 부산시 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난맥 상을 지적하면서
10월 12일	조명희 의원	시나리오 없이 12시간 내 에 우리 다 죽어요.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 국정감사	인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한국이 방사능으로 뒤덮인다 며
10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27번이나 욕박질렸죠	법사위의 법무 부 국정감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27번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 냐고 질책하자
10월 13일	김병욱 의원	친일단체로 전락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냐	교육위의 교육부산하기 관 국정감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3개 전 범기업에 2년간 57억원을 투 자한 것을 지적하며
10월 13일	김성주 의원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서 중고 의약 품인 식욕억제제 디에타 민을 직접 구매했다	보건복지위의 식약처 국정감 사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항정신 성 전문의약품이자 필로폰 중 독자 사이에선 마약 대체재로 쓰이는 의약품을 구매했다며 당근마켓의 부실관리를 지적
10월 13일	모종화 병무청 장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	국방위의 병무 청 국정감사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답변하면서
10월 13일	윤석현 금감원 장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 하다	기재위의 금융 감독원 국정감 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사전 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 이 나오자
10월 14일	이치범 주말레 이시아 대사	말레이시아 내 북한 사람 은 없는 상황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 감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북형 김정남 암살 이후 북한 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를 묻자
10월 8일	권성동 의원	지금 추리 소설 쓰는 거 같아요. 추리 소설	농림축산식품 위의 해경 국 정감사	의원들이 물으면 수사 책임자 로서 확신에 차서 이걸 이렇 고 저건 저렇습니다 답변해야 국민들이 해경청의 발표를 믿 고 신뢰할 텐데 잘 모른다 추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정한다고 답변한다며
10월 8일	주호영 의원	문재인 케어 나는 이 이름 좋게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재원 대책 없이 고갈되고 나면 문재인 케어 아니라 문재인 미스가 된다고
10월 8일	박성중 의원	대한민국 방송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굉장히 불행하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	YTN 주식 매각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판하며
10월 8일	이용빈 의원	관중 뜻 아세요, 똥손 아세요?"	과방위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	방송 프로그램에서 마구잡이식 신조어가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을 지적하며
10월 8일	전주혜 의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8명 재판관이 임명됐는데, 그 중 5명이 '우국민' 인사	법사위의 헌법 재판소 국정감사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면서
10월 8일	최승재 의원	계란 한판이 얼마인지 아시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식자재마트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10월 7일	임이자 의원	앞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이낙연'이시네요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송옥주 환노위원장이 임이자 의원을 호명한다는게 실수로 이낙연으로 잘못 말하자 웃음을 터뜨리며
10월 7일	배현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준비가 대단히 부실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문체부 국감 이틀 전에 의원실로 찾아와 USB 30개 한꾸러미를 의원실 책상에 던지고 갔다며
10월 7일	서범수 의원	야당이 부르면 안 온다	행안위의 행안부 국정감사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 집회 대응 관련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보고한 것과 관련, 진영 장관이 '필요하면 야당에도 설명해야 한다'고 하자
10월 7일	신원식 의원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10월 7일	김영진 의원	약간 야멸찬 국감인 듯하다.	농림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사저가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취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지인데라며
10월 7일	김상희 부의장	마스크 씌시다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국정감 사	발언할 때 비밀이 많이 튀니 불편해도 되도록 마스크 착용 해야 한다며, 박성중 의원이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게 해달 라고 하자.
10월 7일	주호영 원내대 표	K방역 누가 이름을 지은 것인가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 정감사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 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10월 7일	김진애 의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 판사 카르텔 아니냐	법사위의 대법 원 국정감사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 을 비판하며

《2019년도 감사장의 한마디 말》

(언론보도내용 조합)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0월 02일	윤상직 의원	저 정도의 논란이 있으면 꼭 장관을 해야 하나 자괴감이 생기지 않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질문
10월 02일	이찬열 위원장	중학교는 괜찮습니까	교육부 국정감 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 교·대학교·대학원 입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
10월 02일	박찬대 위원	사상 초유의 엄마 찬스	교육부 국정감 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 들이 나 원내대표의 도움을 받아 서울대에서 논문 포스터를 써 진 학 스펙을 채웠다고 주장
10월 02일	이종배 의원	지난 7월 1일 일본 규제, 도 대체 언제 알고 있었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산업부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 그동안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의 문을 가지며 발언을 하였다.
10월 2일	성일중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 녀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 상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낙연 국무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을 지적
10월 2일	이정현 의원	우리 외교가 북한 중심 외교, 북한 올인 외교, 총선용 외교 에서 비롯된 외교 실종상태 라고 단정하고 싶다	외교부 등 국정 감사	‘외교부 패싱’ 논란에 대해 강경 화 외교부 장관에 질의
10월 2일	이장우 의원	조국 같은 편협하고 정치권 기웃거리는 폴리페서들로 꼭 채웠다	환경부 국정감 사	4대강 보 처리를 결정할 국가물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지적
10월 2일	김학용 위원장	참고로 저도 샤프란 애용자 다	환경부 국정감 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LG생활과학 전무에게 한마디 하겠다며
10월 4일	김승희 의원	건망증은 치매 초기 증상으 로 나타날 수 있다. 국민들은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 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쯤 되면 주치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을 잘 챙기셔야 한다		관련 질의
10월4일	김성원 의원	지금 홍길동식 답변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범범을 범범이라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답변을 지적
10월 4일	홍남기 장관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경제 활력을 찾는 데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 집회가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 대규모 집회에 대한 생각을 묻자
10월 4일	민경욱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공기업 5위로, 청년들은 LH에서 일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데 누구의 동생, 처제, 아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받고 쉽게 입사해 정규직이 됐다	LH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변창훈 LH 사장에게 친인척 채용 비리를 지적
10월 04일	추경호 의원	왜 물타기 하려고 하시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증세 정책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홍 부총리에게 한 말로 당연한 경제학 원론을 얘기하는 부총리에게 한 말이다.
10월 4일	서정욱 전 대한병리학회장	조민 씨는 자신이 열심히 해서 제1저자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떡하나. 본인이 무식해서 그런 분야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질의에 답변
10월 4일	송희경 의원	정부가 작곡하면 여당이 편곡, 언론사 방송사가 연주한다	방송통신위 국정감사	정부와 여당이 자신에 불리한 정보만 가짜뉴스로 규정한다는 점을 비판
10월 7일	한정애 의원	기상청이나, 이벤트 회사나	기상청 국정감사	기상청이 스마트폰 날씨 제보 앱 활성화를 위해 최근 3년간 이벤트 비용으로 약 2천300만원을 썼다면 서
10월 07일	김종민 의원	내가 조국이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여야의 조국 대전이 한층 격렬해지고 있을 때 김도읍 의원의 “내로남불도 유분수” 라는 지적에 반박하며
10월 07일	이만희 의원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진청이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소속 공무원 등에게 대부분 주의·경고조치만 취한 것을 지적
10월 7일	박완수 의원	이것은 소방청장 행복정책이지, 소방관 행복정책은 아니다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소방 홍보와 관련한 유튜브 채널 구독을 소방관들에게 강요했다면 서
10월 7일	장제원 의원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 광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쳐 돌아가는 나라다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팀이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10월 7일	임태섭 변호사	환자들을 데리고 생체실험한 것과 다름없다	식약청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골관절염치료제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인보사 케이주’를 국내에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을 비판
10월 8일	김성원 의원	금융가에 널리 퍼진 얘기인데 지금 금융감독원은 ‘핑짓’을 하고 있다. 자기 혼자 모른 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금융감독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비판
10월 8일	정기현 국립의료원장	잇힌 아이 같습니다	국립암센터 등 국정감사	국립의료원 부지 이전이 16년간 지연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세재 의원의 지적에 대답하며
10월 8일	김순례 의원	국립암센터가 (연구자의) 자녀들 논문 실적 만드는 제조공장입니까? 특혜받은 자식들 때문에 서민들은 열불이 납니다	국립암센터 등 국정감사	국립암센터 재직 연구원들의 자녀 논문 특혜 의혹을 질타
10월 8일	김순례 의원	대통령 아들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건 모르세요? TV도 언론도 안 보고 일만 하세요?	국립암센터 등 국정감사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질의
10월10일	전희경 의원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조국 일가를 위한 사익인권법센터다	서울대 국정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에게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운영을 비판
10월 10일	박완주 의원	(국내 김이) 세계 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산업계의 반도체다	수협중앙회 등 국정감사	이 수출 효자상품이라고 강조한 뒤 김 양식장의 불법 염산 사용이 늘고 있어 정부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10월 10일	윤상직 의원	처음부터 연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했다	한국연구재단 등 국정감사	한국연구재단이 ‘신진 교수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10월11일	윤후덕 의원	문재인 정부 통계청을 보면 안쓰럽다. 자존심이 상한다	통계청 등 국정감사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반박
10월 11일	여환섭 대구지검장	윤 총장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없었다	대구고검 등 국정감사	과거 ‘김학의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맡았을 당시 관련 기록을 모두 봤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내용은 없었다
10월 11일	송희경 의원	대학에 입학하려 하는 아이들은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대입 전형이 유행이라고 한다. 부모님들은 ‘조못미’, 즉 ‘조국처럼 못해서 미안해’라는 자조가 섞인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과학기술연구회 등 국정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을 언급
10월 11일	김동철 의원	이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민국 대통령이 할 이야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경기도 주요 노동정책 18개 과제를 비판
10월 11일	오거돈 부산시장	돼지국밥집을 하더라도 레시피가 어떻게 되는지 식자재가 어떻게 되는지 다 검토해야 한다	부산시 국정감사	과거 지방 정부에서 하던 정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 이유를 따져 묻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0월 11일	강효상 의원	마원은 자기 아파트에서 24시간 근무해서 알리바바를 만들었는데 52시간 적용해서 세계적 기업이 나오겠느냐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10월 11일	추경호 의원	쓴 소리가 되더라도 경청해 주길 바란다.	관세청 국정감사	관피아라고 불리는 관세청 퇴직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관세청을 비판하
10월 11일	김성식 의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관세청 국정감사	관세청이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관세심사대상을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선정했다는 지적
10월 11일	이중배 의원	정권 입맛 맞춘 무리한 코드경영	한국전력 국정감사	한전 현안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경영이 악화되고 무리한 코드 경영과 친정부 인사를 일명하고 한정공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실망스러운 행보에 대한 질타
10월 11일	이철희 의원	일부 판사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한다	대구고법 등 국정감사	법원노조가 판사의 갑질에 대한 하소연을 듣고 법원장의 조치, 내부 지침등을 요구
10월 11일	주광덕 의원	사범의 수처다	대구고법 등 국 정감사	유방암 투병 중인 김경숙 교수도 실형을 살았는데,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한다는 조모 씨가 전혀 아파보이지도 않고 종범 2명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조 장관 동생만 영장기각이 된 것을 문제를 비판
10월 11일	장제원 의원	법원 건물이 많이 낡았다	대구고법 등 국 정감사	준공한 지 46년이 된 대구고법의 노후를 언급.
10월 14일	장제원 의원	명재권 판사가 직접 나와서 조권이 0.0114%의 남자가 될 수 있었는지 보여야 한다	서울고법 등 국 정감사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부터 내린 1만7천여건의 영장 판결 중 심사를 포기했음에도 기각된 사례가 2건뿐이었다고 지적
10월 14일	여상규 법사위 원장	조국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이제 법무부 장관직을 퇴임하신다	서울고법 등 국 정감사	오후 국감 개의를 앞두고 조국 장관의 사의 소식을 전하며
10월 14일	이언주 의원	이게 사회주의야!	서울시 국정감사	서울시가 제로페이로 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
10월 14일	조원진 의원	박 시장과 당신은 꼭 법정에 세울 거예요	서울시 국정감사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철거과정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을 지적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을 언급하면서
10월 14일	우원식 의원	미숙했던 것이 아니라 위법이다	한국 수력원자 력 등 국정감사	한국서부발전의 비정규직 관리 실태와 관련 '업무가 미숙했다'는 김병숙 사장의 답변을 비판하며
10월 14일	박대출 의원	'딱국장'이라는 말을 들어봤나, '딱 보니 100만'이라는 뜻으로 MBC에서는 (보도국장을) 딱국장이라 부른다고 하더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박성제 MBC 보도국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지난달 28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요구 촛불집회에 대해 "딱 보니까 100만(명)짜리" 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0월 14일	박대출 의원	오늘 조국 장관이 드디어 사퇴했다. 처음부터 입어선 안 될 옷이었다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MBC도 마찬가지로 옷을 다 벗고 내려놔야 한다” 라고 덧붙이며
10월 14일	박완주 의원	제 페이스북을 오가는 사람보다 푸른장터 오가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산림청 등 국정감사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일일접속자수가 너무 낮은 것을 꼬집으며
10월 14일	이만희 의원	태양광 발전시설에 교훈을 얻은 게 없으십니까?	산림청 등 국정감사	산지를 보전해야 하는 산림청만큼은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
10월 15일	박성중 의원	(앞이) 안 보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	‘AR(증강현실) 고글’을 쓴 상태로 질의
10월 15일	윤후덕 의원	오늘은 하나도 없네요. 다행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등 국정감사	전날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자료 요청이 빗발쳤지만 이날은 없다고 언급하며
10월 15일	김동철 의원	국민이 개돼지입니까	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	한국고용정보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펴냈다고 비판
10월 15일	박용진 의원	‘아빠 찬스’도 아니고 ‘삼촌 찬스’를 넘어서 ‘남친 아빠 찬스’까지 가면 심각하다고 본다	전남대 등 국정감사	전남대병원 고위직의 아들, 조카, 아들 여자친구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
10월 15일	김성식 의원	갑질하면서 하면 안된다.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세무조사의 절차 무시를 지적하며
10월 15일	김성식 의원	중부청이 제대로 하고 있고, 서울청은 완전히 엉터리 행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서울청이 조사 확대사유에 국기법 시행령 조항만 그대로 배껴냈다고 지적
10월 15일	김성원 의원	조국 일가가 범죄 혐의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리우드 액션을 한 것에 동조한 것이다	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	자산관리공사가 응동학원에 대한 채권 회수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
10월 15일	김선동 의원	조국은 더이상 성역이 아니다. 조국 일가의 응동학원은 비자금의 웅덩이라고 생각하는 의혹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여기가 비자금의 몸통이고 웅덩이다	자산관리공사 등 국정감사	자산관리공사가 응동학원에 대한 채권 회수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10월 15일	이중배 의원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고 종합 백화점이다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	한국가스공사에서 안전사고와 성희롱, 성추행 등 기강 해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
10월 17일	박대출 의원	KBS가 보도 참사, 명예 참사, 그리고 경영 참사, ‘3대 참사’를 당하고 있다	KBS 등 국정감사	“KBS의 정권 맞춤형 편파 보도가 도를 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 고 지적
10월 17일	정진석 의원	‘KBS 시사토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의하는데 왜 불쑥불쑥 들어와	민주평통 등 국정감사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10월 17일	백승주 의원	제2작전사령부는 관리 사령부다.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	제2작전사령부가 작전사령부가 아니라 관리사령부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0월 17일	이주영 의원	가용장비를 통해 드론을 탐지한 적이 없다. 이래선 안 된다	제2차 전사령부 국정감사	대응 무기와 방안이 없어 우리나라의 안보가 뚫리기 쉽다는 문제를 제기
10월 17일	심재철 의원	소신없고 배짱도 없다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역산업계의 고난에 대해서 물은 질문에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이 할 말이 없다고 하자 소신없고 배짱도 없다고 질타
10월 18일	김학용 위원장	남쪽 돼지는 남쪽에만 살고 북쪽 돼지는 북쪽에만 사는가? 헤엄쳐 와서 놀다가 다시 간다는 것 아닌가	환경부 종합감사	환경부의 멧돼지 방역 초기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
10월 18일	이종배 의원	대한민국은 신재생 에너지 천국이 되기 위해 지우행 탈원전 급행열차에 올라탔다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
10월 21일	이종명 의원	국가대표 선수가 피땀 흘리며 샌드백 치는 것과 조폭이 선량한 국민 앞에서 '짱'하고 벽을 치는 게 똑같다고 생각하나	국방부 등 종합감사	'남북 9·19 군사합의' 이후 대북 안보태세가 약화된 것 아니냐고 지적
10월 21일	이양수 의원	변두리 취급받고 있어요. 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어업인들이 농업인에 비해 정책적 지원분야에서 차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

9. 국정감사 중(시작전 포함) 위원회 전체회의 40회

이번 국정감사의 시작 전 또는 국정감사 도중에 위원회 회의를 연 경우는 모두 14개 상임위원회에서 40회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만 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는 11월 4일 국정감사 중 회의를 열어 국회예산정책처장(임익상) 임명동의와 국회입법조사처장(김만흠) 임명동의를 처리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가 6차례로 가장 많이 회의를 하였고,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5차례 회의를 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시 자료제출 요구건으로 한 번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으로 한번 회의를 하였다.

정무위원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으로

1회 회의를 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중 문화방송에 대한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연합뉴스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후쿠시마 원전수방류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26일 종합감사 중 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3일 종합감사 중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 일정 변경을 위한 회의를 열었고, 10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노정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 직전 당일 국정감사를 연기하는 국정감사 일정 변경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 2020년도 국정감사 도중(직전 포함) 상임위 회의 개최 현황 >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국회운영	1	과학기술	4	산업통상	4
법제사법	1	국방	2	보건복지	5
정무위원	1	행정안전	4	환경노동	6
기획재정	1	농림축산	4	국토교통	2
교육	3	문화체육	2	계	40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2020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 수	피감기관 수	감사일 수	감사진행 시간	시찰횟 수	국회회사 수	영상회의 수	감사위원 출석률
국회운영	김태년(민)	28	9	2	19:49:00	0	2	3	100.00%
법제사법	윤호중(한)	18	76	11	114:29:00	0	11	14	100.00%
정무	윤관석(민)	24	46	10	106:40:00	0	10	10	100.00%
기획재정	윤후덕(민)	26	29	9	102:30:00	1	6	12	99.57%
교육	유기홍(민)	16	64	7	77:58:00	0	5	13	100.00%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원욱(민)	20	82	9	99:16:00	1	8	9	100.00%
외교통일	송영길(민)	21	30	9	83:14:00	1	9(8)	11	96.43%
국방	민홍철(민)	17	63	10	67:15:00	2	3	9	99.26%
행정안전	서영교(민)	22	35	10	96:26:00	0	7	15	100.00%
문화체육관광	도종환(민)	16	56	8	66:37:00	1	7	7	93.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이개호(민)	19	37	10	97:21:00	0	10	10	96.8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학영(민)	30	44	8	96:06:00	0	8	8	96.67%
보건복지	김민석(민)	24	22	8	77:51:00	0	8	8	100.00%
환경노동	송옥주(민)	16	70	10	98:17:00	1	7	9	93.75%
국토교통	전선미(민)	30	31	10	105:03:00	1	5	10	100.00%
정보	전해철(민)	12	5	4	20:52:00	1	2	0	97.22%
여성가족	정춘숙(민)	17	6	2	8:44:00	1	1	1	100.00%
17개	17인	356	705	137	1329:44:00	10	109	149	98.44%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2020. 11. 15. 기준임								

제20대 국회 제4차년도(2019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 수	피감기관 수	감사일수	감사진행시간	순감사시간	시찰횟수	국회회사수	영상회의록수	감사위원출석률
국회운영	이인영(민)	28	9	2	24:04	19:19	0	2	3	100.00%
법제사법	여상규(한)	18	76	11	97:46	75:32	0	3	14	98.81%
정무	민병두(민)	24	45	11	84:3	69:39	1	9	10	95.00%
기획재정	이춘석(민)	26	29	10	92:36	65:50	1	6	12	78.99%
교육	이찬열(바)	16	91	8	59:12	61:55	1	3	13	95.67%
과학기술정보통신	노웅래(민)	20	82	12	119:5	77:39	1	10	10	95.00%
외교통일	윤상현(한)	22	31	15	92:24	32:17	0	4	4	87.34%
국방	안규백(민)	17	64	11	57:45	49:22	5	2	8	96.26%
행정안전	전혜숙(민)	22	32	11	112:4 2	84:36	1		20	97.19%
문화체육관광	안민석(민)	16	75	10	55:18	37:50	3	7	7	95.5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황주홍(평)	18	34	10	84:1	60:09	0	9	10	9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종구(한)	28	61	11	111:4	66:43	1	10	10	99.29%
보건복지	김세연(한)	22	45	10	85:57	73:26	1	7	9	93.94%
환경노동	김학용(한)	19	71	12	103	77:10	2	8	10	99.38%
국토교통	박순자(한)	30	32	10	110:3 3	73:54	0	4	11	98.18%
정보	이혜훈(바)	11	5	3	16:56	16:56	1	0	0	93.18%
여성가족	인재근(민)	17	6	2	9:01	6:20	1	1	1	100.00%
17개	17인	354	788	159	1314:04	948:37	19	85	152	94.93%
참고	3. 외교통일위의 경우 해외공관 국정감사시간 포함하였고, 순감사시간에서는 제외함 4. 행정안전, 국방, 정보위원회의 회의시간은 국회공보시간을 참고하였음 5.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2019. 11. 29. 기준임									